

중국선교전문지

중국을 주제로

1999/5·6 (통권 57호)

특집/ 중국 교회의 필요와 대응

선교나침반/ 중국선교는 기도로 열여라

중국은 지금/ 수천만 가구의 운명을 바꿀 운의 관철문

연재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쓰촨성의 정족

「별책부록」 중국기도

“중국을 주께로” 증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교의 모든 문들은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 증보기도회가 98년 4월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증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국을 위해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동역의 장이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증보기도로 중국을 섬기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6:3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훈련원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Tel. 02) 592-0132, 594-8038

한 선교사의 고언(苦言)

얼마 전 서울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주한(駐韓) 외국인 선교사들을 한자리에 초청, 격려하는 자리였다. 거기에는 여러 유익한 순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Underwood 선교사의 손자인 Dr. Horace G. Underwood의 '외국인이 본 한국교회(My view of the korean church)' 라는 특강이었다.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는 한국 교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전도하는 교회, 둘째, 기도하는 교회, 셋째, 성경공부에 힘쓰는 교회, 넷째, 헌금 잘 하는 교회, 다섯째, 고난받은 교회, 여섯째, 큰 교회가 많은 교회. 그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이러한 장점들이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 장점들은 모두 세계 교회와 나눌 수 있고 또 나누어야 할 덕목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는 한국 교회의 단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다.

첫째, 한국 교회는 믿음은 강하나 생활이 약하다. 그는 물고기 표식을 한 기독교인 자동차들이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다는 것과 미국 대사관의 한국 목사들에 대한 불신을 그 예로 들었다.

둘째, 한국 교회는 연합에 약하다. 그는 그 예로 지나친 교단 분열과 개교회의 독자성 문제를 들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기존 토착교회나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협력하지 못하는 점과 심지어 같은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 교회는 물질주의 내지는 물질주의에 빠져있다. 그는 그 예로 호화대형 예배당 건축과 성장 제일주의를 들었다. 또한 대형교회들의 지성전 건축의 문제점도 이런 관점에서 지적했다.

넷째, 한국 교회는 계급주의에 오염되어 있다. 그는 그 예로 목사들의 지나친 특권 의식과 평신도들의 자기비하를 들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성례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말씀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성례전 자체가 소홀히 취급된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큰 손실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했다.

Dr. Horace G. Underwood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의 손자로서 자기의 조부가 세운 연세대학에서 교육사역에 몸바친 평신도 선교사이다. 나에게서는 그의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단순한 외국인의 비판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한 지체로서 드리는 충심어린 조언으로 들렸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반응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Horace가 지적한 장점들은 살리고 단점들은 고쳐나감으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중국선교 길라잡이

- 6 중국 교회 현주소 / 중국 가정교회는 사교(邪教)가 아니다
- 10 가정교회의 '호소문' 을 보고 / 중국 가정교회, 정부와의 대화 모색 / 쑤바이다(蘇百達)
- 12 선교 나침반 / 중국선교는 기도로 열려라 / 양희송
- 16 느헤미야 프로젝트 / 바람속의 하나님의 등불 - 원통교회 이야기 / 필립 램
- 18 제3국의 중국선교 / 중국선교의 새로운 현장 '괘' / 토마스 왕
- 20 궁금합니다 / 단기선교여행을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까? / 석은혜

특집/ 중국 교회의 필요와 대응

- 24 중국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가? / 수망중화
- 27 중국 교회, 목회자와 신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 서청
- 32 중국 교회에 문서사역자를 키우자 / 유진광
- 36 중국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 석은혜
- 42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국 교회의 필요는? / 최귀례

헌신의 삶

- 47 중국선교사 행전 / 중국을 위해 여생을 바친 월레스 / 광숙
- 52 중국사역 체험기 / "좋은 상담자도 되어주세요" / 왕쓰웨이
- 56 현지에서 온 소식 / 중국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 다비다
- 58 내가 만난 하나님 / 멀고도 먼 진리의 길 / 리청(里程)
- 64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 / 중국선교에 부흥을 일으킨 미국 선교단체들 / 이삼열



특집/ 중국 교회, 목회자와 신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중국 교회를 찾아서(16) /
농민 저항의 역사가 살아 있는 미오퍼
동의 고향 후난(湖南) 성의 교회(II)



특집/중국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중국은 지금

- 68 중국은 지금 / 수천만 가구의 운명을 바꾼 판결문
- 73 중국 뉴스초점 /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돌아보며 / 연구부
- 78 중국 · 중국인 / 만만디와 관시로 사는 중국인들 / 석은혜
- 82 중국동향 /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 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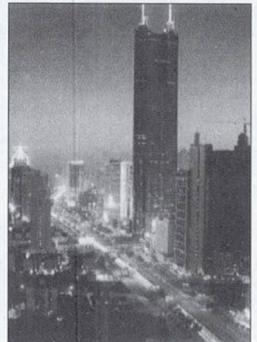
연재기획

- 88 중국 교회를 찾아서(16) /
농민 저항의 역사가 살아 있는 마오쩌둥의 고향 후난(湖南)성의 교회(11)
- 92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5) /
삼자교회의 신학 / 주피득
- 96 관문도시(8) /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 연구부
- 100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11) /
쓰촨성의 소수민족 - 독특한 돌 문화를 보유한 창(羌)족 / 주영찬

선교중국어
코너

- 112 중국어 기도문 / 崇拜禱告 (예배시의 기도)
- 113 선교 중국어 회화 / 寶貴的人 (존귀한 사람)
- 114 중국어 복음성가 / 應當單單仰望主 (주만 바라볼지라)

- 1 발행인 칼럼 / 한 선교사의 고언(苦言) / 이동화
- 4 선교일언 / 성육신이 필요한 선교사역 / 마로덕
- 22 목상의 샘 / 억누를 수 없는 소명
- 115 선교복덕방 / 새 일꾼을 찾습니다
- 116 서평 / 가시밭의 백합화 / 최남선
- 116 신간도서 · 선교 다이제스트 /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외 6권
- 118 선교 계시판 / 해외 선교단체 정보
- 120 자료실 / 라오닝(遼寧)성 종교사무 관리조례



관문도시(8) /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선전(深圳)



관문도시(8) /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광저우(廣州)



성육신이 필요한 선교사역

마로덕



한국 선교사들은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인식하여 극복해 간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될 것이다(사진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肉身)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선교사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기뻐해야 한다. 필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선교사들에게 두 가지의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중국으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선교사들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고귀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미 살고있었던 하늘나라의 익숙한 분위기와 편안함을 기꺼이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몹시 불편함을 겪으셨다. 중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 역시 편안함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왔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이상의 심오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으로 왔다.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의 목적을 가진 선교사들은 뭔가 남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중

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소핑, 거주, 자녀 교육, 교통 수단, 주택 문제 등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 또한 일가친척, 가족, 친구들과의 이별의 아픔도 참는다. 그들에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중국인들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함을 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영혼을 구하는 고귀한 목적이 없이 평안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이다. 중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도 중국에서 치루어야 할 희생이 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사상과 태도, 대

인관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한 확신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분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불꽃같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옆에서 천사들이 시종을 들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셨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한국 목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 목사들은 여러 면에서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있으며, 성도들의 존경과 추앙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사로서 중국에 갈 때는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위 그리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까지도 버려야 한다. 그들은 낯선 외국 땅에서 손님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현지인을 존중하는 예의바른 손님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교단 본부에서 행정적인 사역을 하도록 임명받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했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은 내 말에 순종했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해서였다고 보다는 행정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맡은 행정 사역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나는 다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때 나에게 협력해준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행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다. 중국에서 나는, 나의 생각을 중국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절 바르고 친절하게 그들을 설득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나에게 아무 권위도 없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약간의 신앙서적을 썼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이성애 호소하여 그들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어떤 기술이나 은사가 요구된다. 중국은 권위를 앞세우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즉 중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더 각별히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일은 본국에서 존경을 받고, 명령하던 습관에 배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사역 경험을 비교해보면 나는 중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중국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권위도 없었다. 그것은 나도 아는 일이고, 중국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교단의 책임감 있는 부서를 맡아서 일할 때 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가끔씩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데 권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권위를 갖고 또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 골머리 아팠던 때 보다 권위 없이 보냈던 중국에서의 시간들이 더 좋았다.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선교를 하는 일은 다른 나라 선교사들보다 언어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목사로서 추앙과 존경을 받았고 높은 명성을 가졌었다는 것은 중국선교 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의 형제 자매 선교사들이 내가 앞서 말한 것 중에서 장점은 잘 활용하고 단점은 잘 인식하여 극복해 나간다면 많은 중국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세대의 크나 큰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자.

마로덕(Ron Meyers)/ 선교학 박사, 미국인으로 한국과 중국 선교사역임.
현재 미국 오랄 로버트 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의 교수로 선교학 석사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중국 가정교회는

사교(邪教)가 아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호소문



머리말

최근에 정부가 종교사무국에 등록하지 않고, 삼자애국회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적인 가정교회를 탄압 하였으며 또 우리를「사교(邪教)」로 잘못 규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무고(無辜)하며 이러한 처사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음을 밝히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전국 각 처에 있는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일을 놓고 토의를 하였으며, 연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한다.

1. 우리의 신앙은 잘못이 없다.

- 1)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임을 믿는다.
- 2)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은 삼위일체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 3) 우리는 말씀이 성육신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양성(兩性)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다.
-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며, 또 그가 반드시 재림하여 교회를 맞아주실 것을 믿는다.
- 5)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세주 이심을 믿으며, 죄인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 6)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교회 전체의 구주이시다.
- 7) 우리는 성령의 내주(內住)와 충만을 믿고, 부활과 심판, 영생과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2. 우리는 사회적으로 잘못이 없다.

- 1)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헌법에서 “국민(公民)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에 부합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 2)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관직에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를 존중하였고, 공세(貢稅)를 바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며, 또 각 급의 지도자에게도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다.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그러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은 기층(基層)간부들이 증명할 수 있다.
- 3) 우리는 국가의 법률, 정책(성경과 상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 4) 우리는 사회도덕을 준수하고, 교양(文明)과 예의를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정신문명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5) 우리는 평화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였으며, 각계의 인사들을 단결시켰으며, 절대로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경시(輕視)하지 않았다. 처세(處世)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갔다.
- 6) 우리는 세계의 여러 신앙이 순수하고 올바른 교회와 주 안에서 연합하여 교제하며, 합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3.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

- 1)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지켰고 선한 일을 행하였다.
- 2) 우리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 3) 우리는 도적질, 강도질, 빼앗는 일, 노략질, 간괴한 일, 음란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마약을 판매하거나 복용하지도 않았다.
- 4) 우리의 가정교회는 모든 일을 규칙에 따라 행했으며, 성경의 원칙으로 행하였다.
- 5)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였고, 이웃과 화목하였으며, 사회에서 봉사하였고, 정부 간부들을 난처하게 하지 않았다.
- 6) 우리는 공의(公義)를 사랑하고, 죄악을 싫어하며, 말과 행실을 조심하였으며, 범죄하지 않았다.

4. 우리는 정치적으로 잘못이 없다.

- 1)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수호한다.
-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국에 세우신 지도자와 인민 정부를 옹호한다.
- 3) 우리는 비록 국가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어떠한 반동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지 않았다.
- 4) 우리는 민족의 이익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중국의 가정교회는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중국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사진은 어느 가정교회의 예배 드리는 모습).

王)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6)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강(紀綱)과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기독교인과 합당한 공민이 되도록 가르쳤다.

6. 주를 믿고 난 후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1) 습관적인 절도행각이 개선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난 후, 전적

으로 변하게 되었다. 다른방법으로는 변화되지 못하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변하게 되었다.

인민에게 유익한 일만 하였다.

- 5) 우리는 외국의 정치를 의지하여 중국의 정치세력과 대항하지도 않았다.
- 6) 우리는 신도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의 말씀만 전하였으며, 어떠한 정치적 야심도 없다.

5. 우리가 전한 메시지는 잘못이 없다.

- 1) 국가와 민족, 가정, 개인을 막론하고 유익한 일만 했으며, 절대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
- 2)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만 전하였으며, 절대로 성경의 원칙을 넘어서지 않았다.
- 3)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였으며, 새 생명을 얻게 하였다.
- 4)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떠나 선을 행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였다.
- 5)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군왕(君

- 2) 많은 기가 센 여자(潑婦)와 불효자(逆子)들이 주를 믿고 난 후, 현숙한 부인과 효자가 되었다.
- 3) 도덕적으로 포악한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주를 믿고 난 후, 철저히 잘못을 뉘우쳤다.
- 4) 마약을 복용하고 판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난 후, 마약을 끊었고 정당한 사업에 종사하였다.
- 5) 할 일 없이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난 후,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 6) 싸움을 일 삼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난 후, 사랑과 평화로 사람들과 살고 있다.
- 7) 상처받은 많은 심령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치유함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으며, 이러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7.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

- 1) 핍박을 당하는 가정교회는 정치와 도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설교와 복음전도를 하며 그리고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기인된 것이다.
- 2) 가정교회가 핍박을 받고 난 후에도 정부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묵묵히 참고 순종하면서, 정부를 위해 기도하였다.
- 3) 가정교회의 지도자와 교역자들은 비록 핍박, 벌금, 심문, 노동교육, 노동개조를 당하였지만 여전히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국가와 정부를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 4) 가정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의 기층(基層) 간부들도 피해자들은 무고하며 자신들도 하는 수 없이 공무(公務)이기에 집행할 따름이라고 증언하였다.
- 5) 심문소(收審所)와 개조부서(兩勞單位)는 심문과 노동개조를 받고 있는 신도나 교역자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신임과 동정을 받고 있다. 또 그들은 피해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수하고 출중(出衆)한 도덕과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맺음말

우리는 진심으로 정부에게 호소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과 복음전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를 더 이상 「사교(邪教)」로 오인(誤認)하지 않기를 호소한다.
2. 우리는 정부에게 우리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 예를 들어 구타, 가택수색, 벌금, 구류, 노동교육을 중지하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줄 것을 간청한다.
3. 우리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로 신앙과 복음전도의 이유로 심문을 당하고, 노동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과 교역자들을 석방해 줄 것을 간청한다. 사실 신도가 많은 지역에는 사회치안이 더 안정적이며, 정신문명과 사회분위기가 더 좋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크고 많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원한다.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 대표

1998년 8월 22일

출처/ 『중국 교회와 선교』 5호에서



중국 가정교회, 정부와의 대화 모색



정부당국의 바람이 어떠한 간에 중국 가정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것이다(사진은 어느 가정교회의 예배 드리는 모습).

작년(1998) 8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장룽량(張榮亮)은 허난성(河南省)에서 처음으로 외국기자의 방문을 받아들여 보도와 사진 촬영에 응했으며, 베이징(北京) 정부에 공개서면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이 〈중국 가정교회 각 교파 연합 호소문〉은 해외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는데, 〈호소문〉의 내용에는 정부가 가정교회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상호 이해증진, 화목도모, 대립감소, 긍정적 상호 교류의 실현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계에 대해서도 중국 가정교회의 탄압을 중지할 것과, 신앙 때문에 체포된 기독교인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쑤바이다(蘇百達)

일반 해외 인사들은 이 〈호소문〉이 공격적이지 않게 정부당국을 비판했으며, 기독교 신앙이 중국에 존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객관적으로 대해줄 것을 이성적으로 호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평론가들은 이 〈호소문〉이 당국에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당국의 바람이 어떠한 간에 수천만의 중국인들은 이미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였으며, 외부의 압력이 어떠한 간에 그들 중의 다수가 몰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은 이미 중국 인구 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탄압과 압제로 민심을 잃는 것보다 현실을 인정하여 인민들에게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를 줌으로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를 하기도 하였다.

〈호소문〉은 또한 '집권자가 기독교를 탄압할수록 기독교 신앙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준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인민의 신앙자유를

보장한다면 기독교인은 도리어 사회와 국가에 대해 큰 공헌을 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만약 집권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곧 스스로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반대로 한 국가가 만약 교회의 신앙자유를 보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호소문〉의 발표는 무엇보다 현 가정교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고 있다. 이것은 유사 이래 최초로 공개되는 중국 가정교회 명의의 연합 발표문이다.

한편 〈호소문〉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정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외국정부나 국제인권단체로 하여금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거나 중국과의 무역을 중지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요구하여 자기 정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 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또한 정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것은 겸허한 태도로 성의를 표현한 것이다.

〈호소문〉 중에는 “화목도모...공정적 교류 실현...교회는 중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다.” 등이 있고, 가정교회는 사회안정에 성의있게 기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 평론가들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 간 기독교회가 겪은 고난을 회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과거사를 잊고 전 국가 이익과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고 용서를 나타냈다고 본다.

또한 관망가들은 〈호소문〉의 발표는 중국 국내의 유형적 발전을 이끌어 이미 중국 헌법 가운데 신앙자유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본다. 중국 국내의 경제 개혁은 긴요한 부분까지 진행된 이상 정치 개혁의 필요와 긴급성도 뚜렷해졌다. 중국 국내 경제가 직면한 큰 문제는 건전한 독립, 사법체계의 결핍과 정부관원의 부패 현상이다. 그 가운데 특히 정부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은행이 대출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중국 경제의 가장 근원적 위기이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움직임을 방해하고

민중 마음속의 집권당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시대의 종결과 정보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날로 자기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집권자에게 법률적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제 여론도 인간의 기본권리, 종교신앙의 자유, 환경보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제적 이미지와 외교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베이징이 외교적 필요 때문에 달라이 라마와의 회담을 원하게 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교회와도 더 많은 이유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중미(中·美)관계 측면에서는,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건립한 국가이므로 종교자유 문제에 민감하고 이것이 양국관계의 큰 장애 가운데 하나였다. 장쩌민(江澤民)과 클린턴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정부 고위층 회담 때마다 이 문제를 다뤘었다. 미국 정부 국무원은 금년에 특별히 종교자유 취급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미국 외교정책과 종교자유 문제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는 종교자유 문제가 다시는 선거용 이슈나 정치적 쇼가 아니고 국무원의 상규안건이 되고, 이후 정부의 장기적 관심문제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자유가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중미 관계의 새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망가들도 국내적 필요와 국제 조류에 직면하여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현명하게 이를 따르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UN 대표 친화순(秦華孫)이 1998년 10월 5일에 UN의 〈공민권리와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공약〉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은 60번째 서명국이 되어 많은 국가의 찬성을 받았다. 친(秦)은 “인권 실현은 전 인류의 이상이고 중국 정부가 성취할 목표”라고 말했다. 만약 중국이 이 공약대로 따른다면 중국인이 누리는 신앙자유는 장차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선교는 기도로 열어라

양희송

“기도는 믿음의 전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역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도야말로, 혹은 오직 기도만이 진정하고도 유일한 믿음의 전투이다. 다른 모든 사역은 기도를 통해 이미 완료된 전투의 전리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일 뿐이다.”

(김윤기 목사, '영적 전투와 중보기도' 강의 중에서)

기도 최우선 주의

나는 '기도합주회(Concert of Prayer)' 운동을 약 7년 전에 접했다. 아직도 나는 기도의 거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동안 나의 부족한 기도생활에 많은 깨달음과 자극을 얻은 것은 고마운 일이다. 내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 담겨 있다.

기도운동의 위기는 사람들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기도하는 데에 있다. 빌리 그래함의 부인인 롯 그래함 여사는 “오늘날 기도의 위기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Unanswered prayer)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하는 기도(Unoffered prayer)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근접하지 못한 우리만의 관심사에 열중하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기도의 역량을 엉뚱한 곳에도 소진시키고, 기도자 자신의 영적 내면세계를 고갈시키게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셨다.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안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기도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자기암시를 위해서 쓰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기도 그 자체가 가장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자리잡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활동이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앞서 인용한 구절은 그런 의미에서 특히, 선교나 교회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의 각성을 일깨우는 자극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기도 최우선'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선교동원으로서의 기도운동

'선교동원(Mission Mobilization)'이란 말은 최근 국내외 선교운동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동원'은 사전적으로 '전쟁과 같은 비상 사

때 때, 국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가 나라 안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일'로 정의된다. 즉 선교동원이란 쉽게 말해서 '선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선교가 '전시 상황을 연상시킬 만큼 급박한 일'이란 공감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매일 선교적 기도제목과 목상을 할 수 있도록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GT(Global Time)>같은 기도정보 전문지의 역할이 크고, 여러 종류의 경건의 시간 책자들이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함께 싣고 있어서

대와 선교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온 교회(Whole Church)가 함께 해야 할 일'이란 전제가 함축되어 있다.

선교동원이란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지만 이 영역에는 전통적으로 선교비를 모금(Fund Raising)하는 '물적 동원'과 선교 헌신자를 일으키고 그 중에서 선교사를 발굴(People Raising)하는 '인적 동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도 이 영역은 선교동원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선교동원 운동은 직접적인 선교사 후보자의 발굴에 머물지 않고, 전 교회적 차원의 광범위한 선교적 각성을 일으키고, 저변확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기도동원(Prayer Raising)이 선교동원의 주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도동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은 선교한국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도합주회'를 꼽을 수 있다. '영적 각성'과 '지상명령 성취'라는 두 가지 주제에 따라 준비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 운동은, 90년대 초반에 국내에 소개되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교적 기도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각 선교단체마다 정례 기도회를 간사나 후원자 중심의 소규모에서 선교헌신자나 관심자까지 포괄하는 중대규모의 기도회로 확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기도동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확산에서

특특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각 선교단체마다 기존의 회보에서 기도제목만 따로 떼어낸 기도책자를 발간하는 경향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기도동원 사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올바른 기도정보를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점과 기도동원 사역의 좋은 모델들이 더 많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선교전략으로서의 기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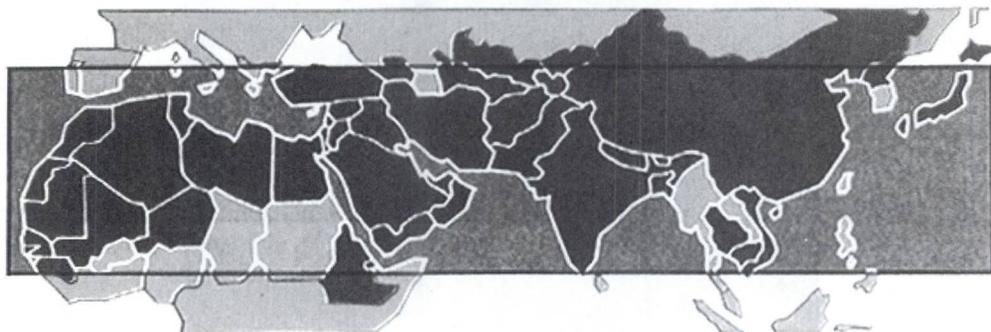
중보기도사역 자체가 하나의 선교전략으로 독자성을 갖추어 가는 것도 최근 선교운동의 주요한 동향으로 꼽을 수 있다.

대규모의 국제적 중보기도 네트워크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세계적으로 기도운동의 각성이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런 각성운동이 다양한 형태로는, 대규모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 대행진(March for Jesus)>은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와 찬양이 접목된 형태로 매년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운동으로 성장했다. 몇 년 전 미국을 뒤흔들었던 남성들의 영적 각성운동(Promise Keeper)도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었다.

선교운동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기도 네트워크가 많이 가동되었는데, <10/40 창문지역을 위한 기도운

The 10/40 Window



동)이 약 일년 정도씩의 기간을 두고 4차에 걸친 기도운동을 벌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중보기도자를 이끌어 내었다. 이 기도운동을 통해 특별히 선교적 기도가 집중되어야 할 지역으로 '10/40 창문 지역'이 부각된 점이나, 이와 유사하게 '관문도시(Gateway)' 개념이 확산된 것 등은 큰 공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종교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 네트워크 있다. 국제 예수전도단(YWAM)이 중심이 되어 매년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나, 같은 개념으로 힌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힌두인을 위한 30일 기도> 등은 매년 정례적으로 이들 지역과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규모의 전략적 기도운동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주로 하는 사역은 주로 교회개척을 통한 제자훈련에 큰 비중이 주어져 왔다. 교육, 의료, 개발 등의 프로젝트도 선교사들이 주로 해온 선교사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교운동에 있어서 '장기 거주(Long-term residential) 선교사'들을 통한 사역 외에 '단기(Short-term) 선교팀'이나 '비 거주(Non-residential) 선교사역'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기도사역 자체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로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역연구와 결합된 형태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실크로드를 따라 선교여행을 다녀온 한 선교단체는 현지에서 자료조사

와 인터뷰를 주로 하는 지역연구 담당자,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는 미디어 담당자, 중보기도 사역자 등 약 8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전략적인 사역을 감당한 예가 있다. 이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전적으로 중보기도만을 하기도 하고, 공개사역이 가능한 곳에서는 개인전도나 영화상영 등을 통한 전도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모든 활동은 차후에 사진이나 비디오의 형태로 국내의 선교동원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선교 헌신자들이 선교지를 둘러보는 비전트립(Vision Trip)과는 달리, 이미 전임으로 이 지역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중국과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해 왔다. 그런 기도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운동이 전개되기를 소원한다.

기도의 대상과 단위를 분명히 하자

중국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규모와 방대함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국을 앞에 두면 막막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선교동원이나 적극적인 선교사역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막연한 기도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몇 가지 개념들을 통해 전세계의 선교적 필요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기에 국제적 차원의 기도운동이 가

동될 수 있었다. 중국의 선교적 필요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가 전략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지점을 우리는 어떻게 가시화 시킬 수 있을까.

기도운동은 대체로 도시단위의 영적자성을 지향하면서 많은 유익을 맛보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동일하다. 지면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관문도시(Gateway City)를 통한 접근은 기도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하다. 계층적 접근도 중요하다. 대학생 계층이나 지식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나가고, 그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읽어 가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농촌이나 최근 급속하게 나타나는 도시유민들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필요도 있다. 자본주의 질서에 서서히 편입해 들어가고 있는 도시의 신흥 부유층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파장을 주시하며 기도를 해 나가는 이들도 나와야 한다. 해외의 중국인 교회들이 선교적 각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황을 기도로 뚫고 나가려는 이들도 있어야 한다.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도록 기도하고, 사역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 것도 선교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 아무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기도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정하는 데에서 목적이 있는 기도가 가능하다. 또 그 목적이 있는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일4:19),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13:1). 그 정신이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녹아들어야 한다. 중국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의미가 큰 것은 오랫동안 신앙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확장시켜 왔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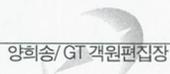
나는 지난번 중국을 다녀오면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젊은이들을 만나보았

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세계선교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일구어 온 개척의 역사였던 것을 떠올렸다.

19세기 미국의 대학가에 놀라운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시초가 되었던 윌리엄스 대학의 ‘건초더미 기도회’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5명의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배출한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도화선은 당대의 부흥사 무디의 혈몬산 집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수련회가 선교현신의 장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참가했던 로버트 와일더(Robert Wilder)란 한 젊은이의 기도와 끈질긴 설득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이 운동을 전면에서 이끌면서 세계적인 선교지도자로 활약한 존 모트(John R. Mott) 역시 중보기도의 필요를 전적으로 깨닫고 있던 인물이었다(선교한국에서 그의 글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를 소책자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수많은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이면에는 수년에 걸쳐 가히 고통스러운 정도로 중보기도를 감당해왔던 이들의 발자취와 땀이 배어있다.

맺는 말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기도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수준의 영적 싸움이다. 이것에 성공하지 못하고서, 사역에 성공하는 법은 없다. 영적 전쟁에 기선 제압을 할 수 없는 이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언젠가 TV광고에서 들었던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다. “부드러움은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다. 우리가 사역과 삶에 쫓겨 바둥거리고 있는 것은 결국 내적인 자신감의 결핍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유를 찾아주고, 유연한 태도를 가능케 하는 내적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하고도 유일한 영적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사람이 전리품을 거두러 집을 나설 때 숨길 수 없이 드러나지 않을까. 전리품을 챙기는 심정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참으로 자신감 있게 선교하는 사람들을.



건조한 산시(山西)성 높은 고원지대에는 심한 흠먼지가 전지역에 흩날리고 있지만, 이곳 외진 중국의 북쪽지방에는 복음의 햇불이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다. 나무 하나 없는 쿠 산(山)의 그늘 아래 자리잡은 완룽교회는 외부세계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번갯불과 같이 큰 기세로 뻗어나가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이곳 완룽교회는 겨우 300명의 신자를 가진 작은 교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작은 교회가 2천5백 명의 많은 신자를 가진 교회로 성장했고, 앞으로 5년 후에는 5천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진 교회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바람 속의 하나님의 등불 - 완룽교회 이야기

필립 램

이 교회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최근에 중국 대륙의 교회 재건을 돕는 홍콩의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낸 후부터였다. 이 교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기존 시설로써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협소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시간에 임시 막사나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보다 나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은 1998년 큰 교회를 짓기 위한 교회건축 작업에 들어가, 그 지역 관리들과 많은 협상작업을 벌인 끝에 마침내 3.66 에이커의 땅을 사들일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새 터전 위에 한번에 1,200명의 신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새 교회를 짓고자 하는 비전에 차 있다. 교회를 짓기 위한 비용은 인민폐로 6십만 위안(元)(미화 72,400 달러)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가난한 완룽교회 신자들이 내는 헌

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민폐 25만 위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교회건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35만 위안이 더 필요한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15만 위안을 모금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중국의 종교정책 변화로 인해 완룽 현의 기독교인 숫자도 8천 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1993년 이후 10차례에 걸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평신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 훈련을 받으며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그

은 이웃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곳 완룽지역에는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30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다. 만일 당신이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헌금하기를 원하거나 교회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아래의 홍콩 기독교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중국 교회들이 교회 건축에 필요한 헌금을 기다리고 있다.

리고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그들은 작년에 중국을 덮친 대홍수 피해자들에게 수많은 옷가지들을 기증했다. 중국 기독교협회와 수해지역 지방정부 관리들은 그들의 이러한 헌신적 노력을 크게 칭찬했다.

완룽교회는 새 건축부지의 입구에 많은 비석을 세웠다. 보통 이러한 비석들에는 고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어록이 새겨져 있게 마련인데, 그들은 비석 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새겨놓았다. 이들

TEL : 852-2368-7123

FAX : 852-2724-2131

E-mail : hkcc@hk.super.net

담당 : 필립 램(Philip Lam)

우리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릴 것이다.

출처/ 'NEWS & VIEWS, HONG KONG CHRISTIAN COUNCIL
번역/ 손바울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협동간사

중국선교의 새로운 현장

‘괌’ *Guam*

토마스 왕

약 50년 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는 사이판과 마리아나군도 주둔 미 해군에서 중국 정부의 대표로 근무했었다. 이 지역은 세계 대전 전후에 미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사이판 근처에 티니엔 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곳에 미 해군은 거대한 공군기지를 건설하여 섬 전체를 공군기지화 하였다. 바로 이 공군기지에서 B29 폭격기가 이륙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폭격한 것이다.

CCCOWE에서 나와 동역 하던 래리 시에(Larry Hseih) 목사가 과거 몇 년 동안 괌(사이판 남쪽의 미 국령)에서 중국인 교회를 섬겨왔다. 시에 목사는 올 초 나에게 마리아나 군도의 필요에 대해 나누고 괌과 사이판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재 사이판 섬에만 복음을 필요로 하는 15,000명의 중국인 여성 근로자가 있으니 9월에 호주로 가는 기간 중에 괌, 사이판, 티니엔을 방문해 달라는 것이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 5성 호텔들과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50년 전만 해도 주민은 한 명도 없이 군인들 뿐이었고, 군용 건물 외에는 오두막 한 채 없었는데, 지금은 홍콩 사업가가 운영하는 1억 4천만 달러 짜리의 거대한 호텔 카지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티니엔이 1999년 이후에는 마카오를 능가하는 도박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보호령으로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상황의 차이를 이용해서 홍콩과 대만의 많은 사업가들이 이곳에 많은 봉제공장을 세우고 중국에서 값싼 노동자들을 데려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며 고출자자들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많은 임금을 받고 일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있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현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진 채, 경비원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공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들의 임금은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 공제되고 있으며 이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공장이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다. 이 상황은 몇몇 인권운동기구의 주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미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하기도 했다.

최근에 일부 봉제공장은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공장은 여성노동자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사이판에는 네 개의 중국인 교회가 있다. 한 곳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아주 작은 규모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사이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본국에 돌아가 고향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는 보고들도 있다.

시에 목사의 초청으로 GCCI는 베테랑 선교사인 조지 카오 목사를 꺾에 파송하여 시에 목사와 함께 이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꺾, 사이판, 티니엔 이외에 팔라우, 피지, 마셜 군도, 길버트 군도, 솔로몬 군도 등에도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중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선교의 장이 되었다.

출처/ 대시명통신(大使命通訊) 98년 12월호에서
번역/ 권오일 · 자원봉사자

중국 산업연수생 도 '한파'

한국의 IMF 사태 영향 크게 받아

한국이 IMF 한파를 맞은 지난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산업연수생 파견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국제상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한 중국대사관 경상처(經商處)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중국 산업연수생의 한국 파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년말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은 연수생을 파견한 곳은 옌벤하이와이(延邊海外) 노무수출공사의 1,040명과 웨이하이귀찌(威海國際)의 795명 등이다.

98년말 현재 인원수가 연초의 비해 가장 적게 감소된 업체는 중국건축(中國建築)의 5.9%, 텐진하이허(天津海河)의 9.2%이다.

연수자를 가장 많이 교체한 업체는 옌벤하이와이 공사의 363명과 웨이하이 국제공사의 321명이다.

실업자의 재취업 케이스가 많은 것은 헤이룽장엔지니어링(黑龍江工程)의 261명과 지린귀찌(吉林國際)의 252명이다.

노임 체불이 가장 적은 업체는 중국청타우(成套)공사와 푸순와이젠(撫順外建)이다.

가장 많은 노임 체불을 해결한 것은 텐진하이허와 산둥귀찌(山東國際)이다.

중국옌쑹총공사(中國燕興總公司)는 작년말 한국 파견 연수생이 가장 적고 대표처의 업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장기간 대사관 경상처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문서로 견책을 받았다.

출처/ 「메이징 저널」 85호에서

단기선교여행을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해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중국으로 단기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팀의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처음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중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행 떠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나와있는 중국인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리에서 찬양집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A: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처음 가는 여행이라면 그 넓은 중국 땅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기선교여행은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는 배낭여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지 장소를 정하기 이전에 먼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기선교여행이 단순한 비전트립인지, 정탐여행인지, 아니면 중국에 가서 말씀사역이나 봉사 등 실제사역에 참가할 것인지, 땅 밟기 사역을 할 것인지 등등 그 목적에 따라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단기선교여행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적을 한 가지로 정하세요. 그런 후에 여행할 지역을

그 여행의 목적에 맞는 곳으로 정하면 됩니다. 중국 여행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들은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여행장소를 결정할 수도 있고, 저희 선교회가 소개하는 코스(『중국을 주께로』, 97.7/8월호, 78쪽~83쪽)를 참고로 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에 따라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든지 간에 선교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 정보와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간단한 회화도 준비해 간다면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정탐여행을 한다면 반드시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통역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탐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정리해 보거나 이 정탐여행에서 무엇을 정탐하고 올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질문할 내용을 만들어 가는 등 정탐여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려고 하는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신지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단’이나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단기선교 의료봉사팀’을 구성하여 단기선교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만약 중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올 여름에는 어느 팀들이 중국에 봉사를 하러 가는지 정보를 알아보고, 그들과 합세하여 그 사역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종교자유가 있다고 중국인이 말했지요? 맞습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법규 정책 학습자료」에 의하면 ‘종교 신앙 자유’가 곧 ‘종교 활동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이 신앙을 가질 자유가 있으며, 주일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는 있으나 전도를 하거나 기타 다른 종교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외국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선교여행을 가서 길거리에서 찬양집회를 하거나 전도지를 마구 돌리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리에서 찬양집회를 하거나 전도지를 돌리다가 발각되면, 추방당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곳에서 계속 남아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찬양사역을 꼭 하고 싶다면, 삼자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삼자교회 측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할 수는 있습니다.

중국 단기선교여행 시 조심해야 될 사항을 물어오셨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첫째, 일정을 잡을 때 좀 느슨하게 짜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땅이 너무 넓은 데 반해 교통 상황이 좋지 못해 여러 가지 면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을 하다보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날에 맞게 기차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준비할 때 너무 뽀뽀하게 짜지 마십시오. 중국이 우리 나라 보다는 물가가 싸지만 베이징(北京)이나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의 물가는 많이 상승되어 있고, 일정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경비가 너무 뽀뽀하면 안내해 주는 선교사님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통화할 때 언어사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화가 도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칭이나 여행 목적 등등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여행을 다녀온 후에 핸드북을 만들거나 기록에 남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이나 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심결에 기록했던 기록이 선교사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도를 빼 놓을 수 없지만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기도후원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후원자 팀을 만들어 놓고 떠나십시오. 단기선교여행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유익하고 뜻 있는 단기선교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많은 젊은 이들이 장기선교에 헌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형제님 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기선교 여행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원하거나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중국어문선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억누를 수 없는 소명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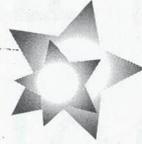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지 않는지 조심하라.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나 그 사실을 증거할 소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복음전파에 대한 소명은 아니다. 그것은 복음전파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전파를 억제함으로써 자기에게 생기는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구도자들에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전파의 소명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이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자의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되는 일은 선택적이다. “만약 아무든지...”(막 8:34).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입장에서 한 것이다. 종이 되면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인에게 물어볼 자유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찢어 떡이 되게 하시고 들어부를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롬 1:1)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부름을 어깨너머로 듣게 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통이 시작된다. 모든 야망이 꺾어지고 생의 온갖 욕구가 사라지며 일체의 전망이 단허버린다. 남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일단 부르심을 받은 자가 딴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주의 손을 뿌리치게 하려는 경쟁의 대상들을 조심하라.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월드 챔버스 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특집/중국 교회의 필요와 대응



중국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성령의 역사와 중국 성도들의 생명을 아끼는
일꾼들의 헌신으로 놀라운 부흥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빠른 속도로 밀려드는 세속주의와 이단의 물결에
압도당하여 그 성장을 멈출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지금
중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대
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이 필요한가?” 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우리의 중국 선교의
과제가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24 중국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가?

27 중국 교회, 목회자와 신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32 중국 교회에 문서사역자를 키우자

36 중국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42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국 교회의 필요는?

중국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던 해의 중국 신도는 80만 명이였다. 중국신도들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다. 현재 중국에 신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으나 가정교회 교인들까지 합하면 대략 8천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어떻게 신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수망중화(守望中華)에 실린 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중국 신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첫째, 이적과 기사를 보거나 기도로 병을 치료받고 믿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교육적인 수준이 비교적 낮고, 의료설비가 낙후된 지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자 쉽게 예수를 믿게 된다.

어떤 신도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환자와 가족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요구한다. 기

도를 통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환자와 그의 가족, 그 마을의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둘째, 전도여행이나 농촌지역 탐방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에 중국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다. 많은 신도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때 이들이 전도자가 되어 중국의 농촌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문화대혁명 이후에도 이런 종류의 복음 전파는 여러 지역



중국 교회의 신도들은 이미 환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사진은 중국 삼자교회 신도들).

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 신도들은 이미 환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교적 단조로운 농촌 생활을 하고 있던 농민들은 전도자들의 생명력 있는 간증으로 활력을 찾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여 전도자들은 기는 곳마다 사람들을 전도하여 매우 많은 사람들을 신도가 되게 했다.

셋째, 신도들의 간증과 복음전파로 믿게 된다.

계속적인 정치운동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켜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신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하게 대했다. 또한 신도들은 늘 기쁨이 충만 했으며, 적극적인 태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신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했고,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다. 신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예수를 영접하였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넷째, 공무나 유학으로 해외에 파견되거나 이민, 친척방문을 통해서 믿게 된다.

1979년부터 1997년 1월까지 18년 동안 27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로 유학을 갔다(1999년 4월 현재 약 50만 명 정도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다 - 편집자주).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해외 유학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와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 20여 년 동안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많은 회사의 간부들과 연수생들을 해외로 파견했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복음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정신적으로 공허하여 진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과 물질만으로는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믿게 된 사람도 적지 않다.

중국 교회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중국 교회의 발전상황을 보면, 각 방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필요가 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첫째, 신도들을 양육해야 한다.

중국 교회는 많은 신도가 있으나 목회자와 전도인이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도들이 농촌에 살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 성경공부를 할 때 환경적인 영향으로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이단 사상에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훈련반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신

도들을 양육시키는 일이다.

둘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한다.

중국 교회에 목회자와 신도들 간의 비율은 1 : 10,000 명 이상으로 목회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 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은 모두 17개로 신학교가 13개, 성경학교가 4개 있다. 비교적 편벽한 곳에 위치한 신학교는 교수 요원이 매우 부족하고, 성경에 관한 참고서적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러 방면에 걸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은 현재 중국 교회의 가장 큰 필요이다.

셋째, 문서선교 사역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양회(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에서는 많은 영적인 서적을 출판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교회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특별히 성경 공구서(工具書; 사전·사전·색인·연표·연감·백과전서 등의 서적 - 편집자 주)가 매우 부족하고, 중국 교회의 자원봉사자(義工), 전도인들이 사용할 서적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이단을 막아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교회에 이단이 성행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단들은 갈수록 미친듯이 날뛰면서 발전해 가고 있어, 교회는 이단을 대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신도들을 잘 양육시키고, 또한 교회 각 방면에 걸쳐 사역을 잘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신도들이 교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신도들이 배금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서 지역과 도시가 발달하였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개선되었고,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경제와 사회의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도 각 방면에서 유혹을 받게 되었다. 신도들도 물질만능주의,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는 등 개혁개방 정책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신도들은 물질문제에 의해 종종 영적으로 침체되어 교회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또 어떤 신도들은 봉사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까지 생겼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목회자나 전도인들이 돈 때문에 실족하는 일까지 있어 본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 모두 17개로 신학교가 13개, 성경학교가 4개 있다 (사진은 장시(江西)성 성경학교).

출처/ 守望中華 1999年 第1期

번역/ 석은혜 · 본지 편집장

중국 교회, 목회자와 신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서 청

신학의 갈증

몇년 전 선양(沈陽)에 있는 동북(東北)신학원에 갔을 때 재학 중인 한 여전도사님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주기도문의 끝 부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왜 ‘대개’ 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자매님, 무엇이 잘못 됐나요?”

“대개라는 말은 ‘대충’ 또는 ‘대략’ 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사용한 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요?...”

아마도 그의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 자매님과 또 몇몇 신학생과 함께 한참 동안이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 어느 신학원의 신학생들

그들에게서 성경에 대한 애착과 성경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교수진이 박약하고 도서관이 변변치 못한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젊은 심령들

(체계적이 못됨), 조직신학, 설교학, 영어, 교회봉사 등 극히 제한된 내용들이 전부였다. 신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신학원의 교육내용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해외에서 온 선교사나 신학서적들을 통해 그들의 갈증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중국 전역의 13개 신학원 또는 성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편적인 실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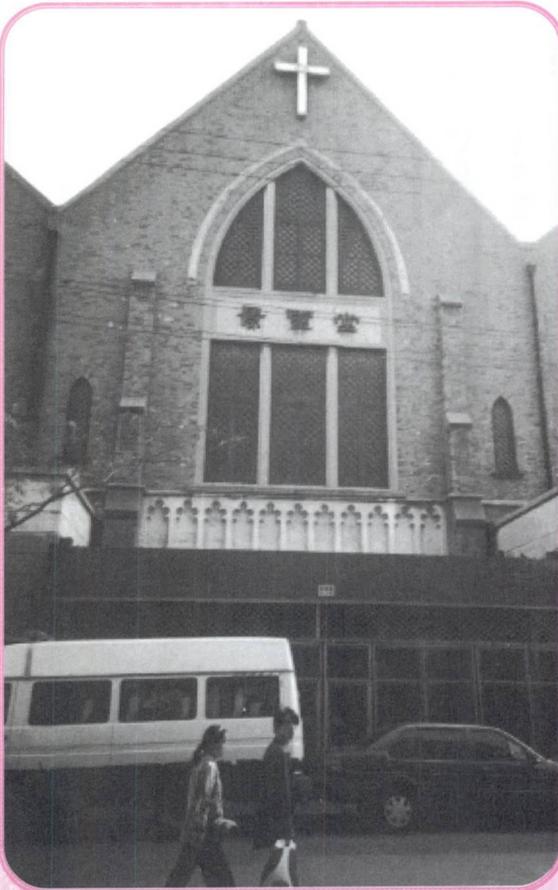
중국의 신학원들은 난징(南京)에 소재한 금릉협화(金陵協和)신학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학부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신학생들은 거의 100%가 고졸 또는 중졸생들이다. 중국 교육법의 규정상 대학졸업자의 학부 재입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졸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남경 금릉협화신학원의 얼마 안 되는 대학원과정은 신학원 학부생들의 점유물일 뿐이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신학원들은 교수진, 도서관,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법의 제한 때문에 양질의 신학생 선발이 거의 막혀있는 실정이다.

대형서점의 「기독교코너」

97년 겨울 어느 날, 북경에서 CCTV 저녁 7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왕푸징(王府井)거리에 위치한 북경 최대의 서점인 삼연서점(三聯書店)에 「종교서적 코너」가 개설되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코너」도 함께 개설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나는 그곳을 찾았다. 뉴스의 소개대로 과연 서점 일각의 종교 코너에서 「기독교 코너」를 찾을 수 있었다. 순간 나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종교서적의 출판 및 판매의 길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더없는 흥분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곳에 배치된 모든 기독교서적을 자세히 살펴나갔다. 사전을 포함한 총 64종의 저서들이 여러 권씩 꽂혀 있었다. 흥분되었던 나의 마음은 그 책자들을 하나씩 훑어보면



현재 중국 신학원의 신학생들은 교육 내용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해외에서 온 선교사나 신학 서적들을 통해 그들의 갈증을 풀고 있다.
(사진은 상하이의 경령당)

의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을 엿볼 수가 있었다. 지난해 베이징에 갔을 때 연경(燕京)신학원 학생들과 며칠간 교제를 나누었다. 그들과 함께 아모서서를 공부하고 세계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신학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연경신학원의 교과목은 성경신학

서 그만 가라앉아 버렸고 오히려 근심스러운 심정으로 바뀌어 버렸다. 왜냐하면 총 64종밖에 안 되는 저서들 중 대부분의 책들이 모두 인문주의 학자들이 쓴 저서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번역본들이 많았는데 모두가 다 독일 또는 스위스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저서들이었다. 서점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무겁다 못해 아팠다. 나는 이 책자들이 미치게 될 과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중국의 크리스천 수는 이미 8천만명을 넘어섰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상이다. 민족의 특성상 중국인들은 사본성이 강한 지적인 민족이다. 게다가 현재 중국 교회는 이들의 지적 욕망을 거의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금방 주님을 영접하고 아직도 체계적인 교리를 갖지 못한 그들에게, 만약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저서들만 주어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벽촌의 메아리

중국의 시골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항상 접하게 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신자들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일편단심 신앙만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늘 목자 없는 양떼들을 대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중국의 시골 교회들은 거의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도시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거나, 또는 도시 교회의 친척을 통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몇 명의 신자들이 생겨나면 이들은 곧 처음 믿은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이룬다. 그리고 중심인물이 된 최초의 신자는 곧 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성경 지식은 도시 교회에서 받은 몇 번의 학습과정과 스스로 성경을 통해 얻은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골 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절대적으로 신

학훈련이 부족하며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마치 한번도 운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버스운전사가 된 격이다. 이들에게 방향감각과 분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92년 재림운동사조에 동북(東北)지역의 거의 40%에 달하는 시골 가정교회들이 연루되었던 사실은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

시골 교회들을 순방할 적마다 나는 그들의 끝없는 설교요청을 받곤 하였다. 그들에게는 속이 후련하게 성경말씀을 풀어줄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30~40분간의 설교는 너무나 짧은 것이다. 이처럼 시골교회는 남부노소를 불문하고 2~3시간 이상의 설교에도 까딱 않고 들을 수 있는 갈급한 귀와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시골 교회의 또 한 가지 심각한 난제는 세례와 성찬을 받기 어려운 문제이다. 모두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한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시골 교회에서 신앙의 성숙이란 결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나는 시골 교회 지도자들이 새벽 2~3시가 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황홀한 시간이고, 하루의 가장 풍성한 은혜의 시간인 것이다. 그들은 공간을 초월하여 머나먼 곳에서 그들의 벽촌까지 메아리쳐온 이 생명의 젓 줄기에서 꼴을 얻고 또 그 꼴을 자신의 양떼들에게 간신히 나눠주고 있었다.

시대의 부름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대륙에는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특별히 19세기 말 중국 내지에서 왕성한 선교활동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같은 희생적인 선교사들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식민지정책은 이러한 희생적인 선교사들의 피어린 노력을 퇴색케 하고 말았다. 그 결과 중국 교회는 공산주의라

는 체제하에서 처참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20세기 말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 교회는 다시금 소생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중국 교회는 짧은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중국 교회의 문제는 더이상 크리스천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란된 크리스천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이다. 이제 중국 교회는 영국 교회를 각성시키고

부흥시킨 요한 웨슬레 같은, 한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박윤선 목사 같은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시급히 양육해야 하는 것이 중국 교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며 또한 아픔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의 교파들은 이미 중국 교회의 지도층에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사람을 심는 일을 착수하였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독교협의회는 세계기독교협의회(WCC)에 가입하였고, 이러한 통로를 통하여 WCC는 그들의 소원을 쉽게 떠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난징의 금릉협화신학원은 이미 WCC의 사정권에 깊숙이 빠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이곳에서 일부의 졸업생들이 WCC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교에 유학을 가고 있으며 벌써 일부 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와 교계의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제복음주의 진영은 훨씬 뒤떨어져 있다. 중국 교회를 떠메고 나갈 목회와 신학의 석학들을 키우기 위해 국제복음주의 진영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제 중국 교회는 영국 교회를 각성시키고 부흥시킨 요한 웨슬레 같은, 한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박윤선 목사 같은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경쟁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중국에 파송하였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들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추구한 것은 질보다 양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였던 것이다. 결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중국 본토에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중국 교회의 핵심적인 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중국선교는 한국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국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한국 교회에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한국 교회가 보다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중국선교에 임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믿는다.

첩경

과연 중국의 복음화를 위한 사반공배(事半功倍; 들인 힘은 적고 공은 많음 - 편집자 주)의 첩경은 없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첩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첩경은

곧 중국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로이드 존스 같은, 그리고 박윤선 박사 같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가령 중국인들 가운데서 스피전 목사와 같은 분이 탄생한다면 중국 교회와 중국사회에 미칠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소망만은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유명 신학교들에서 비전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많은 꿈나무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 경건과 신학이 발달한 나라들에 유학을 가야한다. 그러한 나라들에서 자신들의 조국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없이 죽어 가는 자신의 동포들의 비참한 현실을 절감하며 최선을 다해 경건과 학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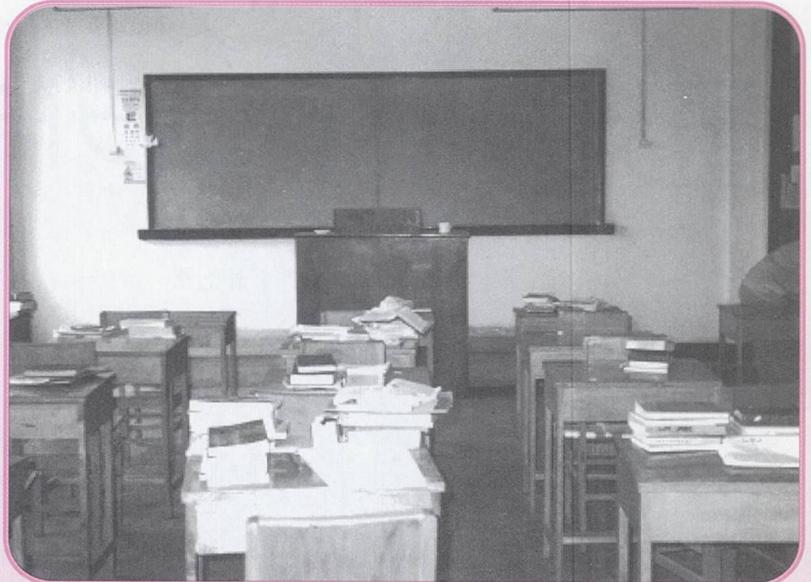
을 키워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교회를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일꾼양성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힘과 재정적인 능력이 중국 교회와는 달리 한국 교회에는 얼마든지 구비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선교사들은 중국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실질적인 일꾼개발과 양육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현재 중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진리를 찾고 있다.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로 훈련시키고 중국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크나큰 비

전을 갖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과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신학원들이 양질의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원인은 훌륭한 목회자와 일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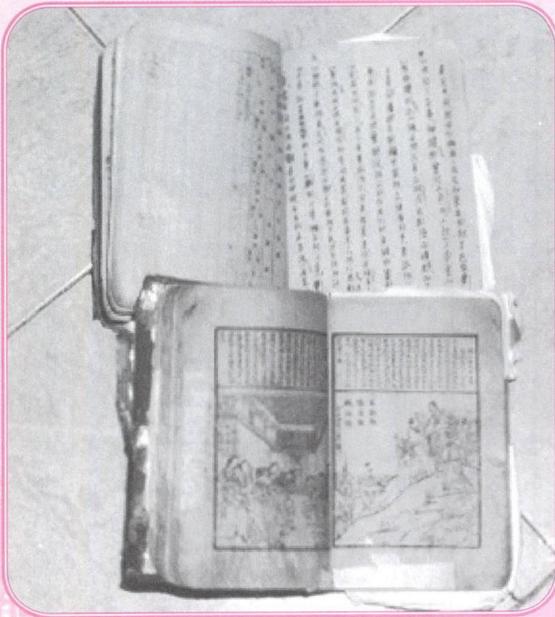
중국의 신학원들이 양질의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훌륭한 목회자와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와 교수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사진은 중국 어느 신학원의 교실).

을 키워낼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와 교수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정성어린 노력으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중국 교회를 위해 10개의 대형 교회당을 지어주는 것 보다 중국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 10명을 키워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일이다. 비전과 경건과 지식적인 자질로 훈련되고 준비된 훌륭한 중국인 지도자들을 양육하여 중국 교회에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어주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중국의 신학교들을 이끌어가며 양질의 목회자와 일꾼들을 양육하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중국을 주께로 인도하는 첩경인 것이다.

서창/중국현지인

중국 교회에 문서사역자를 키우자

유진광



들어가면서

선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정의가 있다. 그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내리는 정의는 약간의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 지리적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선교란 상당히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즉 선교 사역에는 복음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에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사실 선교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현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람을 접촉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게 된다. 이것이 진행되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성경 번역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성경공부가 이루어진다. 또한 신앙이 더 자라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간증이나 신앙 서적이 필요하고, 신학 서적이 필요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서적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전반적인 것이 함께 파급될 때 기독교가 외국의 종교란 이질감을 갖지 않게 해주며 바른 선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선

교는 오랜 선교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그 나라에 기독교가 지속되고 확산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선교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쇠퇴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되어 이후에는 기독교 전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종종 보게 된다. 물론 이런 일들은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선교지 민족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부분까지 접근하여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그들의 깊은 부분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문서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 할 수 있는 곳, 다른 여러 문화와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곳,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장이 마련 될 때 기독교는 외국의 종교로 인식되지 않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 민족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70, 80년대에 교회의 성장과 아울러 많은 기독교 출판사가 생겼고 이들을 통해 양질의 신앙 서적과 신학 서적, 신앙 잡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70년대만 해도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외국의 원서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책들이 모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책들을 접하여 우리 나라 기독교인의 전체적인 신앙이 더 깊고 견고해 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신앙 잡지들은 나름대로의 방향에 맞는 글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문서들은 우리 나라에 교회가 양적으로 확산되고 부흥할 수 있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문서는 성경을 번역하고 씨를 뿌리는 데에 서만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고 넓게 퍼져가며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데

에는 반드시 문서가 따라야만 그 효과는 더 커지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현재 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반면에 신앙을 굳게 다져야 하는 중국 상황에서는 문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중국에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료와 양질의 다양한 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직 신앙의 색채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읽을거리가 많지 않은 중국의 현실에서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책들이 어떤 노선에서 나온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노선에서 나온 책들이 많이 나와서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데에는 문서의 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문서사역의 현실

그렇다면 이처럼 선교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사역이 그동안 중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문서사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복음의 밀수꾼”과 같이 해외에 있는 책들을 내륙에 전해주는 일이다. 중국 내에서 마음대로 책을 찍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의 일은 그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한계가 있다. 영어권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책이나 대만 등지에서 나온 책들은 대륙의 형제들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는 같은 언어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대륙은 간결체로써 간단 명료한 형태의 문장을 기술하는 반면에, 대만 쪽에서 나온 책들은 만연체와 화려체로 글을 쓰거나 번역되어 있다. 대륙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태의 책이 이질감을 느끼게 하며, 같은 문자로는 되어있지만 이미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생긴 상태에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

도 있고, 양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문서 사역에 있어서도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문서 사역에서도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문서를 만들고 현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서 사역에 필요한 사역자

그러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륙에서 어떤 종류의 책이 필요한가?

먼저 내용 면에서 살펴본다면 한 마디로 말해 모든 분야의 책이 다 필요하다. 즉 우리 나라의 기독교 서점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책이 골고루 다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저자들의 분포로 보아도 그렇다. 그리고 번역을 하더라도 외국의 글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마치 외국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읽는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나 번역을 하더라도 많은 임상을 통하여 중국의 문화에 맞게 바꿀 것은 바꾸어서 내어놓는다면 그 글은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현지인의 시각에서 쓰여진 많은 글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는 외국의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문화와 시각과 삶의 현장에서 나온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훨씬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국적인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책, 즉 현지인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다양한 글들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많은 지도자와 신앙인, 평범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키워져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글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을 알리는 책도 많이 필요하다. 중국의 과거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문화혁명 이후 급변하는 중국 현대인의 사고와 생각, 가치관을 연구하는 책들은 많지 않다. 이것

은 중국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와 외국인이 보는 시각에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국 내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인류학적인 조사가 조금씩 되어 있는 종족도 있지만, 이러한 것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종족도 있다. 또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조사하여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들의 종교 성향은 어떤지, 언어는 어떤지, 문자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매우 다양한 기초 조사조차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종족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선교전략과 접근 방식을 연구 한 보고와 자료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책의 편집과 같은 외적인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 출판되는 책을 살펴보면 이전과 같이 인쇄, 편집, 디자인, 제본, 재질 등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경향에서 점점 고급화되고 세련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에 반해 기독교 관련 서적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이다. 물론 여기에는 비용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이에 맞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사역의 방향과 제안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서사역의 방향을 살펴보며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문서를 전담하는 팀이 형성되어야 한다.

문서는 어느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집필자, 번역자, 신학적인 판단을 내려줄 학자,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임상 실험 팀, 책을 디자인하는 사람, 인쇄를 담당할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사람이 팀을 이루어야 하며, 선교사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한 부분을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문서만을 전담할 전문적인 일꾼을 키워야 한다.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 문서를 전담하는 일꾼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물론 이 일 자체가 매우 민감한 일이라서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가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게다가 우리도 그렇지만 출판 관련 업종은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쉽게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역자가 문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이 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 이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문서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정보공유(Network 형성)가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이 필요에 의해 책을 번역해 나가다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는 똑 같은 책의 번역이 끝난 상태에 있기도 하여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일은 정보가 제대로 공유 할 수 없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경우라고 하겠다. 그래서 문서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속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지로 이 일을 시도하면서 공안의 감시가 더 심했던 경험도 있고 매우 긴장된 순간을 겪어보기도 하였지만 이 일은 더이상 중복되지 않고, 서로가 힘을 합하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필요하다.

중국 내에는 적어도 1억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 1권의 책만 보급한다면 하더라도 1억 권의 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신앙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책을 읽게 하려면 수십, 수백 억



현재 중국 교회에 문서사역을 감당할 집필자, 번역자, 신학적인 판단을 내려줄 학자, 편집 디자인 하는 사람 등등의 사역자가 필요하다 (사진은 중국 어느 신학교의 도서관).

권의 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책을 종이로 찍는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분량의 종지와 자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책을 보급하려면 또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라야 할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아직 중국은 문서부분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 마음놓고 책을 인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배포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급이 필요하다. 물론 아직도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의 검열을 강화한다는 보도에 접하면서 어디까지가 가능할지는 계속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의 도구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 선교에 유익한 도구로 쓰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Web Site들이 생기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 하겠다.

중국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석은혜

들어가는 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다. '기독교 봄' 이니 '기독교 열풍' 이니 하는 말이 유행한 것을 보면 그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교회의 신도 수는 8천만 명(삼자교회 신도는 1천 2백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공산화 당시 신도수가 8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100배의 발전을 한 것이다. 중국 기독교인의 증가는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고, 잘 인도해줄 지도자가 부족하여 신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교회의 당면 문제이다.

신도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교회 지도자를 배출할 신학교는 제한되어 있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 부족 현상은 교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높아지자 선교사들도 주로 '지도자 양성 사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양성하는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삼자교회나 가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앞으로 사역자가 될 사람들로 '말씀 사역자(목회자)' 들이다.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신도들 역시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목회자' 외에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중국 교회의 양적 부흥에 발맞추어 성도들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중국 교회에 '목회자' 외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목회자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 그것은 목회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중국 교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공

과책, 시청각 자료 등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이다. 중국 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전도를 하거나 세례를 줄 수 없고, 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삼자교회나 가정교회에 점점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최근 들어 중국 교회에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일학교 교사와 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육자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기독교인이 없어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3억여 명의 어린이가 있다. 교회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체계적인 주일학교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중국의 신학교 교육이나 평신도 훈련 과정에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나 지도자가 배출될 수 없다.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세워져야 한다.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역을 할 때 선교사는 삼자교회와 협력하여 삼자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만약 가정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특별히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일학생들을 가르칠 자료와 교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해외교회로부터 공급받

거나 중국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현재 삼자회 측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신앙 서적이나 교육 자료를 만들기는 하지만 어린이 교육 교재는 만들지 않고 있다.

중국 교회의 주일학교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육방법, 어린이 말씀사역 방법, 어린이 찬양 인도와 율동법, 시청각 자료 사용법 등을 가르쳐 주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일학교 교사 양성 사역은 중국 교회에 축복이 될 것이다.

현재 조선족 교회는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양성되어 가고 있고, 주일학교 교재나 시청각 자료가 보급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역에 중요성을 인식한 비거주 선교사들과 조선족들을 통해서 한족 교회에도 주일학교 교사가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해서 주일학교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자

개혁개방 이후 근 20여 년에 걸친 중국의 경제적 부흥은 중국 청년, 대학생들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 대학생들은 물질과 향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고 싶어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며, 더 나아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한다. 현재 베이징(北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소비풍조 변화를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가입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공산당에 가입하면 좋은 직장을 찾기에 유리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비교적 쉽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부분의 청년, 대학생들의 소망은 영어를 잘해 서방으로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 공부보다는 영어 토플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근래 들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많은 청년들, 특히 지식인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 어떤 대도시의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 외에 청년집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래로 젊은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종교, 특히 기독교를 가까이 하기란 쉽지 않았고, 교인들의 노령화 현상은 중국 교회의 정상적인 성장에 큰 우려를 안겨 주었다.

그렇지만 개혁개방 이후 청년들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 공허감을 해결하려는 젊은 청년 및 대학생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교회는 전체 교인의 30%~40%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교회마다 청년,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중국 교회의 청년 및 젊은 지식인들을 향한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난제가 있다. 첫째는 청년, 대학생 사역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그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킬 교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청

년들을 전문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 청년, 대학생들은 철저한 무신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지식 이론과 기독교의 교리가 전혀 달라 그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교회의 청년,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는 진화론의 허구를 밝힐 좋은 교재, 기독교인의 결혼관, 윤리도덕관, 건전한 직업관 및 물질 사용법 등에 대한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교회는 청년·대학생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도해 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음악 사역자

중국 교회에 필요한 일꾼 중에 하나가 교회음악 사역자이다. 중국 삼자교회에 주일날 참석해 보면, 예배 30분 전에 그날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을 배운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보면 중창, 합창, 4부 형태의 찬양보다는 단순한 멜로디로 찬양한다. 그리고 찬양 반주자의 반주법 미숙으로 피아노를 가끔씩 틀리게 치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이것은 곧 중국의 교회음악 현주소로 아직까지 찬양대의 찬양이나 피아노 반주법, 신도들이 예배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것 등이 미숙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삼자교회는 중국기독교협회에서 1983년에 출판한 찬송가 “잔메스(讚美詩)”를 사용하고 있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십여 년에 걸쳐 교회음악 출판 사역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제, 자원, 설비, 교사 및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훈련이 부족하여 교회음악 사역자를 많이 양성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중국 교회가 교회음악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름대로 노력해 왔다. 1994년 봄 중국 샤먼(廈門) 구랑위(鼓浪嶼)에서 ‘샤먼 기독교 성악 훈련반’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은 성악기술 훈련으로 2개월 집중과정이다. 교사진은 사면의 유명한 음악교사들로 구성되었고, 상하이(上海), 난징(南京)에서도 성악을 전공한 선배들이 와서 지원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한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 기뻐할 것은 훈련생들이 각 성의 교회에서 왔다는 것과 이 훈련을 마친 후 각 지방에서 이 성악훈련 과정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필요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1995년에도 계속된 성악반은 훈련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다. 여기에서 양육하는 지도자는 교회의 피아노 반주, 지휘, 찬양대에 봉사하는데 필요한 사역자들이다(守望 中華 第132期).

중국 신학원에서 교회음악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동북 신학원이 1996년 처음으로 2년제 성악과정을 개강하였다. 1996년 10월 우한(武漢)의 중남신학원(中南神學院)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신학원에도 교회 음악과가 신설되어 학생들이 피아노를 치고, 발성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신학원에서도 교회음악과가 만들어졌는데, 중국 신학원에서의 교회음악 훈련과 성악활동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 교회에 피아노·키보드·기타 등의 반주자와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 찬양대원 등 교회음악 지도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양성하는 사역은 시급한 일이다. 중국 교회는 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먼저 교재, 악보, 피아노 등의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고, 교회음악을 가르칠 교사진이 필요하다.

해외 교회는 중국 교회의 교회음악 사역자 양성을 위해 기도와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음악 전문가들의 교류가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음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 음악 전문가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회도 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찬양신학원'을 세워 교회음악 지도자를 양성하는



현재 중국 교회에 피아노 반주, 지휘, 찬양대, 찬양 인도자 등 교회음악 사역자 양육이 시급하다(사진은 우한의 중남신학원 교회 음악과 학생들).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교회음악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바로 중국 신도들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담·치유 사역자 및 가정사역자

중국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 중 하나는 상담·내적 치유 사역자와 가정사역자이다. 한국 교회 역시 상담, 내적 치유 사역자와 가정사역자가 세워진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비록 10년 안팎의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진 사역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치유를 받았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졌다.

중국 교회에도 이런 사역자가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인들도 한국인 못지 않게 마음에 한(恨)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흐르는 영적 상태는 물질의 영인 '맘몬의 신'과 '불신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돈에 노예가 되어 있고, 서로 믿지 못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또한 문화대혁명 기간에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

들이 많이 있다. 부모의 쓴 뿌리는 자녀에게 전해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문제, 형제간의 관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또한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실업문제로 인한 상처, 이혼의 상처, 농촌에서 올라온 유민들이 도시에서 받은 질서와 거절감의 상처, 가난으로 인한 상처, 마약 중독자 및 매춘업 종사자,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된 자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소외감의 상처 등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의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인간의 심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와있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즐겨 찾는 것만 보아도 이들이 이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내적 치유 사역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 그동안 묶여있던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고,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실패, 불안, 실망, 상처의 멍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내적 치유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사역도 관계 문제라는 점에서 내적 치유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에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혼은 교회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근 20여 년 동안 중국에 천만 쌍이 이혼하였고, 1997년 각 법원에서 심의 처리된 민사 소송 중에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 1위를 차지했다. 이혼의 주원인은 상대방의 혼외 정사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내적 치유 사역과 가정사역은 중국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사역 중의 하나이다. 내적 치유 사역과 가정사역은 중국 교회 신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나와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접점으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다. 중국인을 대상으

로 내적 치유 사역과 가정사역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가정이 회복된 자들을 다시 양육하여 중국 교회의 내적 치유 사역자와 가정사역자로 세워야 한다.

노인, 거리아동들을 위한 사역자

중국 교회에서 앞으로 양성해야 할 사역자 중 하나는 노인들을 위한 사역자와 거리에서 유랑하는 거리아동을 위한 사역자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노인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 60세 이상 되는 노인은 약 1억 5천여 명이다. 이들 중 약 70%는 70세 이하로 신체가 건강하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들과 살고 있지만,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외롭고 병들어 있으며 가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이들을 국가에서 돌보아 주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듯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고자 돕는 사역을 해야 한다.

중국의 어떤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연로한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해 각 마을에 있는 양로원에서 이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연로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많은 성경 지식이 없고, 훌륭한 전도자가 아닐 수 있으나 가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한 자들일 것이다.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할 사역자들이 중국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

또한 거리에서 유랑하는 아동들을 위한 사역자가 세워져야 한다. 중국의 큰 도시에 가보면 기차역 주

변에 많은 거리 아동들을 볼 수 있다. 그들 중 어떤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이고, 어떤 아이는 기출한 아이들로 돌봐 줄 사람이 없다. 이 아이들은 기차역 주변에서 살고 있으며, 외국인들을 보면 때를 지어 몰려들어 돈을 요구하면서 끈질기게 따라다닌다. 그들 대부분은 매우 지저분하고 병들어 있으며 거지가 되어 사람들이 주는 것들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거리아동 사역자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 이들을 위해 사역할 사역자가 중국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

맺음 말

중국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중국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고, 세움받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해야 한다. 위에서 현재 중국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주일학교 교사,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자, 상담·내적 치유 사역자 및 가정사역자, 노인과 거리 아동들을 위한 사역자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자, 도시 빈민들을 위한 사역자 등등 다양한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중국에 교회, 학교, 병원 등 프로젝트성 선교에 치중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역은 주춤한 상태이다. 이제라도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키우는 사역으로 전향해야 한다.



중국 교회에 상담, 내적 치유 사역자와 가정사역자, 노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세워져야 한다.

8천여만 명에 이르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외에도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중국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된 선교사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중국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훈련되고 준비된 선교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묻는다면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역자간의 협력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각은 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분담하여 지도자를 키우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중국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가 속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각기 은사대로 훈련되고, 준비된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교회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이들을 해외나 한국으로 초청하여 훈련시킬 수도 있다. 중국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속히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국 교회의 필요는?

중국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중국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좌담을 통해 중국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필요를 중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중국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다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만나 이것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좌담은 현재 중국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와 중국선교 헌신자, 중국선교에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중국 교회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편집자 주]

사 회 : 석은혜(선교사/본지 편집장)

참석자 : 서 청(중국 유학생)

정인택(중국 유학생)

오명선(중국 유학생)

최우섭(중국 유학생)

일 시 : 1999. 2. 24(수) 오전 10:00

장 소 : 중국어문선교회 회의실

석: 이번 좌담에서 중국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며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 필요에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중국 교회에서 직접 사역을 하셨고, 한국 선교사들과도 교제 경험이 있었으므로 한국의 중국 선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말씀해 주시죠?

서: 먼저 중국을 사랑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충성되게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선교사들에 대해 느낀 것을 말하다 보면 그들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되지만, 모두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한국선교사들은 일대일 제자훈련이나 중국 교회의 사역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훈련반을 먼저 시작합니다. 물론 중국 교회에 지도자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실시되는 이 사역은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중국 전역에서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

실시되는 제자훈련반이나 지도자양성반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교과과정 또한 훈련 받는 현지 중국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조직신학이나 세계교회사 같은 전문적인 과정이어서 거의 중졸수준의 학력을 소유한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많습니다.

지도자양성반을 지도하려는 선교사들에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아직은 어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할 때 한국의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신학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인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정: 먼저 한국 선교사들과 서양 선교사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선교사들은 개척정신이 강하고 현지 적응이 빠릅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 선교사는 너무 서두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교회의 필요성을 잘 모른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대부분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한 가지는 신학공부 위주로 진행되며, 다른 한 가지는 제자훈련입니다. 저는 한국 선교사에게 거의 5, 6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공부한 내용은 주제별 성경공부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웬지 성경 밖에서 공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중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워 다른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 중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다양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두 부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선교사들이

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현지인들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사역을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석: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의견이 현재 선교사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제자훈련반과 지도자양성반에 대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에게 바라는 점과 선교사들이 실시하는 제자훈련반이나 지도자양성반의 과정을 통해 배우고 싶어하는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서: 조나단 차오(趙天恩)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가정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양육방법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시더군요. 그분은 중국에서의 가정교회가 독자적으로 이루어 온 신학교육 방법이 서방의 전통적인 신학방법에 큰 도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가정교회 양육방법이 중국의 실정에는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전통적인 서구신학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 가정교회들은 여전히 은사중심으로 되어있고,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사역할 때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를 양육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체험 중심적이기에 극단적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모든 신앙체험과 신앙의 열정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몇 년 간 훈련을 받았는데, 그 때 아쉬웠던 것은 모든 선교사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을 위해 다른 선교사에게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 역시 이미 배운 것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미 공부했던 과정을 똑같이 배우면서, 저는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경공부를 2년 동안 했는데도 성경에 대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만을 배웠기에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그들이 혼자서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사실 어느 정도 배우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오히려 더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훈련 교육의 과정은 지속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면서 계획성 있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선교사들이 현지 사역자들을 양육할 때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현지 사역자들을 양육할 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은 현지인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나와 공부하면 앞으로 신학교 졸업장을 주겠다”, “해외 유학을 보내주겠다”, “한국으로 보내 주겠다” 등등.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던 지도자 훈련과정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더 큰 사역이 기다린다고 훌쩍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제자훈련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면 그 사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 현지 지도자 양성사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적인 요소로,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인재를 발탁하여 지도자로 훈련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성급하게 학생들을 모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주관적으로만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별한 학생들이 선교사 자신만을 추종하도록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 사람을 선별할 때, 먼저 현지 교회의 추천을 받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지 교회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고, 현지인 목사가 충성스럽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택하여 그를 지도자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지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감이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현지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 중국선교에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은 신변상의 보안 문제로 늘 긴장하고 있어 자신이 선교사인 것을 들어내기 꺼려합니다. 게다가 사전에 인면도 없었던 중국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서 내가 지도자를 양육하고 싶으니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보안상 개인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지 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오: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국 교회는 아직도 과거 서양 선교사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고 있고, 더이상 해외 선교사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이라는 삼자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중국 교회는 중국인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 교회들이 중국 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정부로부터 쌍방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사가 삼자교회와 협력하여 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삼자교회가 한국 선교사에게 자기 교회의 사람을 추천하여 위탁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교회일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현지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기본 원리를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는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기독교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현지 교회의 통일성을 깨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 :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의 현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력이 되지 않는 것은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를 무시하고 혼자서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선교사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돕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현지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장(대표)을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국 교회를 도우려는 자세보다는 지배하려는 태도가 더 강한 것이죠.

석 :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하는 실수에 대해 그들을 대신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의 편안함을 버리고 중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갔으나 중국을 잘 모른 채 열정이 앞섰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지도자 양성 외에 다른 영역에 필요한 사역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 : 중국에 찬양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찬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서 찬양 사역을 감당할 사람도 있어야 하지

만, 더 중요한 것은 찬양 사역자를 양육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양육 할 수 있는데까지 지도해주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신학교수도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중국 교회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수 쪽에 관심이 많은데, 한 나라가 선교적으로 훌륭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라가 신학적으로 체계를 잡아 선교사들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이 다른 나라 교회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영원히 아이이듯, 중국 신학교도 속히 일꾼을 키워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들이 주로 실시하고 있는 개 교회 선교를 자제하고, 각 교단과 중국선교에 정통한 선교단체들을 통해 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개 교회가 스스로 나서서 선교하는 것보다 중국선교에 비전을 품은 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중국선교에 정통한 선교단체들과 협력함으로써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교사를 파송 하는 것보다 현지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현지인을 제3국에서 공부 시킨 후 현지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제3국에서 편하게 공부하다가 중국 현지에 들어가면 교만해지기 쉽고 현지 교회와 잘 융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현지에서 양육 받는 것보다는 안전한 제3국에서 충분히 양육 받는 것이 더욱더 많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의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회자와 신학 교수 양성사역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 또한 중국에는 중국의 기독교를 재정립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중국 교회는 재점검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신학에 대한 정리는 사도 바울이 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제자양육사역과 신학 정립에 온 힘을 다하여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를 양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 우리가 큰 비전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교회는 대부분 평신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그들을 지도자로 양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교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 교회에 이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은 현재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평신도이지만 지도자요, 그들 아래 많은 양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수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 도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서선교 쪽에 비전이 있는 문서사역자들도 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문서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쉽고, 간단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문서들을 중국 교회에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문서사역자 양육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서: 중국의 ○○교회는 일꾼이 많은 것으로 소문이나 있는데, 그 교회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사역에 은사가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이는 한국에 유학을 오려고 추진하고 있고, 어떤 이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목사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직업이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쉽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나 의학분야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을 일꾼으로 키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족한 저희들이 어떻게 선교사들의 고초를 다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선교사님들이 애써 심은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이런 주제토론을 위하여 만든 자리이기에 다소 비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께 보내드려야 할 것은, 그들에 대한 감사와 박수갈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석: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좌담에서 나온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중국선교의 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중국을 가슴에 안고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들과 중국선교 헌신자들이 중국 교회의 필요를 바로 알고, 그 필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국을 위해 여생을 바친

왈레스

미국 테네시(Tennessee) 주(州) 녹스빌(Knoxville)에 「왈레스 기념교회」가 있으며, 아칸서 주 리틀록 시의 의과대학에는 「왈레스 기념예배당」이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조그마한 도시 인디오에도 「왈레스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중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오직 중국을 사랑하여 17년 동안 의료선교사로 사역한 윌리엄 L. 왈레스(William L. Wallace)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들이다. 비록 그가 자기의 업적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왈레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의 영웅으로 추앙하며, 많은 중국인들은 그를 '중국의 왈레스'라며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차고 안에서 내린 결심

왈레스는 의사인 아버지 윌리엄 L. 왈레스 씨니어와, 어머니 엘리사벳 앤 조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한 명의 누나가 있었다. 왈레스가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아버지의 돌봄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 왈레스는 매우 총명한 소년이었으며 특히 기계를 다루는 데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자동차 기술자나 기계 기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1925년 7월 5일 햇빛이 눈부신 오후, 차고 안에서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작업 공구들로 어지러운 차고 안에서 17세의 왈레스가 조그마한 신약전서를 손에 쥐고 골몰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생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작업 도중 떠오른 이 질문에 그는 모든 작업을 멈추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신약전서를 펼쳐 들었다. 그 날 내린 왈레스의 결심은 10년 후 지구를 반이나 돌아 낮

선 중국 땅을 향하게 하였으며, 그 땅에서 순교자로서 생애를 마치게 하였다. 그 때 왈레스는 자기가 의료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갈 것을 헌신하였다.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그 꿈을 위해 전진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과 의사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중국 시장(西江) 200마일 상류에 광시성(廣西省) 우저우(梧州)라는 오래된 도시에, 5층 석조 건물로 된 「스타우트 기념 병원(The Stout Memorial Hospital)」이 있다. 그 병원의 책임자인 베도우(Dr. Robert E. Beddoe) 의사는 의료 선교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남침례회 총회 외국선교부」에 호소하고 있었다. 밀려드는 환자에 비해 의사가 너무나 적었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과 의사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 병원의 오랜 기도제목이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당시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녹스빌 제네럴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던 왈레스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남침례회 총회 외국선교부」에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몇 주간에 걸친 심사 끝에 선교부에서는 왈레스를 우저우 스타우트 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왈레스는 당시 동료 의사들로부터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었고, 당시 유명한 의사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피터스 의사로부터 자기 밑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터스 의사의 제안은 유혹이었다. 그가 있는 병원은 가장 훌륭한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었으며, 부귀와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왈레스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이후 꾸준히 그것을 위해 전진하여 왔으며 어떠한 다른 것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는 미국에도 할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중국에 가려고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중

국으로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중국행 짐을 꾸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 중국!

1935년 9월, 왈레스는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 홍콩에 도착했다. 왈레스는 1년간의 광둥어(廣東語) 학습을 마치고, 다음 해에 스타우트 병원이 있는 우저우로 향했다. 왈레스는 오전에는 계속해서 광둥어를 공부하였고,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병원을 돌보았다. 그는 아침 식사 전에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들의 상태를 살핀 후 수술을 담당하기도 했다. 밤에도 그는 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고통과 병을 조금이라도 퇴치하고자 애를 썼다. 왈레스는 우저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종기 제거 수술, 안과 수술, 절단 수술, 산과 수술 등의 많은 수술들을 했다. 그의 수술 스케줄은 끝이 없었다. 병원의 취급 환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다. 그해 가을 스타우트 병원의 원장인 베도우 의사는 매드리 박사에게 “왈레스 의사는 선교부가 이 자리를 위해 뽑아 보내 준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과 빈틈없는 손, 풍부한 외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왈레스가 병원에 와서 일을 시작한 이래 몇 달 동안에 환자의 수가 50%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런 의료선교를 통해 환자나 의사, 그 가족 전체가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왈레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기가 있다는 기쁨이 넘쳤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안식

1937년 7월, 왈레스가 중국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일본군은 베이징(北京)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인 중일전쟁은 시작되었다. 일본 군대는 여러 도시를 파괴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일본군은 우저우에도 폭탄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스타우트 병원의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조급해 하여 짐을 꾸리거나 피난을 가는 사람이 없었다. 도리어 지금이야말로 중국에 병원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말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전쟁이 더해가자 환자들은 끝이 없었다. 왈레스 자신은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의 병을 고치지만, 일본군의 폭탄 하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처참하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와야 하는 상황에서 왈레스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도대체 나 한 사람의 수고가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휴식이 필요했다. 그는 3년 동안 일 주일 밖에 휴가를 갖지 못하고 바쁘게 병원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칭(重慶)과 청두(成都)를 향해 여행을 떠났다. 충칭은 그나마 전쟁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동북 지역에서 쏟아져 오는 피난민들로 난리법석이었다. 왈레스는 충칭에서 의료 선교사 두 명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 초면이었지만, 의료 선교사라는 공통점과 전쟁 중이라는 외부상황 때문에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 "당신은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상을

남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왈레스가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했다. "당신은 제가 첫 임기 동안에 가졌던 문제와 씨름하고 있군요. 선교사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시간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계시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저는 있는 능력을 다해서 제 손이 닿는

대로 일만 할 뿐이지요.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처럼 내가 일한 결과적인 통계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왈레스는 그의 말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광야를 병원으로!

1940년 왈레스는 5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 왈레스가 자신의 고향, 녹스빌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귀국을 축하해 주었다. 그는 펜실바니아 대학 외과 의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하버드 대학에서 엑스선 과정을 연구하였다. 깨끗하고도 세밀한 과학적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연구에 굶주린 사람처럼 의학 공부에 열중하였으며 의학 잡지도 다치는 대로 읽었다. 그는 안식년의 대부분을 의학 공부하는 데 투자하였다.

왈레스가 다시 중국에 돌아갈 때는 역시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일본군 비행기 때문에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되었고, 전투기가 바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왈레스가 우저우에 안전하게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곧 힘에 겨운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침 6

시 30분부터 밤 늦게까지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이리저리를 뛰어다녀야 했으며, 어느 때

는 아침식사를 수술실이나 병실 혹은 계단에서 빵과 우유 한 잔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밤중에도 몇 차례씩 병실에 가서 살펴야만 했다. 일본군의 공격은 더욱 거세어져서 홍콩, 마닐라, 싱가포르



장승원 그림

포르 등을 점령했다. 그 중에서도 홍콩의 점령은 병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식량과 의약품을 구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의사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1943년 외국 선교부에서는 베도우 의사로 하여금 중국 전지역 대표로 책임을 맡기고 또 다른 곳의 병원을 맡도록 했기 때문에, 스타우트병원은 왈레스가 맡게 되었다. 1944년 9월에 전쟁은 더 치열해졌다. 피난민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으며, 우저우 시 당국도 철수를 하였다. 스타우트병원도 짐을 꾸려 피난민들을 따라 피난을 떠나야만 했다. 55명의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거대한 병원 장비를 들고 목숨을 건 대이동을 했다. 그들은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았다. 단지 주님의 보호하심만을 기대하며 그 피난길을 나선 것이다. 빌 왈레스 일행은 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행진을 멈추고 진료를 베풀었다. 그야말로 “광야 병원”이었다. 오랜 피난 생활과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곳곳마다 환자들이 들끓었다. 병원 직원들 또한 지쳐 있었으며, 직원들의 절반이 학질에 걸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왈레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환자와 병원 직원들을 돌보았다.

한 영혼을 향한 헌신

왈레스 팀이 우저우를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일본군이 그들이 머무는 가까운 곳까지 진입해 오는 상황에서 왈레스 일행은 그 곳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한 중국인 의사가 위궤양으로 각혈을 하기 시작했다. 포성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고, 그날 밤 그들이 머무는 곳에 일본 전투기는 세 번이나 폭격을 가했다. 모두들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왈레스는 그 중국인 의사가 움직이면 병이 더 악화되므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밤새 그 환자를 돌보았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이다. 비록 그가 다음날 아침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지도자로서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충분치 않았다. 하지만 왈레스는 어느 누구도 위험한 곳으로 음식을 구하러 보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의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먹지 못하여 버린 누룽지를 먹기도 하였다. 왈레스 팀은 미군이나 중국인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다.

결국 1년 간의 긴 피난은 8월 15일 일본군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끝이 났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 그들은 우저우에서 돌아와 수라장이 된 병원을 예전의 모습으로 손질해 나갔다. 그의 뛰어난 기계 다루는 솜씨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왈레스는 감옥에 가서도 진료를 했다. 포악한 죄수도 왈레스의 사랑에 감동하여 온순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왈레스

왈레스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5년을 보내고 또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번 안식년도 자기가 중국에 있는 사이 눈부시게 발전한 의학의 여러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쿡 카운티 의학교」에 등록하여 여러 가지 신기술을 습득했다.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미진한 점들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연구했다.

왈레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12년 동안 왈레스가 연구하고 치료했던 여러 병례들이 한 친구에 의해 자료로 모아져 있었는데, 그것이 특수한 의학 분야를 개척했다는 공로로 인정되어 “국제외과대학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대단한 영예였다.

비록 중국의 정치 상황은 불안정했지만 왈레스는 선교사업을 위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 1948년 여름 우저우에 유행성 파라티프스가 만연했는데 왈레스가 그 병에 걸리고 말았다. 중국인 동료들은 그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왈레스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정신착란 증세까지 나타났다. 그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열은 점점 높아져 살아날 희망이 희박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신을 차리더니 “뉴번을 데리고 와요.”라고 소리를 쳤다. 윌리엄 뉴번은 인근 기독교 선교 연맹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왈레스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다. 뉴번은 왈레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다. 뉴번이 왈레스 곁에 오자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에게 절박하게 말했다. “뉴번, 나는 너무나 주님께 소홀히 해왔어요. 주님을 더 알아야 하는 일보다 병원의 물질적 번영에 더 힘써 왔어요.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소홀히 한거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왈레스는 뉴번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세요.”라고 힘들게 말하고는 왈레스는 잠이 들었다. 그런 일이 있던 이틀 뒤에 놀랍게도 왈레스는 열이 내리고 맥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병에서 완쾌된 후 그는 병원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른 전도팀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가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의복, 성경,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1920년대 초에 중국에 시작된 공산주의는 그 세력을 착실히 확장시켜, 1949년에는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공산주의의 이념은 기독교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선교는 힘든 일이지만 왈레스는 남아 있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국은 누구보다도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저우에서 공산군 정치 공작대원들은 쉴 사이 없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공산군은 병원에도 그 세력을 뻗어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병원을 군인들의 숙소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거나, 행진에 간호사들을 참가 시키라는 등 많은 방해로 가했다. 왈레스는 적의는 없지만 확고한 태도로 모든 사태를 처리해 나갔다. 병원에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었으나, 그를 돕던 동료들은 사태의 추이를 살피며 조금씩 떠나가고 중국인 형제 자매들 또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왈레스는 잠시도 병원을 비울 수 없었다.

중국을 위해 살다간 왈레스

1950년 12월, 공산당은 본격적으로 숙청과 학살을 시작하였다. 왈레스와 그의 직원들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공산군 몇 명이 “왈레스가 트루먼 대통령의 비밀 스파이로 우저우에 와 있다”는 명목으로 왈레스를 체포해갔다. 또한 그들은 왈레스의 침대 밑에서 언제 숨겨 놓았는지 알 수 없는 권총을 증거물로 압수해 갔다. 간첩 행위라는 무서운 죄명과 더불어 더 음흉한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면 그를 독방에 가둬 놓았다. 그들은 왈레스를 심하게 고문하였으며, 문서를 조작하여 그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왈레스로 하여금 가장 참기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세뇌였다. 매일같이, 밤이 새도록 그에게 자기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세뇌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정신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 몰래 가져온 종이 조각과 연필로 성경 구절을 쓰거나,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는 글을 쓰면서 이겨나갔다. 하지만 공산당은 긴 막대기로 그의 허약한 육체를 마구 찢어서 그를 죽이고 말았다. 왈레스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케 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은 그가 자살했다고 스타우트병원에 거짓 통보를 했다.

아직 쌀쌀한 1951년 2월, 왈레스는 우저우의 대나무 숲이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다. 왈레스의 중국 친구들은 오로지 중국을 위해 살았던 왈레스를 위해 돈을 모아 기념비를 세워주었다. 그들은 그 기념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1:21 상)”라고 새겨 그의 삶을 평가해 주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중국인들을 사랑했던 왈레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한 중국인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고백을 그의 삶전체를 통해 말해주었던 것이다.

“ 좋은 상담자도 되어주세요 ”

휴대폰을 든 가정교회 지도자

왕쓰웨

휴대폰을 든 가정교회 지도자

허(何) 형제는 R지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때 만난 가정교회 지도자이다. 건장한 체구에 잘 생긴 호남(好男)형 남자였다. 목소리는 굵직하고 눈웃음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지도자 훈련 때 그는 간간이 나타나 훈련받는 사역자들을 격려하였고 또 우리 선생들에게도 찾아와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사람들에게 그의 직업에 대해 물으니 그는 어느 무역회사에 중견간부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나는 그가 직업이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전형적인 도시의 가정교회 지도자로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이번 지도자 훈련에 나와 한 팀이 되어 가르치게 된 탕(湯)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허 형제가 불쑥 우리의 숙소로 들어왔다. 그의 갑작스런 방문에 내가 깜짝 놀라자 그는 미안해하며 눈웃음을 짓고는 점심식사는 잘했는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바나나와 오렌지를 꺼내어 나에게 권하였다. 허 형제와의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허 형제의 아버지는 1922년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지냈고, 어머니는 1929년 장쑤성(江蘇省) 출신이면서 공산화 이후 신학교를 졸

업한 분이셨다. 그는 4남매 중 셋째로 그 위에 누나와 형이 각각 한 명씩 있고, 그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다. 허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느 국영기업에서 일을 하였고,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으며, 지금은 어느 무역회사에서 중견간부로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촉망받고 있다. 원래 그는 평범한 회원이었고 교회의 교역자나 지도자도 아니었다. 가끔 교회의 청년모임에서 설교를 한 것 외에는 보통신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1993년 직장암으로 소천하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게 되자 부모님이 이끄는 가정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의 형과 그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교회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래 허 형제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형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 그로 하여금 교회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가정교회의 교역자와의 협력문제 때문에 형과 격렬한 논쟁을 하였고, 결국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 갈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150개 이상의 가정교회에서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이끄는 그 지역 가정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150개의 가정교회, 1만 명 이상의 신도

나는 무엇보다도 허 형제가
150개 이상의 가
정교회와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어떻
게 목양하는지
궁금했
다.



장승원 그림

그는 철저한 조직력
과 팀 구성을 통해 책임제에 입각해서 각각의 교회와
각 구역을 목양하고 있었다. 비록 어떤 곳은 100명이
넘기도 하지만, 보통 그의 가정교회는 50~80명이 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30개의 그와
같은 가정교회가 1개의 큰 구역으로 묶어져, 현재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가정교회는 지도자
가 있어 교회의 설교와 목양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1
개 구역에 20~30개의 가정교회가 있어 1개의 구역
에 20~30명의 지도자가 있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각 구역은 이들을 중심으로 구역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구역위원회에서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
지 공동적인 목양과 신도와 교육문제 등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또 각 구역에는 각각 공동대표 4명을 선출
해 이들을 중심으로 최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허 형제의 교회는 현재 6개 구역의 공동대표들과 허
형제를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된 최고 위원회가
있다. 허 형제는 최고 위원회의 위원장인 것이다. 놀
랍게도 허 형제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와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사역을 하는자들
이며, 그 중 전임 사역자는 8명인데 그들은 모두 직장
에서 이미 정년퇴임한 자들이었다.

허 형제의 가정교회는 주일예배와 주중의 기도회,

성경

공부반, 교리학습반

등이 있으며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구역에서 공동
으로 운영하는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
어 한 단계 높은 교리반과 성경반 그리
고 어린이지도자 양성반뿐만 아니라 헌신
자 훈련반, 사역자
훈련반 등이 있다.

헌신자 훈련반은 교역자 양성과정이며, 사역자
훈련반은 사역자의 재교육 훈련과정이다. 또 고급 지
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각 구역의 지도자와 대표로 구
성된 최고급 지도자 훈련반이 있다. 최고급 지도자
훈련반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외부강
사와 해외의 강사를 초빙하기도 한다. 탕 교수와 나
는 바로 이 최고급 지도자 훈련반의 강사로 초빙이
되어 강의하게 된 것이다. 나는 허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간 얼마
나 떨렸는지 모른다. 내가 지난 며칠 동안 강의 시간
에 목청 높여 강의한 게 왠지 걱정되었다. 허룽강아
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한 강의인 것 같았다.

나는 허 형제가 새삼 존경스러워 보였다. 많지도 않
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막중한 사역을
조직적으로 잘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
면서 그의 배경이 더 궁금해졌다. 특히 그의 가정배
경이 더욱 그러했다. 나는 보은병의 물을 그의 컵에
따라주면서 그의 부모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보았다.

부모님의 신앙과 사역의 계승

그의 아버지는 1950년대에 우파(右派)분자로 규정되
어 산둥성(山東省)에서 노동개조를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같이 노동개조를 한 어느 기독교인으로부터 몰래 기독교 신앙을 소개받았고, 결국 그 기독교인의 인격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기독교인을 따라 노동개조소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기도와 신앙생활의 진수도 배웠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친지의 소개로 장쑤성 출신의 아가씨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후 그들은 서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특히 허 형제의 어머니가 신학교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허 형제의 부모님은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는 예배드리고 전도한 사실 때문에 반혁명분자로 몰리게 되어 옥고를 치루게 되었고, 어머니도 짧은 기간동안 옥고를 치루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명예회복이 되어 아버지는 다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복직하게 되었다. 1983년부터 1993년 소천하기 이전 10년 동안 아버지는 복음전도와 교회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안후이성과 쓰촨성(四川省)의 많은 미전도지역에 교회개혁을 하였다. 1984년과 1985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사역하는 쓰촨성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어느 농촌에서는 한번 집회하는데 8백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93년 어느 날 밤에 직장암으로 고생하셨던 아버지는 집기실에 있는 철판에 “옳은 길(正道)을 선정하고, 사람들을 넓게 받아들이며, 합심하여 협력하고, 충성으로 사명을 다한다(選定正道, 廣爲接納. 同心配搭, 忠心盡職).”라고 쓰고 식구들에게 그 뜻을 설명하고는 보통 때와 같이 잠을 잤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는 수면 중에 이미 소천을 한 것이었다. 아무도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허 형제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양육, 설교의 성경 강해에 은사가 있는 분이였다. 보통 아버지가 맺은 전도의 열매를 어머니가 양육하였고, 교회에서의 성경공부반은 대체로 어

머니가 인도하였다. 허 형제의 집에는 항상 예배와 모임, 성경공부가 끊임이 없었고, 이웃이 알아도 공안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공안국에서도 그들의 모임을 알고는 있지만 간섭하지 않았다. 가끔 공안이 와서 모임에 참석하는 자들의 이름을 보고하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공안국에서도 그의 부모님이 과거에 장기간의 옥고를 치룬 경험이 있고, 또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모임을 금지시키거나 체포하지는 않았다.

허 형제는 아버지의 소천 후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4남매가 모두 그의 부모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 그의 형은 비록 그보다는 작지만 80개의 가정교회와 6천여 명의 신도를 이끌고 있으며, 그의 누이는 허 형제를 도와 주로 어린이 사역 훈련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찬양사역에 열심을 내어 섬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남동생은 허 형제 밑에서 그들 개인의 어느 한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아버지와 같이 복음전도에 큰 은사가 있다고 한다. 허 형제의 형님은 허 형제 교회에서 개최하는 최고급 지도자 훈련반에 자기교회 소속의



장승원 그림

교역자를 보내어 훈련받는 일 때문에, 최근 몇 개월 동안 빈번히 만나고 기도하면서 과거 불편했던 관계와 감정이 일소되었다고 했다. 특히 허 형제와 그의 형님의 가정교회 소속 교역자들 사이에 조직적 연합을 하지는 움직임이 있어 허 형제는 형님과 조직적으로 연합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두 형제의 교회들이 한 조직체로 연합하면 230개의 가정교회와 2만 명의 신도를 갖춘 초대형 교회가 될 것이다. 하여튼 허 형제 4남매는 부모님을 이어 그 지역에서 부모님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부흥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매우 부러웠다. 부모님께서 일구어 놓은 텃밭에 자녀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허 형제에게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엇보다 신도의 신앙성숙과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1만 명이 넘는 신도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도들을 구원받은 단계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과, 이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모임장소의 부족도 그는 지적했다. 신도들이 자신의 집을 모임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신앙의 큰 결단과 후시 있게 될 위험이나 위기를 감수해야 하며, 한꺼번에 50명 내지 100명의 신도가 좁은 집에서 모임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라 했다. 특히 성경을 깊게 연구하기 위한 사전, 참고서와 성경주석 그리고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신앙 위인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교회에서 급히 필요한 몇 종류의 성경주석을 언급하면서 책 이름을 종이에 적어 나에게 주면서 다음에 올 때 꼭 공급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했다. 한편 그들 교회와 심지어 다른 계파의 가정교회로부터 눈총과 시기함을 받고 있다고 했다. 어느 가정교회에서는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이나 활동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기까지 하여 매우 마음

이 아팠다고 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상담자

오후 내내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막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데 허 형제의 손에 들고있는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는 통화를 한참동안 했다. 그리고는 “곧 갈께,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허 형제는 나에게 회사에 급한 용무로 빨리 가봐야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루었다. 나는 그와 함께 방을 나와 집 마당까지 갔다. 허 형제는 나에게 “왕 선생님, 이제 저 혼자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왕 선생님,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상담자도 되어주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교회를 목양하다 보니 어려움도 참 많은데 적절한 상담자가 없습니다. 오늘 왕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왕 선생님이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역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되어 주셨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나는 허 형제가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또 눈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았다. 밝으면서도 간절한 눈웃음이었다. 방으로 들어오면서 허 형제 아니 중국 교회 지도자로부터 처음 받아 본 ‘상담자’로서의 역할요청이 나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었다. “또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이 말이 매우 걸렸다. 사실 나는 다른 이를 상담할 수 있는 자이기 보다 다른 이로부터 상담을 받는 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뜻밖에 상담자로서의 역할요청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나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일깨워주었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공감하면서 기도해주는 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다.



왕쓰웨 목사 / (중국북음선교회)
중국선교사 훈련원 교무처장, 본지 편집위원

중국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비다



장승원 그림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 - 선교하면 구속이고, 벌금이고, 추방당하는 땅에서 선교사는 예수 이름과 예수 사랑, 예수 보혈을 전하고 가르친다.

중국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기에 일하다가 숨고, 피하고, 욕먹고, 잡혀가고, 추위와 고달픔과 그 어떤 고생을 당해도 선교의 일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교역자가 없는 수많은 농촌 교회와 소도시의 교회들이 지도자 양육과 성경공부가 절실하기에, 나는 비정기적으로 농촌 교회의 사역자들(대부분 집사들이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신학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과 헌신된 사람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으로 성경학습을 하며 지도자 양성훈련을 한다.

한번은 D지역에서 6층 아파트 집을 얻어서 사역장소와 숙소로 쓰고 있을 때의 일이다. 공안에 발각될까봐 찬송은 물론이고, 기도도 큰소리로 하지 못하면서 근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도 거의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매일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성경학습을 하고 있었다. 그 때 마침 형사들이 가가호호를 수색하며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쳐들어오는 형사들을 아무 준비없이 맞이하게 되었다. 재빠른 학생의 기지로 나는 혼자 한쪽 방안에 숨어있었는데, 형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임시 거주증이 없는 것을 이유로 모두 하나씩 불러다가 엄하게 조사하더니 마지막에 내가 숨어 있는 방안을 열어보라고 명령했다. 여학생 한 명이 "그 방은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잠귀 놓고 간 지 오래되었고, 우리는 열 수도 없어요."라고 강력히 말했지만, 형사들은 그 문을 부수고 열겠다고 하며 방문을 발로 차고 흔들며 대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고 두드리는지 문이 거의 부서져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방안에 있는 나는 가슴이 저리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형사들은 지쳐버렸는지 문 여는 것을 포기하

고 우리 학생들을 임시 거주증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파출소로 끌고 갔다. 기막힌 위기감 속에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고, 학생들은 파출소에서 하루종일 심문 당하며 시달리기는 했지만 저녁에는 모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하여 이사를 갔다.

그러나 두 번째 이사간 집에서도 6개월이 지나자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내가 잘 아는 신실한 처소장 집사님이 착하다고 소개해준 한 자매가 자기 집은 안전하고 좋으며 자신있게 자기 집에 세를 것을 간청하였다. 나는 무엇보다 이제 막 전도 받아 믿음을 가지려는 그 자매와 식구들을 전도하고 양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 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 년 치 셋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집을 학습장소와 숙소로 쓰게 되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집주인은 자기의 회갑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방 두 칸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왔다. 나는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쾌히 승낙을 해주고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만 남겨둔 채 다른 장소로 옮겨 지내고 있었다. 사실 그 집주인은 술버릇이 나쁘고 언제나 식구들을 못갈게 구는 강박한 사람이었다. 인격자인 체하며 거드름을 피우다가 가끔씩 내 앞에서 술주정을 하거나 학생들을 괴롭히기 일쑤라 다른 집으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 집세를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반년을 더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나와 학생들은 언제나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며,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며 기회를 만들어 그에게 선을 베풀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내가 미션홈으로 쓰고 있는 다른 장소의 숙소에, 이미 우리의 숙소를 알고 있던 그 딸을 앞세우고 형사 두 명의 앞잡이가 되어 찾아왔다. 딸과 함께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다. 두 형사들은 그를 통역으로 세워서 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은 다른 장소에 가 있던 학

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이곳으로 오고 있는 시간이었다. 만약 학생들이 지금 들어온다면 모두 형사에게 붙들려가서 심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 나는 주님께 급한 기도를 드렸다. 그 때 나와 함께 집에 있던 자매는 두려워서 내 건너편 쪽 창문가에 별별 떨고 서 있었는데, 나는 나를 쳐다보는 자매에게 어떤 눈짓을 보냈다. 그 때 그 자매는 자기도 모르게 민첩한 동작으로 자기 옆에 있는 감자 하나를 창 밖으로 집어 던졌다. 갑자기 4층 위에서 떨어진 감자 때문에 막 집으로 들어오려던 학생들은, 이상한 눈치를 채고 급히 다른 곳으로 피하여 그 위험한 때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오랫동안 조사를 받고 심문당하고 모든 물건을 압수당하여 빼앗기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감당할 시험이라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셔서 위기를 모면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히려 나에게 경찰서에 전도심방 간 것처럼 중요한 일감을 주시고 형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현장 경험의 훈련을 하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먼저 합당한 사역장소를 찾고,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며 그 일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때는 부담과 위기를 느끼는데도 선교비라는 부담 때문에 선교헌금이 아까워서 빨리 어떤 일을 결정 못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었다. 벌금으로 선교비를 잃어버리고 많은 물건과 신앙서적과 성경 찬송을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이곳에서 나는 잃는 것도 선교인 것을 알아야 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간 것은 복음과 함께 자신의 생명까지 주러 가는 것이기에 빼기는 것도 잃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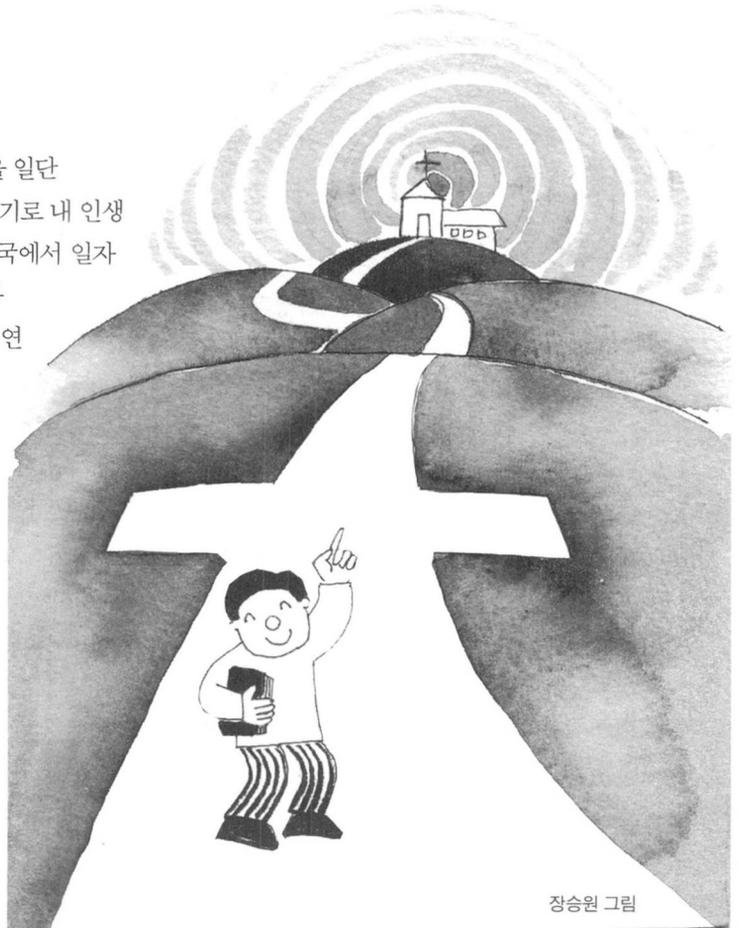
멀고도 먼 진리의 길

리청(里程)

“나는 근 10년 간 미국에 살았지만 주님을 영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수없는 방황 끝에 겨우 진리의 길, 바른 길로 들어섰다.”

밝은 빛을 향해

작년 전반기 나는 한 대학의 연구작업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내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작년은 미국에서 일자리 찾기가 매우 힘든 한 해였다. 백여통이 넘는 지원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내와 나는 조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 이 때 내가 있던 대학에서 중국어 성경공부를 하던 자매가 나와 아내를 성경공부 모임에 초청했다. 아내는 안 가려고 생각했지만 몇 주에 걸친 자매의 간절한 전화요청에 못이겨 마침내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한번 가본다고 간 것이 그만 폭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 때부터 아내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성경반 형제 자매들은 내가 새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다.



장승원 그림



내가 K시로 면접 보러 가던 날 밤, 그 교회 친구들은 특별히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나는 비록 신앙은 없었지만 기도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 그 다음날 면접 보러 가는 도중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K시는 내가 사는 곳에서 200리나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 차가 일직선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사방에 금빛이 번쩍이고 햇빛이 길에 쏟아지더니 차안이나 차 밖 모두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런 현상이 4-5분 동안 계속되자 나는 매우 두려워졌다. 내가 차를 8년간 운전해 오는 동안 햇빛을 받으며 차를 몰아본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리칭의 전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햇빛으로 그들의 가정을 비취주소서.” 하는 말이 들려왔다. ‘아, 이 말은 바로 어제 저녁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 기도해줄 때 했던 말이 아닌가?’ 그 때를 생각하자, 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말로 제게 나타나신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가 면접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소시오. 이번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면접은 순조로웠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는 바라던 대로 K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내 아내도 뜻밖에 원하던 일자리를 얻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을 믿겠다던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

나의 속마음

K시에 도착한 후 아내와 아이들은 매주 대학캠퍼스 부근의 한 중국인 모임에서 성경공부를 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족들을 교회로 데려다 준 다음 실험실로 갔고 성경공부 모임이 끝날 때 쯤 가족들을 데리고 오곤 했다. 어떤 때는 약간 일찍 도착해 성경모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예의상 그냥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고 은혜

를 나누는 모습은 예전에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어록을 공부하는 것과 흡사했다. 나는 그들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이 구구절절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단정지를 때, 나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도 열심히 하며 성실하고 다른 사람도 잘 돕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도 나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과는 반대로, 나는 종종 직장과 생활 중에 문제에 부딪힐 때면 남몰래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자 나는 나를 도와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 보았지만 많은 대답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믿어야 되네. 믿기만 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나는 먼저 믿기부터 하라는 말에 상당히 반감이 들었다. 이 말을 들으니 나는 즉시 린바오(林彪)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마오쩌둥이 내린 지시에 대해 “이해되는 것은 행동에 옮기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행동에 옮겨라. 행동에 옮기는 중에 깊이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전심전력을 다해 행동으로 실천했으나 도리어 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속임을 당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마음에 확신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먼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철저히 따지고 들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세계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될 걸세.” 나는 비록 성경반에 자주 참석은 했지만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달 계속됐다.

한번은 성경 반에서 마가복음 9장을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왔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아

이의 아버지는 즉시 소리치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다. 주님을 믿지만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성경말씀에 모든 이가 공감했다. 나는 예수님께 대한 이 아버지의 성실하고 간절한 태도에 감동을 받아 그동안 품고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반신반의했었는데 이는 저의 특정한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지식인이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개인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된 바에 화끈하게 내 생각을 털어놓기로 했다.

“원시사회에서는 인간의 인식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번개, 천둥, 지진,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현상을 불신, 땅신, 산신이니 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자연에 대해 인간이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신에 대한 관념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신론은 저급한 인식의 산물이며 무신론은 고급 단계의 인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같이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미신의 일종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진짜 속마음이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됐을 때, 나는 마침 혁명의 근원지인 베이징대학(北京大學)에서 공부하면서 문화대혁명의 전과정을 목도할 수 있었다. 나는 혁명을 위해 온몸을 바쳤지만 반대파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 흠뻑 두들겨 맞고 내몽고로 보내졌다. 그 후 허난성(河南省)의 농촌, 탄광, 부대 등을 떠돌다가 1978년에 서야 겨우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국가 전체가 망신창이가 되었고 나의 몸과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된 이후, 나는 다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노라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마오쩌둥에 대한 미신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찌 다시

서양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나의 정신적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자신이 배운 것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힘써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충실하게 산다면, 다른 정신적인 신앙은 필요 없으며 종교는 무식한 노인들이나 부녀자들, 마음 약한 사람들의 정신적 피난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또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모든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야지 다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만함과 자부심에 가득찬 나의 말이 끝나자, 성경 모임에 인도자인 의과대학의 교수는 내게 대단히 겸손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생각들은 특별한 생각이 아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일이며, 그 후에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소.”

나는 그분 말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나는 매주 성경반에 참가할 뿐 아니라, 그 모임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책을 빌려 읽고 또 펜실베이니아 주와 캘리포니아 주(州)의 기독교 서점에서 주문한 몇 권의 책들을 통하여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자 완전히 빨려 들고 말았다. 이런 책들은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광활한 세계로 인도해 주었고, 내 눈앞에 기이한 영적 세계의 그림들을 펼쳐 주었다. 나는 마치 허기진 사람처럼 하나씩 하나씩 흡수해 나갔다.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읽었다. 그러자 의심의 구름은 점차 걷히고 마음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뜻밖의 발견

과거 나는 줄곧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과거 3세기 동안 뉴튼, 패러디, 멘델, 파스퇴르 등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의 92%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저명한 과학자, 우주 비



행가,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자, 나는 갑자기 왜소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교만과 자부심에 찬 마음은 겸손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머릿속 깊이 자리잡고 있던 과학과 종교, 무신론과 유신론의 뿌리깊은 개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무신론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무신론자였던가? 진짜 무신론자란 마땅히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 체계적인 비교와 연구를 한 후에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연구를 해 본적도 없었고, 다만 정치 선전 수단으로 이용된 무신론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도 할 수 없고 단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 불과했다. 나는 본래 증거와 논리적인 추론,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태도를 중시했다. 그러나 성경반에 참석한 이후 내가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과학적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시작됐다.

과거 나는 기독교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은 없었는데도 기독교란 우매무지한 종교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나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나는 성경책의 목차조차 읽어 본 적이 없었으면서 성경이 과학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선입관이자 편견이었으며 결코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영적 세계

응용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돌발적인 심장병으로 일시 사망하는 환자의 치료율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국 심장학의 권위자 로링스 박사가 자신이 치료해 살아난 환자들의 사후 경험들을 여러 차례 내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알 수 있었다. 죽은 자들은 모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만나본 공통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영혼은 아름다운 낙원에 있었으며 어떤 영혼은 음산한 곳에 있었다. 환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로링스 박사는 매우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이와 관련

한 자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사망이란 무엇인가?> 라는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작년 성탄절 저녁에 교회에서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줄곧 이 책을 읽고 있었다. 저자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1차 자료를 통해 나는 이 책의 진실성에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영혼불멸의 이야기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없었다. 안 믿자니 가까운 이들의 몸소 체험한 사실들이 너무나 생생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일부러 그런 허튼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믿자니 내가 가진 이성적 생각들과 서로 충돌했다. 나는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수밖에 없었고 가능한 한 이 문제를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로링스의 책을 읽고 나서는 확실히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어떤 영혼은 하늘로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전율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이때 한 친구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장거리 전화를 걸어와 하나님에 관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작년에 병세가 위급할 때 도저히 귀국할 수 없어 마음이 괴로웠다고 한다. 그 때 그녀는 계속 하나님께 부친의 최후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친이 그녀를 찾아온 것을 꿈속에서 보았고 며칠 후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그녀가 국제 전화를 통해 그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해 상세히 말하자 어머니는 대단히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꿈속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과 실제상황이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으며 하나님께 전에 없던 경배심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저녁 기도 때, 나는 난생 처음 자신도 모르게 두 무릎을 꿇었다.

과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후,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쉽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과학만능이라는 생각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이 가장 믿을 만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믿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 나는 과학적인 방법은 유한하며 과학이란 물질 세계의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일 뿐이지 비물질적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과학적 발견만이 믿을 수 있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 나는 사람의 생활, 학문, 일 등 어느 하나도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과학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우주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야 한다. 이 가정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 개혁운동이 서양의 르네상스, 산업혁명과 현대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가졌던 과학과 기독교는 절대적인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무지한 것이었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법칙을 창조하셨고 과학적 연구는 바로 이러한 규칙들을 알아내는 작업이다. 이 점에 있어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연구는 조화를 이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방문하셨고 몸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친히 인간에게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 사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며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엄청난 변화

주님을 믿은 지 반년 동안 나의 내면세계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주님을 믿기 전, 나는 적어도 겉으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깊은 공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나 자신은 모래와 같이 미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중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게 되자 내면의 만족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고 공허감, 처량한 마음은 단번에 씻겨 내려갔다. 영생의 소망이 생기자 나는 더이상 두려워할 것



장승원 그림



이 없어졌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대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사람의 인생 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보통 몇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몇 걸음만 잘 걸으면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고 한 걸음 잘못 내딛으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다. 나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자기 수양에 힘쓰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생활통제 능력을 길렀으며, 동시에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 중요한 시기에 서로 이끌어주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작년까지 나는 “인생이란 알 수 없고 길은 험하니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해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세.”라는 시 구절을 절친한 친구와 읊조리며 서로를 권면했었다. 이 시 구절이 불안한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같은 배를 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 모두는 평범한 속세 인간 뿐이지 않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 5-6).” 이것이 수천만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체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비록 겨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쪽 방면에 깊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참되고 살아 계시며 전능하신 주께서 같이 하심을 인해 더이상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게 되었고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었다.

또다른 변화

주님을 믿은 후 또다른 변화는 점차 세상의 정욕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자족하는 자는 항상 즐겁다’는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어 돈과 물질에 대해 그다지 욕심은 없었지만, 일에 대해서만은 전심을 다해 성공을 추구함으로 자아실현과 사회의 인정을 원했다. 나는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미움, 질투, 이기적인 마음들을

철두철미하게 없앨 수는 없었다.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으나 내게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었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여겼고 이후로는 그를 멀리 했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영적인 깨달음과 물질에 대한 초탈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넓은 시야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적 고뇌는 줄어들었고 기쁨과 평안함은 날로 늘어났다. 이전에는 줄곧 다른 이로부터 나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도록 강요당했으나 나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랐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야 나는 세상 자녀에서 하늘나라 자녀로 과거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었다. 생각이 바뀌자 생활, 인생관, 세계관 모두가 변했다. 과거 외롭게 하늘을 바라보며 비탄과 탄식으로 지내던 왜소하고 미약한 자가, 오늘 주의 날개를 의지해 우주를 바라보고 만물의 정연함을 바라보게 되니, 마음 깊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흘러 나온다. 과거 나는 세상의 정욕에 묶여 지내며 걱정 근심 속에 살았으나, 오늘 나는 참 하나님께 돌아와 하늘과 땅을 밝으며 하나님의 지혜의 빛 아래에서 날로 성장하며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며 살고 있다.

주님을 믿은 과정을 돌아켜보니 나는 자신의 우매함과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전능하심을 느끼며 인간을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마음 깊은 감격과 경외심을 느낀다. 나는 나와 비슷한 배경, 학력을 가졌으나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와 같이 방황하지 말고, 편견을 접어두고 마음을 넓혀 기독교를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후에 영접할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인생의 참 의미와 영생의 비밀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로부터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리청/재미 중국인
번역/손비율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협동간사

중국선교에 부흥을 일으킨 미국 선교단체들

이삼열

이삼열의 中國 이야기 (3)

1965년, 뉴욕 선교 연구 도서관(The Missionary Research Library)이 조사한 「선교사 전기 인명록」에는 모두 2,286명의 선교사가 수록되었는데, 이들 선교사 대부분이 19세기의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라토렛(Dr. Latourette) 교수는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말하였다.

특히 19세기 초 영국의 모리슨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의 중국 선교는, 1842년 난징(南京)조약과 1860년 베이징(北京)조약으로 인해 중국의 선교지역이 확대되고 선교사의 신변이 보장되자, 미국 내 각 교단에서는 앞을 다투어 중국 선교에 열중하게 되었다. 19세기 동안에 중국 선교에 참여했던 미국 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남침례회

중국이 아편문제로 가장 시끄러운 시기에 미국 남침례회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선교사는 루이스 석크(Lewis Shuck) 목사로, 그는 1836년 마카오에 도착하여 홍콩을 내왕하면서 선교사업을 하였다. 그의 부인 헨레타(Henretta) 여사는 교육사업에 열중하여 6년만에 마카오와 홍콩의 각 지역에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난징조약 이후 크롭턴(C. Cropton) 선교사와 피어시(G. Percy) 선교사가 1847년 광둥(廣東)에 도착하였다. 이 때는 난징조약으로 5개 항구 내에서 선교의 자유가 인정된 시기여서 광둥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어서 뤼샤오첸(羅孝全) 선교사가 홍콩에 도착하였고 린웨이런(隣爲仁) 선교사가 만구(曼谷)에 도착하였다. 뤼샤오첸 선교사는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시우첸(洪秀全)에게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기도 하였다. 린웨이런은 만구에서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여 중국 내에서 첫 번째 침례교회를 세웠다. 데반(Devan) 의사는 선교사로 1845년 홍콩에 도착하여 유흥가에 병원과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미국 남침례회는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배도 여자중학교>와 <모방 맹아원>을 설립하였는데, 학교의 학생수는 80명이 넘었다고 한다. 1909년에는 <배원신학원>을 설립하였다. 1847년 타이슨(Matthew Tyson) 선교사 부부가 상하이에 도착하여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였다. 1860년 베이징조약이 체결된 후 중국 내 선교지가 확장되자 남침례회는 선교사를 증파하기로 결의하고, 홉스(J. L. Holmes) 선교사와 하트웰(J. B. Hartwell) 선교사를 산둥성(山東省) 지부에 파견하여 선교활동을 하게 하였다. 하트웰 선교사는 1861년 구교운동(아편전쟁 후 중국에서의 반기독교 운동 편집자 주)에게 폭행당하여 순교하였다.

미국 남침례회가 중국에서 벌인 선교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의 상황).

교회 수 : 392 개

전도 처소 수 : 410개

감리회에서는 남경조약 이후, 알렌(T. Allen)이 1860년 상하이(上海)에 도착하여 주간잡지인 <만국공보(萬國公報)>를 발간하여 교육사업에 공헌하였다. <만국공보>는 계속 발간되었다.

미보회(美普會)에서는 베이징조약이 체결된 훨씬 후에 중국선교를 결정하고 마유겸(馬維兼)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는 1867년 장자커우(張家口)에 도착하여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상의 세 교단은 연합하여 1941년 웨슬리 공회라고 통칭하였다.

3. 미국 공리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 for Foreign Missions)

미국 공리회는 광둥 기독교 설립인들의 선교사 파송 요청을 받고 중국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브리드맨(E. C. Bridman) 선교사와 아비이(D. Abee) 선교사 두 명을 중국에 파송하였다. 이들은 1830년 광둥(廣東)에 도착하였다. 두 선교사는 모리슨

이삼열의 中國 이야기 (3)

신자 총수 : 123,000명

2. 웨슬리 공회

웨슬리 공회는 1841년 중국에서 미이미회(美以美會), 감리회(監理會), 미보회(美普會)의 3개 교단이 연합한 통일 명칭이다. 미이미회에서는 남경조약 이후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1847년 콜린(J. D. Collins) 선교사와 화이트(M. C. White) 선교사 두 명을 파송하였다. 그들은 푸저우(福州)에 도착하여 전도사업과 교육사업, 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1860년 베이징조약 이후에 미이미회는 푸젠성(福建省) 흥화(興化)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1867년에는 지우장(九江)에서 선교하였고 1869년에는 휠러(L. K. Wheeler) 선교사와 로리(H. L. Lowry) 선교사가 베이징에 도착하여 선교를 하였다. 1882년에는 중칭(重慶) 등지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Morrison)과 함께 미국 성서공회(The American Bible Society)에 성경 인쇄비와 교회 서적 출판사업비를 원조받아 <중국의 보고(The Chinese Repository)>라는 월간지를 간행하였다. 이 유명한 월간지의 간행사업은 후대에도 계속되었다.

183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고 광둥에 도착한 사무엘 윌리엄(Samuel Williams) 선교사는 이 월간잡지를 계속하여 출간하였다. 그 후 주중 미국공사 서기관으로 발탁되어 일하다가 대리공사로 위촉되어 대리공사직에 취임하면서 선교사직을 떠나고 말았다.

사무엘 윌리엄 선교사가 선교사직을 떠나 외교관으로 취임한 후 그 후임으로 피터 파커(Peter Parker) 의사가 광둥에 도착하여 광둥에서 안과를 개업하고 박의협회(博醫協會)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도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았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화교는 중국 광둥에 선교

사 한 명을 파송하여 줄 것을 미국 공리회에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미국 공리회는 하거(Hager)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하거 선교사는 1897년 홍콩에 도착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광둥 각지에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였다.

4.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도 1842년 난징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 선교에 착수하였다. 1842년 야빠리(雅裨理) 선교사가 샤먼(廈門)에 도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847년 톤슨(Tohnson) 선교사와 피트(L. B. Peet) 선교사가 푸저우(福州)에 도착하여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1883년에는 6명의 선교사를 산시성(山西省)의 타이구(太谷)에 파송하였다. 그들은 편저우(汾州) 지방에 들어가서 선교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6. 미국 장로회

미국 장로회가 미첼(J. A. Mitchell) 선교사 부부와 오르(R. W. Orr)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던 1838년은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으로서 이 때는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파송받은 선교지인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다.

두 번째의 선교사 파송은 1847년 난징조약이 체결되어 5개 항구 내에서 선교의 자유가 허용된 때였다. 그래서 하페(A. P. Happe) 선교사, 스피어(W. Speer) 선교사, 푸렌즈(富連治) 선교사는 당당하게 광둥으로 들어갔으나 선교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부진하였다.

제레미슨(C. C. Jeremmissen)은 선교 후원단체 없이 독립 선교사로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선교를 하다가 생활이 너무 곤란하여 1885년 할 수 없이 미국 장로회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하이난다오 선

이삼열의 中國 이야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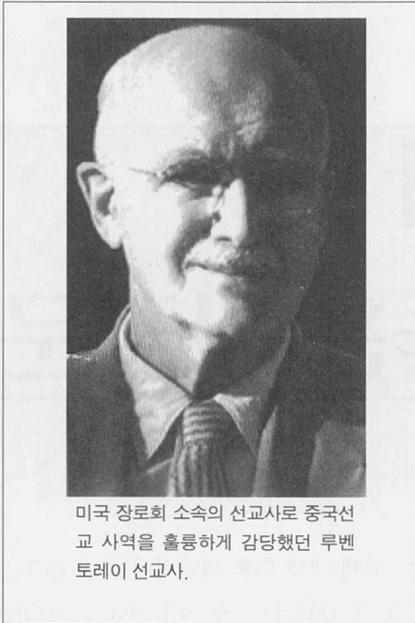
5. 침례회 의료선교회

침례회 소속 의료선교사 피터 파커(Peter Parker)는 1835년 싱가포르에 설치하였던 의료시설을 모두 광둥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그는 미국 공리회의 의료선교사인 브리드먼(E. C. Bridman)은 동인도회사의 소속 의사인 칼리지(College)와 협동하여 1838년 광둥 의료선교회를 창설하였다. 파커 의사는 그 후 20년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사업을 하였다. 그의 후계자는 미국 장로회 선교사 케어(Kerr) 의사였다. 그는 44년 간을 의료선교사업에 헌신하는 한편 샤먼, 닝뽀(寧波), 상하이, 홍콩 등지에 각각 병원을 설립하였다. 1843년 맥고완(D. J. Macgowan) 의사는 닝뽀에 의료진료소를 설립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상적인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는 바번 중에도 『한영신약성서(漢英新約聖書) 대조편』을 편찬하였다.

교에 힘을 다하였다.

난징조약이 체결된 후 맥카티(D. B. Maccartee) 선교사와 로리(W. M. Lowrie) 선교사가 1844는 닝뽀에 도착하여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1945년부터 인쇄소를 설립하고 문서선교에 전력을 다하였다. 같은 때 라이트(J. K. Wright) 선교사가 상하이에 도착, 선교활동을 시작하여 1860년에 상하이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그 후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등지를 순회하는 선교활동을 하였다.

윌리엄 알렉산더(William Alexander) 선교사는 1850년 닝뽀에 도착하여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다가 주중 미국 공사관 통역관과 동문관 교수로 초대받아 선교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는 1897년 베이징 대학이 창립되면서 초대 교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의 외교 고문관으로 추대받아서 중국 정부를 위하여 복무하다가 1816년 귀국하여 서



미국 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로 중국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루벤토레이 선교사.

팅(A. Whiting) 선교사는 1870년 난징에 도착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설립하였다.

미국 장로회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를 손꼽는다면 토레이(R. A. Torrey) 박사를 들 수 있다. 그는 1913년 6월에 상하이에 도착하여 지난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였다. 그는 누빈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중국식으로 자면서 여러 곳으로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1919년 산둥성에서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이 완전히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을 때, 기아에 허덕이는 중국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느끼고 기아구제사업을 하였다. 또한 미국에 중국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하고 구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7. 기독 청년회

〈기독 청년회〉의 창설자인 레이드(Reid) 선교사는 윈

이삼열의 中國 이야기 (3)

거하였다.

네비우스(Nevius) 선교사와 댄포스(Danforth) 선교사, 케이리(Cayley) 선교사 3명이 베이징조약 체결 후인 1861년 산둥성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산둥성 내에 있는 덩저우(滕州) 등지에서 정열을 다하여 선교하였다. 그들이 선교사역을 한 지 6년째 되는 해에 산둥성에 한재가 엄습하여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아사(餓死)하게 되자 아사자 구제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네비우스 선교사는 일찍이 중국 선교에 있어서 자양(自養), 자치(自治), 자전(自傳)의 방법을 주장하며 기독교의 중국 토착화를 주장하였다.

윌슨 마티어(Wilson Mateer) 선교사는 1863년 산둥에 도착하여 덩저우에 학교를 세우고 물리와 수학을 강의하였다. 그는 바쁜 중에 성경을 번역하다가 1908년 칭다오(靑島)에서 서거하였다.

멜베인(J. Mellvaine) 선교사는 지난(濟南)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또한 리만(C. Leaman) 선교사와 화이

래 미국 장로회 선교사였다. 그는 상류사회에 전도하기 위하여 장로회를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상현당(尙賢堂)을 설립하였다. 그 주요목적은 중서문화(中西文化)를 교류하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간격을 배제하며 서양의 학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써 기독 청년회를 복주영화학교에 조직하였다. 익년에는 통저우(通州)와 항저우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기독청년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존 모트(John Mott) 선교사는 1894년 텐진(天津)에서 기독교의 각 교파를 연합하여 기독청년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기독청년회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중요한 도시마다 조직되고 전도활동을 하게 되었다.

수천만 가구의 운명을 바꿔놓은 판결문

을 3월 중국대륙에 있는 홍콩자녀들의 거주권에 대해 홍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홍콩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앞으로 수백만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게 되면 홍콩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홍콩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맞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홍콩은 앞으로 더욱 거대한 국제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홍콩대법원 수석대법관 리귀녕(李國能)의 판결문

장장 2시간에 걸친 홍콩 대법원 수석대법관 리귀녕(李國能)의 판결문은 장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가구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고 홍콩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월 29일 리귀녕을 대표로 하는 5명의 대법관들은 홍콩인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중국 공안국의 허가 없이도 홍콩 거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6년도에 홍콩 정부는 중국에 있는 홍콩인 자녀 수를 32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혼전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홍콩대법원은 홍콩인들이 중국에서 결혼했는지 여부와 연령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이 숫자를 100만까지 추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홍콩 사법권 독립의 상징이자 법치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콩 반환 1년여 동안 홍콩 특별행정구를 둘러싼 사법관할권에 관해 잇따른 논쟁사건으로 홍콩 법조계와 시민들은 홍콩행정부 당국이 사법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왔는데, 이번에 홍콩정부가 홍콩인들의 대륙자녀들의 홍콩 거

주권을 제한하던 법률을 뒤엎음으로 홍콩 사법독립의 원칙이 지켜지고 홍콩의 주류 언론과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다.

환호 속에 감추어진 근심거리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환호하는 이들 홍콩인들 대부분은 많은 중국인들의 홍콩 이주를 반기지 않는다. 그들은 사법권 독립만을 추구하다가 장차 홍콩에 닥칠지도 모를 엄청난 부작용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 1년여 동안 한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허시화(何喜華)씨는 그동안 홍콩정부와 무국적 아동들을 위한 소송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사람으로 그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로 한시름을 놓았다. “법원에서 사심이나 두려움 없이 정부를 비판했고 무국적 아동들에게는 합법적인 길이 열려 잘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그의 평가다. 그러나 뒤따르는 이민붐으로 홍콩은 앞으로 주택, 복지, 교육, 교통, 치안 등 각 방면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홍콩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도, 악화일로로 실업문제가 가중될 수도 있다. 또 장차 그들이 던지는 한 표는 홍콩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잣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 완자이 변화가에 위치한 홍콩행정부 입국관리소 건물 밖에는 대규모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그 다음날 새벽, 중국에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달려와 소식을 확인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입국관리소 직원들이 그들에게 홍콩정부는 이에 관련한 수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공안국에 가서 수속신청을 하라는 말을 하자 그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입국관리소 건물 주위는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고 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찰들도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홍콩으로 가족이주신청을 하려던 사람들이 대법원 건물 밖에서 수

근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떤 이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홍콩 거주권이 있어. 왜 홍콩행 정부는 중국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우리 재회를 막으려고 하는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야?” 다른 한쪽에서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런 말을 나누고 있다. “저 대륙놈들이 떼거리로 몰려들면 홍콩은 대륙 속에 침몰돼 버리고 말거야!” 또다른 한 남자는 손에 든 신문을 흔들며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기사 좀 봐, 다들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었는데 홍콩에 오는 놈들마다 기세 좋게 국가밥 먹겠다고 해대고 있으니 그자들 때문에 홍콩을 망하게 될거야.”

현장은 흡사 학술대회를 방불케 하고 홍콩이 금방이라도 해체위기를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현재 홍콩은 불경기에도 사회복지, 공공의료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날로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어, 많은 홍콩인들은 대륙에서 갖 도착한 사람들로 인해 가뜩이나 궁한 홍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줄곧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도 확실히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홍콩 중문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 리유짜오자(刘兆佳)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행정부 관리들은 대법원이 필시 당국의 지지 입장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외의 사태에 대해 사전준비를 못한 겁니다.” 행정회의 의원 탄야오중(譚耀宗)은 대법원이 중국에서 낳은 혼전 자녀들과 홍콩 영주권을 가진 주민 자녀들에게까지 거주권을 준 것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홍콩정부는 홍콩거주권을 가진 홍콩인들이 대륙에서 낳은 아이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다. 행정사무기관 기관장 천평안성(陳方安生)씨는 그녀가 의장이 되는 초기관적 전담기구 설립을 공포했으며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홍콩인 중국자녀 수를 추산하고, 금후 인구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 간 최소한 30~40만 명의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이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업문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고위 홍콩관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사회문제 중에서 취업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관리는 만일 이들 홍콩인 자녀들이 대거 홍콩으로 몰려들면 홍콩의 실업문제는 악화될 것이고 실업자 수는 두 자리 수로 뛰어오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실업률은 5.8%로 20만이 넘는다. 교육계획국 국장 왕용평(王永平)은 만일 홍콩인 자녀들이 대거 홍콩으로 넘어온다면 홍콩의 취업시장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탄야오중은 이번 판결로 홍콩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민자들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홍콩경제가 번성할 때는 중국 이민자들이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지만 현재 홍콩경제가 쇠퇴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량 이주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홍콩 주민들과 대륙사람 간에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주간(亞洲週刊)에 따르면 과거 홍콩정부가 설립한 취업전담반 회의에서는 한 번도 홍콩인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의제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전담기구 책임자이자 홍콩 과학기술대학 경제발전 연구센터 주임인 레이딩밍(雷鼎鳴) 씨는 정부가 일을 몇 박자씩 늦게 처리한다고 하면서 홍콩인 자녀문제가 수년 전부터 대두되었지만 아무런 대처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96년도에 추산한 32만 명 홍콩인 대륙 자녀들이 단기간 내에 홍콩으로 몰려들 경우 홍콩정부는 2억 4천5백만 홍콩달러를 각출해 공공주택 건설 비용으로 충당하고 교육, 의료방면에서 각각 64억 홍콩달러와 12억 홍콩달러를 별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교부지 마련도 큰 문제

96년 초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대략 1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20세 이하 홍콩인 자녀들은 계속 대륙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들이 단기간 내에 홍콩에 몰려온다면 홍콩의 교육시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홍콩에는 정원미달 중학교가 15,000개, 초등학교가 1만 개가 있다. 현재 2만 3천 명의 홍콩인 대륙 자녀들이 속속 홍콩에 도착하고 있는데, 홍콩 행정부는 그들 모두가 금년에 홍콩에 온다해도 수용할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쑤판수펀(羅范淑芬)은 만일 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된다면 홍콩의 교육여건상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걱정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더 지어 이민학생들을 수용할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학교 지을 땅을 찾는 것도 큰 숙제다. 입법회 의원이자 교육협회 회장인 장원광(張文光) 씨는 홍콩정부가 구 치더(啓德) 공항부지와 서지우룽텐하이취(西九龍半島) 등지에 학교를 신설하면 6만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우룽(九龍)에 있는 홍간취(紅磡區)라는 곳은 근년 들어 새 이민자들의 집단거주지로 변하고 있다. 이 지역 내 취학 연령 학생수가 급증하자 많은 학교들은 넘쳐나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기존의 학교 기숙사는 이용이 힘들고 교사들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 또 매일같이 가장들이 학교에 찾아와 갓 도착한 자기 자녀들을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큰 문제다. 주산(祝珊) 초등학교

중국인 자(自) (自) (自)

교장 쑤쥬딩(蘇灼登) 씨는 자기학교 각반 학생수가 38명이나 되는데 초등학교 일학년의 경우 새로 이민 온 아이들이 20여 명이나 돼, 교사들은 이들의 홍콩 적응과정까지 떠맡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정책발전위원회 회원이자 과학기술대 총장인 우자웨이(吳家瑋)씨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최근 홍콩은 출생률이 떨어지고 노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이민자들의 홍콩 이주가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씨는 계속해서 홍콩 정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지구의 경험을 본받아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홍콩해안지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정부가 주강(珠江) 삼각주 일대의 교육, 교통시설을 개선해 일부 홍콩인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 홍콩의 인구압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서장이며, 사회복지계의 입법회의 위원 뤼즈광(羅致光) 씨는 내륙에 가정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직장을 찾거나 공공지원금을 받으러 벌떼처럼 몰려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가 우려하는 점은 홍콩 행정부와 중국관계 기관 간에 사건처리 방식이 다르고, 각기 행정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다. 즉 중국의 홍콩거주권자의 홍콩입국을 통제하면 할수록 중국인들이 밀항이라도 불사하고 홍콩으로 건너올 것이며, 그 후 홍콩행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되면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뤼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취하면 할수록 중국의 홍콩거주권자는 홍콩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홍콩이 떠안게 될 문제도 점차 작아질 겁니다.” 뤼씨는 홍콩인들이 이번 판결의 부정적인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정적 요소를 줄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법부 비난보다는 새 이민자들의 차별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며칠 선전(深圳)에 거주하게 된 쩌우첸(鄒群)씨는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어린 여동생들과 홍콩 생활을 설계하고 있다. 후난성(湖南) 창더(常德)사람인 25살의 쩌우첸은 4년 전 선전에 건너와 두 명의 홍콩인과 결혼했다. 처음 남편은 그 지역의 유지였으며 그녀는 이 남자로부터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매일 그녀에게 5천 홍콩달러를 주고 매주 한두 차례씩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발생 후 쩌우는 돈이 점점 적어지더니 마지막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다. 그 후 최근 쩌우첸은 홍콩 비즈니스맨을 새로 알게 되었는데 그의 처자식은 모두 미국에 있다. 그는 매번 선전에 올 때마다 쩌우첸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매번 얼마간 생활비를 주곤 했다. 그러나 쩌우첸은 이런 생활에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다시 아이를 갖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홍콩 대법원의 판결로 그녀는 새 희망을 갖게 되었고 쩌우첸은 이 홍콩인의 아이를 낳아 홍콩이민의 돌파구로 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온 후 선전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는 즉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관리소 문밖에는 있는 두 개의 게시판에는 편도 홍콩여행 허가자 명단



홍콩대법원 판결로 이미 홍콩 거주권을 가진 홍콩인 중국자녀 만 명은 이제 홍콩 땅을 밟기만 하면 거주권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이 가득 나붙었고, 십여 명의 가장들이 초조한 얼굴로 명단을 들춰 보면서 한시라도 빨리 여행증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양(楊) 부인 남편은 77년 홍콩에 건너와 홍콩에서 살고 있다. 그는 82년에 중국에 건너가 양씨와 결혼해 83년 아들 양취(楊卓)를 낳았다. 이들 모자 두 사람은 93년에 함께 편도 여행증을 신청했고 양 부인은 작년에 홍콩 거주권을 얻었다. 그런데 만 14세가 된 아들 양취가 문제였다. 공안국에서는 가장은 14세 이하 아이 1명만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부인은 할 수 없이 외아들을 선전에 남겨놓은 채 매주 선전에 와 아들의 일주일분 음식을 준비해주고 있다. 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들이 거주권을 얻은 이상, 공안국에 뇌물을 준다거나 밀항한다든가 하는 모험은 하지 않을 거예요.”

밀항열기는 일지 않을 듯

최근 저우 강 삼각주에서는 해안 국경 관리인들의 순시활동이 강화되었다. 홍콩대법원 판결로 이미 홍콩 거주권을 가진 홍콩인 중국자녀 만 명은 이제 홍콩 땅을 밟기만 하면 거주권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어떤 이는 홍콩행을 서두르는 대륙 아이들의 밀항 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전의 해안 국경검문소의 한 관리와 선전 국경 책임자인 무장경찰대의 한 부대장은 앞으로 밀항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밀항 붐이 일어날 만큼은 아니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97년 홍콩반환 이후 홍콩으로 밀항하는 밀항자 수는 매년 줄고 있다고 한다. 공안부 변방관리국에 따르면 1998년 전국공안 변방부대에서 밀항사건이 1,097건으로 밀항자 수 4,727명이며, 국경 안팎의 밀항브로커 285명이 개입되었는데 97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라고 말했다.

현재 베이징(北京) 공안 출입국관리국은 각지의 공안기관에 긴급통지문을 발송하고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홍콩인 대륙 자녀들을 공안기관이 등록을 받되 허가권은 없고 반드시 공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허가를 내주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해야 관련자 수가 정확히 집계되고 각지 상황에 맞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홍콩정부의 출입처 처장 리샤오광(李少光)씨는 2월 초 베이징에 들어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관리와 함께 홍콩인 대륙자녀 수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홍콩거주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쌍방은 모든 내지 주민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질서있게 홍콩에 이주할 것을 재천명했다. 리샤오광은 홍콩에 돌아온 직후 홍콩인 중국자녀들이 거주증서를 발급 받은 즉시 홍콩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들이 홍콩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중국에서 발행한 홍콩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서류증명서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밀항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에서는 홍콩정부가 법률적으로 서류증명서를 가진 사람을 되돌려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돌아보며



들어가는 말

이번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 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는 제 9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全人大))가 열렸다. 전인대란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무원(정부) 총리의 결정, 국가예산·결산 심사 및 승인 등 우리 나라의 국회와 유사한 일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제9기 2차 전인대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고, 향후 중국에 대해 이해를 높이도록 하자.

본말

이번 전인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 중에서 '사유제(私有制)를 헌법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다른 점이다. '공유제(公有制)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제'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階段論)을 변용하여 공업화, 사회화, 시장화, 현대화의 경제건설 목표에 국력을 집중한다는 의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지난 97년 9월 당(黨)의 지도사상으로 당장(黨障)에 명시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을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함께 국가 지도지침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 헌법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헌법수정안 심의의 과정

중국의 헌법은 전인대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 이 전인대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이다. 3월 4일 주석단 제1차 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전자 표결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곳에서 상정된 헌법수정안을 심의하여 전인대 폐막 직전 표결을 통해 헌법수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인대는 9일 비(非)공유제 경제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 수정안은 15일 전인대 마지막날 전체 대표의 2/3의 동의를 얻어 통과 되었다. 텐지윈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은 나흘째 전체회의에서 6개 조항의 수정안이 담긴 헌법수정안을 설명했다. 이 수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11조로, '공유제 경제'의 '보충'적 지위에 머물렀던 개체 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非)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켰다. 중국이 비공유제 경제를 국가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킨 것은,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해석된다. 수정된 헌법이 통과되면, '꺼티후(개체호)'라 불리는 개인 상공업자와 사영기업들은 그동안 축쇄가 됐던 각종 법적, 행정적 제약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들 사영기업 경영층은 개혁개방의 선두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이끌어 온 '젊은 기업가'들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세, 학력도 대부분(60%) 고졸이상인 고학력자들이다. 개인 기업가들은 그동안 불확실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경영에서 많은 애로를 겪어왔고, 사영기업들도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국 시장경제 개혁을 선도하는 젊은 기업가들이 이제는 서서히 사회 불만층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아울러 사영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비공유경제가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향상된 만큼, 중국은 적어도 경제부분에서 만큼은 역사적인 큰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그러나 헌법수정안 제6조는 '공유제를 위주로 하면서 각종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한다.'고 명시하여 중국은 여전히 공유제(公有制) 우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헌법수정안 서문은 덩샤오핑 이론을 공산당 지도이념으로 명시했으며, 28조는 반혁명(反革命) 관련 규정을 국가안전 위해(國家安全 危害)로 바꾸었다.

2.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의 주요 내용

(1) 개정초안(改正草案)

- ▶(전문)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
- ▶(전문)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의 인도하에-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의 인도하에.
- ▶(제5조 추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 ▶(제11조) 사영제도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 공유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
- ▶(제28조) 반혁명 활동-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범죄활동.

(2) 표결 개정(改正)된 헌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전문 (前文)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아래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의 지도아래서
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률에 기초해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추가된 내용임)
6조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다. 다양한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제도를 견지한다. (추가된 내용임)
11조	국가는 사영기업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인정한다.	개인경영, 사영기업 등의 비 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II. 헌법 개정의 의의(경제 방면에서)

1. 개정헌법의 경제적 의의

이번에 개정된 헌법은 자영업이나 사(私)기업 등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헌법개정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2억 5,000여 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비공유 업종이 헌법의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사영경제가 앞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실업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인들의 개인재산권도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제까지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개체호(個體戶·자영업)는 2천8백51만 호에 종업원 5천4백42만 명, 사기업은 1백30만여 개로 전체 산업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개체호나 사기업은 은행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외형은 국유기업(國有企業)의 형태를 취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경

제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게 돼 사기업이 급속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 예측된다. 개정된 헌법은 공유제(公有制)를 위주로 하여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를 함께 발전시킬 것을 명기했으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되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并存)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는 사유재산제, 재산상속, 주식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사회 공평'과 '시장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관측자들은 이번 헌법개정으로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관해 제기됐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론 같은 논쟁은 일단락됐으며, '중국 특유의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해고근로자나 농민과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중

국공산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전인대는 헌법 개정안 외에도 계약법과 99년도 경제사회발전 계획, 99년도 예산안 등을 표결 통과시켰다. 전인대 폐막 후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인민폐 환율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WTO(세계무역기구) 가입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9기 2차 전인대 전체회의에서는 전체대표의 2/3를 웃도는 압도적인 표차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체제를 완비해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1) 주룽지 '적극적인 재정정책' 역설

5일 개막된 제9기 2차 전인대 회의에서 주룽지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역설했다. 또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도 보다 56% 늘어난 1천5백억 위안(元)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룽지는 '인플레이의 위험도 있지만 올해도 중국경제는 빠른 성장을 실현해야 하며 내수확대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대내·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 경제성장목표를 7%정도로 잡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상업은행을 통해 장기국채 발행을 계속해 나가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초건설투자와 용자확대, 집단(集體), 개별(個體)기업과 사회 기타 부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경제발전과 세수증가가 뒤따르게 되면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재정적자의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 총리는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관리의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모든 재정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것인 만큼 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증대 노력과 절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속적인 세금 징수 강화를 통해 세금채납을 줄이고 모든 세금은 법

에 따라 응당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확대에 의해 인플레이가 유발될 것을 우려하여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주룽지는 '현 단계에서 재정적자와 누적 부채가 국내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제적 경계선을 밑돌고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특정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특수정책'이라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예산 편성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 정도의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 상화이청(項懷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표명

중국 재정부장 상화이청은 6일 열린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재정투입을 늘려 기초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상화이청은 6일 전인대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진 '1998년 중앙과 지방예산집행상황 및 1999년 중앙과 지방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를 통해 '960억 위안(元)에 달하는 전년도 재정적자와 1천5백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99년도 재정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룽지 총리가 전인대 첫 날 언급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배경과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III. 전인대에서 일어난 일들

1.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말하는 종교론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정협(정족상회) 민족종교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족과 소수민족, 또는 각 소수민족 간에는 평등과 평화가 상존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민족은 인원수의 많고 적음이나 역사의 장단, 발전정도에 관계없이 조국이라는 가정의 평등한 일원으로 평등한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

다'고 밝혔다. 또한 '각 민족은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하고 조국통일, 국가와 사회 안정수호를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쩌민은 '우리 공산당은 무신론자이며 신앙종교를 불신한다.'



전국민대표대회 도중 장쩌민(左)과 주룽지(右)가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고 지적한 뒤 '그러나 우리는 종교신앙자유라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쩌민은 또 '종교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종교인들은 국가의 법률,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고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며 종교활동도 국가의 최고이익과 민족전체의 이익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계 인사들도 애국, 진보해야 하며 조국통일과 민족단결,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장쩌민, 군대도 법으로 다스리자!

중국국가주석 장쩌민은 어제 열린 전인대 해방군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의법치군(依法治軍)'을 강조하고 국방과 군대관련사업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산해방 50주년 등 중요한 해에 강력한 사상교육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대내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또 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IV. 폐막 그리고 제9기 전인대의 의의

중국 제9기 2차 전인대 회의가 15일 주룽지 총리가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와 헌법수정초안에 대한 표결을 통과시킨 후 폐막했다. 주룽지의 정부공작보고서는 35개의 정부부처에서 96%의 지지를 받았다. 전인대

가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하고 개혁 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헌법수정안은 개체기업이나 사영기업의 경제활동을 사회주의 시장경

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맺음말

이번 전인대에선 그동안 개혁, 개방의 틀 안에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유제 방식을 '중점적' 위치에 두게 되었다. 앞으로 중국 사회는 크게는 경제 발전을 위해 작게는 '부'를 위해서 상호 경쟁하고, 노력하는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국이 물질주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도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더 넓어지게 된 경제의 문을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본주의라는 명칭으로 제한시킬 수 없는 다중적인 나라이다. 이 중국이 하나님께 드러지기 위해선 열려진 경제의 문을 통해,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번 회의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자신과 정부가 무신론자임을 언급하고, 종교가 정부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것으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로 그들을 알고 접근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만만디와 관시로 사는 중국인들

석은혜

들어가는 말

동일한 민족이 같은 지역에서 공통의 역사와 언어, 경제 및 사회 생활을 하게되면 대체로 사람들은 일치된 문화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미국인에 대해선 '개방성', 영국인은 '신사성', 독일인은 '실리성', 일본인은 '모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한국인의 특성은 무슨 일이든 '빨리 빨리' 하고, 중국인의 특성은 '느릿 느릿'하다고 연상을 한다. 이처럼 어느 민족이든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임어당(林語堂)의 『만만디, 만만디』라는 책을 보면, 그는 중국인의 성격을 "원만성, 인내성, 무관심, 사기성, 만족감, 해학, 보수주의, 평화주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인 전도사 스미스는 1880년에 중국인의 성격을 "과분한 체면치레, 경솔함, 시간관념 박약, 부정확, 오만, 무위도식, 신경 둔감증, 단체 의식의 결핍, 동정심 결핍, 불성실, 과도한 보수성, 상호 불신, 공중도덕심의 결핍" 등으로 묘사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본 중국인의 민족성은 임어당이 말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 비판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서양인들의 실험, 분석, 통계적인 접근법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1978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에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행동 규범, 윤리·도덕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민족성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는다. 필자는 중

국 베이징(北京)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중국인들의 특성 몇 가지를 여기에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중국인들의 특성

무슨 일이든 만만디 만만디

'중국인'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만만디(慢慢的)'를 가장 먼저 연상한다. 만만디는 '천천히' 혹은 '느리게'라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는 '만조우(慢走; 천천히 가세요)'이며, 식당에서 서로에게 하는 말도 '만만츠(慢慢吃; 천천히 드세요)'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만만디'라는 말은 거의 일상용어가 되어 있고, 그들의 행동 역시 말처럼 여간해서 서두른다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빨리 빨리' 움직이는 한국 문화 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살아왔던 내가 '만만디'의 나라 중국에 가서 적응하기란 그다지 쉽지만은 않았다.

가장 먼저 만만디 문화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것은 언어연수를 위해 학교에 서류를 접수할 때였다. 단순히 몇 가지 서류 접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입학 수속을 몇 날 며칠에 걸쳐 해야했다. 이미 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병원에 가서 다시 건강진단서를 해 와야 한다고 했다. 형식적인 몇 가지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하루를 소비했고, 그나마 그 건강진단서를 찾기 위해 1주일 후에 다시 또 병원에 가야 했다. 건강진단서가 해결되자 다시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류증'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공안국까지는 택시를 타고서도 40~50분을 가야 한다. '거류증' 역

시 그날 해결되지 않았고 1주일 후에 다시 찾으러 가야 했다. 학생증 하나 만드는데도 며칠이 걸린다. 학교와 병원, 공안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은행에도 일 처리 속도가 느리기는 마찬가지다. 한번은 오전에 11시에 은행에 갔다가 오후 3시에 돌아온 적도 있다. 내가 은행에 갔을 때 많은 손님들이 번호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11시 30분이 되자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데 오후 2시 이후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은행에 갔다. 중국 은행원들은 돈을 받으면 기다리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훔치 가짜지폐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지폐확인기계'에 넣어보고, 또다시 돈을 양손에 높이 들고 확인한다. 그리고 숫자가 맞는지 두서너 번씩 세어보면서 확인한다. 그들의 느린 동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마치 하루가 다 가버린 듯 했다.

내가 중국에 살면서 만만디 중국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나도 점점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살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하루에 한 건만 처리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다.

돼지 보다 더 강한 인내심

중국인들의 특성을 말하면서 그들의 인내력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의 저명한 역사학자 겸 작가인 백양(柏楊)이 쓴 글 중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밀폐된 돼지우리 속에서 누가 돼지와 함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상금을 걸고 시합했더니 맨 처음 못 참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사람은 일본인이고, 다음엔 미국인이 기어 나오면서 "자칫하면 죽을 뻔했다."고 고함을 질렀단다. 그 다음엔 돼지가 "나 살려라." 하고 뛰쳐나왔는데 중국인은 아직 그 속에서 남아 있더라는 것이다. 중국인의 인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이다.

중국인들의 인내심은 기차표를 사기 위해 기차역 앞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차 여행시 20, 30시간 가는 거리를 서서 가거나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가는 중국인들을 보면 그들의 참을성은

초인간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한 번은 중국 여행길에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새벽기차를 타야 했던 적이 있었다. 비교적 깨끗한 호텔에서 그동안의 여로를 풀고 단잠을 자고 싶었는데,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여행사의 통보를 받고 기차역으로 나가야 했다. 새벽 2시에 온다는 기차는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오겠지,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면서 추위와 싸우며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내 방송조차 없이 기차는 오지 않았다. 기다림에 지친 우리 팀원들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여기 저기서 조금씩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불평하는 것조차 지쳐서 아예 포기하고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청했다. 아침 10시, 무려 8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기차는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왔다.

그 때 나는 말로만 들던 중국인들의 인내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기차역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앉아 있던 많은 중국인 중에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누구 하나 창구에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조바심을 떨지도 않았다. 그들의 인내심은 차라리 무관심이고, 포기에 가까웠고, 자신의 권리 앞에 항거조차 못하는 것은 미련함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 인내심이 그들의 특성인데 누가 어찌하랴.

중국인들이 이런 참을성을 배우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으로 대가족 제도 속에 살면서 서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터득하게 된 것이라고 입어당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심은 가정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와 사회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참아내지 않으면 살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중국인들에게 인내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줄이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해

중국은 인간관계를 통해, 즉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관시(關係)로 연결된 사회다. 정치와 권력에서부터 취직과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학교 진학, 관청에 가서 민원업무를 할 때, 사기 힘든 인기상품을 구할 때, 모두 관시가 필요하다. 심지어 기차표를 구입할 때나 극장 표, 콘서트 표를 구입할 때에도 '관시'가 없이는 살수가 없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관

시를 이용하면 병원비도 저렴하게 지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속하여 빨리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중국 사회에서는 아주 친숙한 관계가 아니라 단지 안면만 있는 정도의 사이 일지라도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교제의 범위를 넓혀 '관시'를 맺어 놓으려고 한다.

베이징에서 한국 여학생과 중국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세 얻어 살면서 중국인들의 관시의 위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도 아직까지도 전화가 없는 집이 많이 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아파트에도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얻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집주인은 우리가 전화 때문에 망설이는 것을 눈치채고 전화를 한달 내에 놓아주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전화를 놓으려면 가입비도 한국보다 비싸거나와 전화가 가설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신청해서 언제 가설을 하겠느냐고 우리가 의아해 하자 집주인은 베이징 전화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한달 내에 놓아주겠다고 장담을 했다. 다른 집에도 전화가 없기는 마찬가지라 전화를 설치해 주겠다는 그 집을 얻었고, 집주인은 결국 자신의 '관시'를 이용해 한달 안에 전화를 가설해 주었다.

또 한번은 중국에서 친구와 시안(西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베이징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할 때는 외국인 전용 판매처가 있어 기차표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런데 문제는 시안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표를 구하는 것이었다. 시안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하려고 하니 예상대로 이미 다 매진되어 표가 없다는 것이었다. 암표조차도 어디에 가서 사야 하는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 여행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어 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마침 시안에 한 한국인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의 '관시'를 통해 기차표를 구해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관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되는 일이 안 되기도 한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중국인들

중국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신사상 역시 중국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역사를 보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사람을 믿지 않도록 배워온 것 같다. 게

다가 문화대혁명이라는 가혹한 정치를 거치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발해야 했고,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속고 속이다 보니 결국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중국인들의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문화는 중국 사회 어디에서나 그 실상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중국에서는 무엇을 하든 '야진(押金)'이라 하여 보증금을 먼저 요구한다. 호텔에 묵게 되면 숙박비를 선불로 내야 할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호텔 측에서 요구하는 돈을 더 내야 한다. 이유인즉 호텔의 물건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과 호텔 열쇠를 분실할지도 모르니 도망가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다. 손님이 호텔을 떠날 때 종업원에게 방을 확인해 보게 하고, 분실된 물건이 없으면 그 보증금을 손님에게 돌려준다. 최근 들어 대도시의 고급 호텔들은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이것으로 보증금을 대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에 따라 요구되는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무슨 일이든지 '야진'을 요구한다. 방을 세 얻을 때도, 공중 목욕탕에 가도, 불링을 칠 때도, 유원지에서 보트를 타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도 보증금을 내야 한다.

한 번은 베이징공항에 한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택시를 왕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타고 간 적이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기사 아저씨는 왕복 택시비를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손님을 맞이해서 돌아간 후에 왕복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내가 돌아갈 때는 다른 택시를 타고 갈지도 모르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 그렇다면 여기까지 타고 온 편도 택시비를 먼저 내고,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를 주겠다고 흥정을 했다. 그런데 그 기사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왕복 택시비를 요구했다.

"아저씨가 저를 못 믿는데 저는 어떻게 아저씨를 믿고 왕복 택시비를 줄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종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의심하자면 그 전화번호가 그 기사의 것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한 그가 왕복 택시비를 받고 나서, 내가 손님을 맞으러 간 사이에 편 손님을 태워 가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는 나를 믿지 못해 하면서, 나에게도 전화번호 한 장으로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불신풍조를 한탄하면서 나는 결국 왕복 택시비를 미리 주었다. 그는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그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중국에 이 불신문화가 언제쯤 없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전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잘 모으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5천만 명 정도의 화교들이 대부분 돈이 많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화교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수중에 돈이 일단 들어 가면 나올 줄을 모른다.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春節)에 중국인들이 즐겨하는 덕담은 '공시파차이(恭禧發財; 돈 많이 버십시오)'이다.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이 인사말이 될 정도로 중국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자 대륙에 사는 중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한다. 어떤 교수는 택시 운전을, 어떤 교수는 외국 학생들에게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한다.

베이징에서 언어 연수를 할 때 한 번은 대학의 교수에게 개인지도도를 받은 적이 있다. 대부분 개인 지도도를 받을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일 주일에 두세 번씩 한다. 지도비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일당으로 주거나 아니면 일 주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일수를 계산해서 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도비를 비싸게 요구했고, 그러면서도 한 달씩 선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지도도를 하기로 정해 놓은 시간에 자신이 시간이 없어 수업을 못하면 다른 시간에 대신 해 주지만, 만일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해 수업을 하지 못하면 이미 낸 지도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 교수의 그런 조건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를 소개해 준 중국 친구의 얼굴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의 나이와 경험으로 보아 그런 조건을 내걸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니 기대하고 그에게 개인지도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가 외국 학생들에게 개인지도도를 많이 한 덕분인지 그의 집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구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교수는 언어 지도도를 할 때대 내 기대만큼 충실하지 못한데다가 시간마다 돈 얘기를 했고, 은근히 한국의 특산물들을 선물로 받고 싶어했다. 내가 그 교수를 통해 발견한 것이 있다면 돈 앞에 '사도(師道)' 조

차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개한 친구 때문에 두 달을 참고 지도도를 받다가 결국은 그 교수에게 개인지도 받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후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을 통해 그는 여전히 외국 학생들에게 중국어 개인지도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맺음 말

중국은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인들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물론 동일한 것이라 문화라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다른 점이 더 많다. 우리가 중국인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기에 종종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한국에 유학 온 한 중국유학생이 한국인들이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며, 중국인을 너무 무시한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필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중국과 중국인을 잘 모르면서 피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해 버린다. '중국은 큰 나라', '중국은 너무 더럽다', '중국은 가난하다', '중국에는 미인이 많다', '중국은 저력이 있다' 등등.

필자가 위에 말한 중국인들의 특성 역시 한국인인 필자가 주관적 눈으로 보고 느낀 중국인들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중국인을 이해해 보자는 의도에서 중국인들의 특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중국인들의 특성을 알고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임어당은 중국인들의 인내심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의 인내심은 기독교인들의 인내심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 보다 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돈'이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국인들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되길 기도해 본다.



석은혜/본지 편집장

보도물에 나타난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종교

중국 난징(南京)서 '성경 2천만 권 제작 기념식'

한때 종교탄압이 극심했던 중국에서 성경책이 공식적으로 발간된 지 12년 만에 2천만 권째의 성경책이 발간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중국 난징(南京)의 애덕인쇄소에서 '성경 2천만 권 제작기념식'을 가졌다. 애덕인쇄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애덕기금회가 합작해 설립한 대규모인쇄소로 87년 11월 12일 1만 권의 성경책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97년 2백21만 부를 발행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2천만 권을 달성하게 됐다.

(국민.99.3.4)

'효대학' 중국 분교 설립 추진

한국비디오선교회(회장 김한옥)와 성산효대학원대학교(총장 최성

규)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와 지린(吉林)성 연지(延吉)시에 효대학원대학교 분교를 설립키로 해 효교육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북방선교가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99.3.9)

세계선교협, 중국기독교협 방문

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5개국 기독교단으로 구성된 세계 선교협의회(CWM)는 지난 3월 중순경에 중국기독교협회(회장 한웬자오:韓文藻)를 방문, 현지 지도자들과 상호협력 및 우의를 다지는 등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예정통합 유의웅 총회장은 한웬자오 회장을 만나 조선족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기독교협회와 예정통합 간의 선교협력과 교류에 합의했다. 이번 유 총회장의 방문은

CWM 대표단 자격이었지만 중국교회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선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조선족 등의 선교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99.3.18)

정치·군사·외교

중국 "올해 국방예산 12.7% 늘릴 방침"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과 교육사업비를 작년보다 각각 12.7% 및 21.4% 늘릴 방침이라고 상하이청 중국 재정부장이 제9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발표한 '98년도 중앙-지방 예산집행 및 99년도 예산초안에 대한 보고'에서 밝혔다. 상부장은 올해 사회간접자본투자(증가액 250억 위안(元))와 농업-임업-수리-환경보존(증가액 300억

위안), 과학기술 및 교육(증가액 26억 위안) 등에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99.3.7)

中 반체제인사, 중국인권당 창당 선언

미국과 중국이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반체제 인사가 구속될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권리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에 인접한 중국 경제특구인 선전(深圳)에서 가라오케 클럽을 운영해 온 반체제 인사 마오 시크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중국권리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중인 인권단체 '중국 인권 민주화 정보 센터'가 전했다.

(연합뉴스.99.3.1)

중국 全人大개막



중국의 의회격인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전인대) 제2차 회의가 사유경제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심의 등을 주요 의제로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돼 15일까지 11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당·정 최고지도자들을 포함, 정식대표 2천8백69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첫날 회의에서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 행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확대를 경제 성장 촉진의 주요 조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세계.99.3.5)

두만강 하구에 유엔평화센터 설립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구 1억평 규모의 부지에 '유엔세계평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신여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인 최민자(崔敏子·43·정의과) 교수는 4월 1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유엔세계평화센터건립위원회 주관으로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에서 중국과 러시아, 한국 및 북한대표들과 함께 5차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평화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중국 훈춘시와 광촨(防川)시, 러시아 핫산 지역을 포괄하는 1억 평(3만 2천6백78ha)규모이며 북한이 참여할 경우 인접한 나진·선봉무역지대의 일부 부지도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99.3.11)

中, 부패검찰 1,300여 명 정계-기소

중국 검찰 당국은 작년 한 해에 약 1천6백여 명의 검찰관을 부패 사범으로 조사해 이중 1천2백여 명의 당 기율에 따라 경징계 하고 1백16명은 기소해 강력하게 사법처벌했다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한주빈(韓柱濱) 검찰장이 밝혔다. 한 검찰장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2차회의에서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가의 흔들림없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까지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99.3.11)

중 '사유재산 인정' 새 헌법 통과

3월 5일 개막된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전체회의가 3월 15일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유경제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전인대는 6조, 8조, 11조의 개정을 통해 사유제와 사유경제를 비롯한 비공유경제를 국유경제와 함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켰다. 또 97년 제15회 당대회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당 규약에 명기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헌법서문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5조를 개정해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보수파들이 주장해온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명문화했으며, 28조의 '반혁명 활동'이란 구절을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활동'으로 완화했다. 전인대는 헌법개정안과 함께 스통합계약법 △반부패법 △마카오 특별행정구 전인대 대표 선출방법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동아.99.3.15)

거세지는 '중국위협론'...핵기술 유출 파장 증폭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중국 위협론' 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예비주자들이 이 사건을 중국포용 정책을 펴고 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비판에 연결시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공화당의 대선 출마 희망자 중 한 사람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전체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조선.99.3.15)

중국 정풍운동 거세진다



최근 제9기 전인대 2차회의를 끝낸 중국에서 차세대 공산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풍운동' 이 거세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인대 2차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부문의 조치가 끝나자마자 당 중견 간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강 바로잡기가 시작됐다. 핵심은 당 중앙에 충성을 요구하는 이른

바 '대국(大局)에의 복종' 이다. (국민.99.3.22)

유고공습, 한반도에도 파장...中-러, 美 독주 반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유고 공습으로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습참여 국가 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습반대 국가 간의 미묘한 대칭구도로 갈라질 조짐이 엿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NATO군의 유고공습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세계질서 구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근 한반도 주변 4강(強)간의 기류에도 변화가 오지 않나 하는 전망이 대두된다.

(동아.99.3.30)

경제

북한-중국 변경무역 활발

북한과 중국 간에 물물교환 형태로 이뤄지는 변경무역이 최근 부쩍 활기를 띠고 있으며 수입된 중국 상품은 평양과 원산, 개성 등 북한 내륙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월항신식일보'는 최근 신의주 인근 단둥(丹東)시로부터 북한과의 변경무역 허가를 받은 중국기업이 지난해 말 현재 127개로 전년에 비해 10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외화부족이 심화되면서

단둥 등 변경지역을 통한 물물교역 의존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99.3.3)

중, 국유기업 옐로카드제 도입

중국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유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옐로카드제를 도입했다. 옐로카드제란 축구경기에서 심판이 심한 반칙을 한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제시하는 것처럼, 큰 손실을 낸 국영기업 경영자에게 옐로 카드로 경고조치하고 다음 해에도 적자를 냈을 때 바로 퇴출(레드 카드)시키는 제도다. 반대로 흑자를 낸 기업 경영자는 그에 상응하는 승진이나 봉급인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동아.99.3.7)

"중국은 금융위기 없다"

중국은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금년에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공언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장 주석은 밀라노를 관할하는 롬바르디 지역 출신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장 주석은 이어 일부 사람들은 요즘 중국이 브라질의 전례를 따라 금융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중국이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

할 자신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약7%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저널 제92호, 99. 3. 29)

중국 '대만상인보호법' 제정

중국은 대륙에 투자하는 대만 기업들에 대한 법적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대만상인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중국 대외경제 무역합작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대만 투자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금년 2개월 간 전년 대비 투자가 19% 늘어난 3억 2천4백만달러에 달해 침체 국면의 중국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99.3.18)

미, 중국에 시장개방 요구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성사 시키려는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맞서 미국은 더욱 큰 폭의 시장개방을 요구, 중국의 WTO 가입을 둘러싼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중국은 예정된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관세율 인하 △미국 공산품-농산물의 중국내 판매장벽 철폐 △통신부문 등의 외국인 보유지분 확대 △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시장개방안을 제시했다.

(국민.99.3.29)

사인

중국 의사(醫師) '포화' 추세

중국에서도 근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건강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정부가 그동안 의학교육을 널리 보급한 결과 현재 '의사도 적고 약도 부족하던' 상황은 과거지사가 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지어 의사 과잉현상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의사 보유량을 보면 베이징(北京)이 인구 1,000명당 5.03명으로 가장 밀도가 높고 안후이성(安徽省)이 1.09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부의 1,000명당 2.34명에 비해 농촌은 1.11명으로 낮다.

(베이징저널 제92호, 99.3.29)

중국 여성채널 개국

중국에서 오는 3월 28일 최초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TV방송이 개국돼 여성취향의 프로그램들이 하루 15시간씩 방영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후난(湖南)성에서 첫 전파를 쏘게 될 창슈야 시립방송은 국내는 물론 케이블 방송망을 통해 외국에까지 방영된다. 방송 관계자들은 또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 사회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시사문제들을 방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 (국민.99.3.25)

중, 베이징 출입제한구역 모두 폐지

중국은 수도 베이징(北京)에 지난 50년대 국가비밀 보호를 이유로 설정한 외국인 출입제한 지역들을 모두 폐지, 완전 개방했다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베이징 공안국 외국인 출입관리위원회의 류성시는 "이제 외국인들이 베이징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99.3.1)

엔볐, 조선족 인구성장률 수년째 감소

중국의 엔볐(延邊)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성장률이 수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엔볐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조선족 인구가 연속 몇 년 간 자연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1997년 말까지 우리 주(엔볐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 출생률은 7.3%로 내려가고 자연 성장률도 1.7%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엔볐 자치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높은 교육수준 ▲만혼 ▲산아제한 ▲결혼 적령기의 남녀 성비 불균형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99.3.2)

중국, "대만 학생 직접 모집 허용"

중국 교육부는 푸젠(福建)성의 2개 대학이 타이완(台灣)으로부터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책

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96년 3월 부터 3년 간 심의한 끝에 발표된 것으로, 지금까지 타이완 학생들은 본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본토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치러야 했다. (조선.99.3.8)

美 MS, 중국과 인터넷 서비스 확장 추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중국의 TV시청자들에게 소프트웨어 대여와 영화전송 서비스 등 획기적인 인터넷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MS회장은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표준형 TV세트에 특정장치를 부착해 인터넷 이용은 물론 영화전송 게임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비너스」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99.3.10)

중국, 민간부문 최초의 노조 탄생

중국 민간부문 최초의 노동조합이 최근 동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루청지구에서 탄생했다. 원저우시 루청지구에는 무려 1천6백

여 개의 민간 중소기업이 번성하고 있으며 등록된 노동자 수만 3천명에 달한다. 루청지구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찻집에서 일하는 한여종업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백명의 노조원을 거느린 노조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 노조는 앞으로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국민.99.3.14)

중국 내집마련 붐

지난해 7월 주택무료분배제도가 폐지되면서 본격화한 내집마련 붐은 올 봄 사유제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집마련 방법은 과거에 국가나 직장으로부터 분배받아 살고 있는 주택을 싼값에 불하받는 방식. 집값은 같은 크기 '상품주택'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분배주택' 거주자의 절반 가량이 이런 식으로 내집을 마련한다. 중국정부는 올해도 내수확대를 위해 경제형주택 건설에 치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조치를 발동, 주택건설부지를 파격적인 싼값으로 확보하고 주택가격의 40%까지 은행대출을 허용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선.99.3.14)

中 유치원서 극기훈련 '화제'

어른도 견디기 힘든 극기훈련을 정식 교육프로그램으로 채택한 한 유치원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 위치한 진핑귀 유치원은 한 겨울에도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반바지 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어린이의 함성소리로 요란하다. 이같은 10여 분 간의 혹한체험이 끝나면 그들은 곧바로 냉수욕을 한다. 92년 문을 연 이 유치원이 어린이의 신체단련과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 극기훈련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2년 전이다. (국민.99.3.30)

한 · 중 관계

『재능교육』 중국 학습지 시장 진출

학습지 업체인 (주)재능교육이 지난 3월 말에 중국 지린(吉林)성 연지(延吉)에 지사를 설립하며 업계 최초로 중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 시장에 진출한다. 이미 조선족 어린이 3,500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사제를 운영하며 가르쳐온 이 회사는 이번엔 중국의 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중국어판 『재능 스스로 수학』 등의 교재를 중국 청화대학 연구진과 공동개발했다고 밝혔다. (조선.99.3.10)

중국 연변지역 탈북자 10만~40만 명 추정...美VOA

중국 연변(延邊)지역에는 많게는 40만 명에서, 적게는 10만 명 이상 되는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고아도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전했다. 이 방송은 "고아는 대개

북한 내 결손가정 출신으로 단신으로 탈북했거나 부모의 병사(病死)나 강제송환으로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라면서 "이들은 조선족 마을에 몰래 숨어 지내기도 하고 시장과 거리에서 구걸행각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99.3.30)

부산에 한·중 유희설비 합작투자
IMF이후 기업부도 등으로 휴폐업한 업체들의 유희설비를 활용하는 한·중 합자 투자가 추진된다. 김혁규 경남지사는 경산남도를 방문한 중국 따렌(大連)시의 왕청민 부시장 일행과 '한·중 산업설비 합자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유희설비 합자투자사업은 중국 측에서 토지, 공장건물,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희설비와 기술인력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양측은 합자투자와 관련된 각종 세제감면, 노동인력 및 전자금의 지원 등에 합의했다. (조선.99.2.24)

무주군에 중의학 교육기관 유치 추진
전북 무주군에 중국 전통의학을 가르치는 중의대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중국의 연변(延邊)대학 측과 중의학(한의과대학) 교육기관을 군내에 설립키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의대학 유치는 군립으로 단과대학을 설립한 뒤 연변대학 의학원에서 교수진을

파견, 교육을 맡는 방안과 국내의 한의과대학과 연변대학 의학원, 무주군 등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학을 세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99.2.26)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 위한 불거리 먹거리 개발 시급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맞이할 각종 관광상품과 안내서비스는 태부족이어서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인 관광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5백40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5천2백50명으로 급증, 제주가 중국인들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가 기후조건과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중국인들에게 불거리와 먹거리, 살거리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99.3.3)

충남 당진에 중국 안산강철대학 분교 설립

충남 당진군에 중국 대학 분교가 설립된다. 우리나라에 중국대학 분교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안산(鞍山)시 안산강철대학(원장 왕청지우·王成玖)은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한보철강 인근에 분교를 설립키로 하고 당진군 내 관련인사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조선.99.3.4)

삼보, 中 컴퓨터단지 내달 착공... 선양시와 합자조인

중국 동북부 중심도시인 선양(瀋陽)시에 국내업체의 대규모 컴퓨터 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선양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역내 10만여 평에 조성되는 삼보컴퓨터 생산단지는 완공시 연간 1백20만대의 PC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미국 및 일본 수출은 물론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전진 수출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삼보컴퓨터와 함께 전력공급장치, 키보드, PC케이스 등 30여 개 PC부품업체도 함께 이 단지에 입주한다. (동아.99.3.15)

중국에 'LG마을' 생겼다

중국에 'LG컬러 TV촌'이 생겼다. LG전자는 낙후된 중국 농촌마을 두 곳의 초등학교에 컴퓨터·컬러 TV를 비롯, 풍금 등 각종 기자재를 무상지원하고 최근 마을어귀에 'LG차이텐(컬러TV)마을' 현판을 설치하는 명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G전자가 기자재를 무상지원한 마을은 선양(瀋陽)의 신민(新民)현과 강평(康平)현으로 현지 초등학교도 'LG소학교'로 이름을 붙였다. LG전자는 이달 중 LG마을 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99.3.22)

농민 저항의 역사가 살아 있는 마오쩌둥의 고향

후난(湖南)성의 교회(II)

장자제 기독교 복음교회(張家界 基督教福音堂)

전날 무려 열 시간을 버스에 앉아 구비구비 산길을 넘어 온 우리는 피로도 잊은 채 주일 아침부터 설레기 시작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장자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긴 호기심 때문이리라. 이번 부활절부터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중국 내 소수민족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이다. 장자제교회는 소수민족 지구로서 18개 소수민족 가운데 투자족(土家族), 바이족(白族), 마오족(苗族) 등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1958년 교회 회복 당시부터 건축을 계획했지만 최근에야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교회 본당만 완성된 상태이다.

아침을 서둘러 끝내고 중국인의 습관대로 일찍 교회로 출발한 우리는 강가의 한 지점에 도착해, 웅장하게 서 있는 교회 건물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규모만 해도 나의 낡은 카메라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교회 외부는 아직도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이었고 유리창

하나 달려 있지 않았지만, 교회 정면은 웅장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교회건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정문 위에 영문으로 새겨진 장자제 복음교회(Gospel Church Zhang Jia Jie)라는 교회 간판이 흡사 외국 교회를 연상케 했다. 그러나 다시 자세히 올려다보면 그 위로 '기독교복음당'이라고 쓰인 명광선 주교의 서체가 보인다. 야오 목사에 의하면 장자제 교인들은 새 교회당 이름을 특별히 명 주교에게 요청했다 한다. 이에 명 주교는 소수민족의 요구를 어찌 안 들어줄 수 있겠냐며 흔쾌히 자필로 교회 이름을 써 보내왔다는 것이다.

계단을 따라 오르며 네 개의 큰 기둥 중앙을 지나니 곧 바로 본당 전체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 강대상이 위치한 중앙벽 한복판에 한자와 영문으로 큼지막하게 쓰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基督愛教會)'는 글귀가 뚜렷하게 보인다.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니 입구에 한 신도가 작은 책상 위에 영수증 다발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추측대로 예배당 건축 헌금을 받고 있는 중이며 헌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예배시작 전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우선 우리가 깔고 앉은 의자에 눈길이 모아졌다. 신도들이 엮었음이 분명한 짚으로 만든 간이 의자는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으며 엮은이의 숨씨에 따라 약간씩 다른 크기와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윽고 예배가 시작되



건축중인 장자제 기독교 복음교회

자 교인들은 이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웅당 있을 법한 파이프 오르간은 물론 피아노 한 대 없이 다만 낮은 풍금에 맞춰 찬송을 따라 불렀다. 이날 설교는 마가복음 13장 1~13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날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신도들이 어떻게 이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선포되었다. 이 교회는 아직 안수 받은 목사가 없고 전도원들이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다. 교회는 1985년에 10명의 신도들과 함께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1,400명으로 늘어나 이날 아침에는 94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장년예배와는 별도로 약 20~30명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교회학교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 교회와 연결된 처소교회는 9개이며, 주일 낮 예배 외의 교회활동으로는 수요일과 금요일의 성경공부, 주일의 기도회 그리고 일 년에 한번씩 신도들을 위한 사경회가 있었다.

사디(沙堤)향 처소교회

주일 오후 장자제 시에서 한 시간 정도를 달려 우리는 사디향 처소교회에 도착하였다. 그곳엔 두 명의 여성 평신도 전도원들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도원 탕수화(唐蘇華)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 처소교회는 1985년에 회복되었으며 당시 4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하였다. 1996년 신도 수가 600명 이상이 되자 향 정부는 땅을 주어 현 교회건물을 짓도록 하였다. 교회건물은 주께 헌신하듯 날마다 나와 노동력을 제공한 신도들 덕분에 불과 1달 여 만에 완성되었다. 현재 이 처소교회에는 700여 명의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변에 4개의 자매 처소교회가 생겨났으며 각 처소교회마다 3~4명의 전도인이 사역하고 있다. 전도원의 설명이 끝나고 교회 안을 둘러보던 우리는 교회 앞면 왼쪽 벽에 붙어있는 게시판에 눈길이 모아졌다. 게시판에는 지난해의 예배참가 인원수와 헌금액수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이로써 우리는 이 지역사람들의 생활형편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작년 9월 28일 예배에는 102명이 참가하였고 총 헌금액수는 11위안(元) 90전이였다.

다음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우리가 교회를 나서자 대부분이 여성신도인 이들은 우리 뒤를 말없이 따라오더니 어느 순간 일제히 노래를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내 뒤를 바짝 서서 오던 이가 울먹이며 더 이상 노래를 잊지 못했다. 할 말이 없어진 우리들이 같이 그 아픔의 이별을 나누는데 그이가 “우린



후난성의 신후아 교회를 섬기는 시역자들의 모습

이런 순간이 정말 참기 힘들어요” 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멀리 찾아온 외국 친구들이 반가운 만큼 이별 또한 참기 어려웠던 것이리라. 울먹이며 손 흔들어 주던 그들의 얼굴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다. 내 컷가에는 아직도 그 한마디가 남아 댄다.

진광(金礦) 처소교회

이번 방문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28일 오전, 우리는 다시 창샤(長沙) 시에서 한 시간 정도 시골길을 달려 왕청(望城) 현에 도착했다. 숲 속으로 난 길을 걸어 먼저 처소교회 교인 집으로 안내된 우리는 이곳 처소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이 처소교회는 이제 9년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불과 두 명의 신도였던 것이 다음 해에 30명, 3년 후엔 70명, 5년 쯤 되던 해엔 100명으로 불어나 현재는 300여 명의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처소교회에는 7명의 전도원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처소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4명의 교회관리위원이 전 신도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

출되었다. 여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문맹률이 높고 신도들의 지식수준이 높지 않지만 이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은 이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생명회’, ‘지산바오’ 등의 이단 활동이 발견되었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는 것이다.

교회의 신도들은 누구나 왕어(王娥)의 헌신적인 봉사를 기억하며 그녀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이 처소교회의 부흥은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왕어는 호남성경학교를 마쳤으며 이전에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25km나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려 주일예배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전도인도 늘어났고 또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차린 가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처소교회에 들린다. 그녀는 성경학교 신교사가 완성되면 다시 재교육을 받고 교회사역을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창샤 시 기독교협회 부회장으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쉬용우(徐勇斌) 목사는 농촌지역에는 신도들의 간증을 통한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농촌지역 기독교 성장의 특징을 설명해준다. 즉

먼저 믿은 이들이 식구나 친구들에게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치유의 경험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교이나 과부가 마을에 있을 경우 기독교인들이 도와주고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날 중국에는 많은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목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5월 성경학습반을 통해 사역자를 훈련시키려 한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우리는 밥상 가득 정성스러운 점심식사를 대접받았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방문자들을 놀라게 만든 남섬 신도들의 요리 솜씨는 남녀간의 평등이 말로만이 아닌 중국문화의 한 면을 맛보게 해주었다. 맵기로 유명한 사천고추도 호남에 와서 울고 갔다는 이곳 고추요리에 얼얼해진 우리는 바쁜 농사철임에도 잠시 일손을 놓고 처소에 모여들었을 신도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걸음을 재촉했다. 진광 처소교회는 비교적 마당이 넓은 한 신도의 집을 세내어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오자 비로소 왜 이들이 돈 많은 신도가 늘어 하루빨리 교회당을 짓고 싶다고 했는지 그 소박한 소망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농촌 어디에서 부유한 신도가 나타나랴.

외국인 만나기가 흔치않을 이들에게 우리는 각자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교회들을 소개했고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했다. 방문자들의 소개가 끝나자 10여 명의 신도와 전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찬송하겠다고 하며 집안(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잠시 후 성가대복을 차려입고 나와 시편 67편에 곡을 부친 찬송을 불러주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국적인 이들의 찬송소리는 그 가사와 함께 잠시 한낮의 열기조차 잊게 해주었다. 마침 애덕기금회 남경사무실 부총무 꾸린과(顧仁發)가 전달한 찬송가 반주기는 악기 하나 없이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선물이 되리라 믿는다.

호남성을 떠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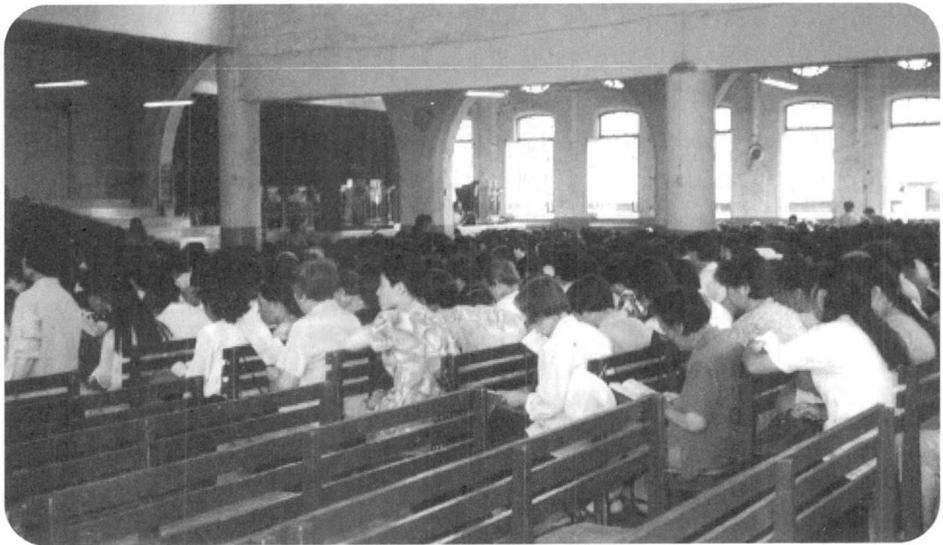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만난 이들은 12억 중국인에 비하면 바닷가의 한줌 모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일 것이다. 그리고 잠시 들여다 본 그들의 고된 삶-돌 투성이 산을 맨손으로 개간하여 밭을 만들던 짙은 호남 사투리의 소녀들과 가족들, 하루에 5km씩 걸여 식수를 구하러 다니는 외딴 산골마을 사람들, 반나절을 꼬박 걸어야 농촌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들-은 새삼 나 자신의 삶이 온통 없어도 될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많은 수의 (중국 인구의 약 80%가 아직도 농촌인구인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전 인구의 1%도 안되는 미약한 중국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며 그들이 갈구하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榮神益人)'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 농촌의 헌신적인 평신도 전도인들처럼, 혹은 신덕기금회를 통해 봉사하는 호남성 기독교협회처럼 약함과 가난을 넘어서...

우리는 잠시의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만큼 반성하며 돌아간다. 짧은 만남을 통해 배운 다른 삶을 기억하듯, 그들도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픈 이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되리라.

삼자교회의 신학

주피득



E. 삼자신학에 대한 평가와 실제 영향력의 범위와 그 의의(意義)

필자는 이미 위의 모든 부분의 내용을 논하는 중에 삼자신학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제한 되게나마 꾸준히 논하긴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삼자교회의 신학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요즘의 삼자신학의 동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신학적 발전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퇴보나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바른 상황화 신학인가 아니면 정치적 혼합주의인가? 이런 질문들은 어쩌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게 물어왔던 질문과 상당히 비슷한 종류라고 본다.

1. 삼자신학의 성격-긍정적인 부분

비전문적인 각도에서 말할 때, 대략 다음 두 가지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1) 삼자신학이란 이전에 주로 서양식으로만 표현되었던 중국기독교교회의 신학이 비록 강요된 정치적인 현실일지라도, 중국에 맞는 토착화 및 상황화 신학의 구현을 위해 재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 시대 발전적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한 종류의 신학으로 생각하고 내·외부에서 계속 긍정적 변화의

요소를 만들어가도록 직·간접으로 자극할 필요를 보여주는 그런 신학이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부재에 의해 생긴 정치적 변수와 관련된 긴장감 속에서도 장쩌민(江澤民)은 계속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해가고자 애쓰고 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은 정치적 보수파 사람들에게 밋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자신들의 개혁개방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과도기적 정치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정치나 사상(종교 포함)은 철저한 사회주의로, 경제는 시장경제라고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소위 덩샤오핑(鄧小平)식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패와 범죄의 증가 및 사회주의 이상의 멸절의 위험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보수파 지도자들은 잔뜩 겁이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직·간접으로 제재를 가하는 때이다. 그들을 단지 숙청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들을 달래고 한편으론 사회 평화와 실추된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

요즘 중국 사회는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느낌을 주는 특이한 때이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어온 중국 사회에 적용된 사람들에게는 개방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런 위기적인 시대의 모습은 삼자교회와 신학교가 바른 모습으로 설 때, 점차적으로 갱신이 되고 또 한 해의 교회들과 총체적인 관계회복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즘, 그 동안 공산당에 의해 이용 당해온 대부분의 삼자교회 및 신학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사회현실에 대처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이용한 사회주의 치하의 통일전선정책 운동의 일환인 삼자애국운동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등 통일전선정책의 신학이론화 작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도 열악한 삼자신학교육의 현실적

환경을 개선해보려는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외국 교회와의 관계와 교류의 문호를 조금씩 더 넓혀왔다. 외국 교회의 자본, 인력과 배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외국 교회 특히, 세계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왔다.

긍정적인 결과들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외국의 신학계와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다. 외국 교회와 신학교들의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더욱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중국삼자교회와 신학교육 현장을 접촉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을 강조하고 경제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요즘의 삼자교회와 신학교의 좀 더 개방적인 것 같은 흐름이 그들의 근본을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금의 정치현실과 그 분위기에 맞추어가려는 시도 이상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2. 근래의 삼자신학의 성격

근래의 삼자신학의 성격은 어떠한가? 간략하게 말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신학'이며 새로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의 자기변화와 공산당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미래의 변화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자기보호적인 성격과 동기를 가진 '상황화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신학.'

문화대혁명 이후, 소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삼자교회 신학교육의 모습은 외부적으로는 관점과 표현이 상당히 온건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분명 주의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인 정치의 한계로 인해 그들의 신학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사실이다. 삼자교회를 공식 대표하여 발언을

하거나 글로써 발표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이나 신학자체를 위해서든지 간에 다양한 신학적 언어를 사용하며, 지금도 직·간접으로 공산당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데 심혈을 쏟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때에 그들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아무리 개혁개방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개방적인 듯한 요즘의 삼자교회와 신학교의 모습을 근본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아직도 삼자교회의 신학은 이데올로기적 신학사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공산당 종교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학사상과 그 활동은 첫째, 정부와 공산당의 감독과 관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표현된 신학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학문 활동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둘째, 신도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당 정권을 지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공산당에 의해 이용당하는 신학활동과 신학사상이다. 셋째, 종교 소멸론과 무신론, 유물변증법론과 통일전선이론적인 성격의 신학이다. 넷째, 개혁개방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근본은 변하지 않고 단지 개혁과 공산당적 정치형태와 덩샤오핑과 장쩌민 등 정치가들의 정신에 의해 인도 받은 신학이다.

(2) '새로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의 자기변호', '공산당에 대한 계속적 지지'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자기보호적'인 성격과 동기를 가진 상황화 신학.

덩샤오핑과 그 후기시대 사회에서 대답을 요구 받은 새로운 신학적 질문과 과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회가 사회에서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둘째, 이미 시작된 공산당사회 현실과의 융합의 요구를 피할

수 없이 계속 만족시켜야 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언제 어떻게 다시 바뀔지 모르는 사회체제와 상황 변화에 대해 자기들(즉 삼자교회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대처할 확고한 구실을 강구하기 위함 등이 그 주요한 과제로 들 수 있다.

본래 시작부터 정치적인 성격과 배경을 지닌 삼자신학은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신학적인' 신학으로 발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의 한 예로, 「중국전국기독교협회」의 총간사인 쑤더즈(蘇德慈)는 1950년대의 삼자운동과 요즘의 삼자운동의 차이를 1950년대 삼자가 더욱 '정치적'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면, 요즘의 삼자는 '삼자원칙에서 신학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즉, '더욱 신학적'인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Su, 1997).

이와 같은 사상적 흐름과 배경 속에서 남경신학원을 포함한 전국 13개의 삼자신학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학적인' 특히 '중국 상황화 신학'을 강조하고 그들의 신학을 더욱 체계화하고 국제화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의 신학교육에서 그것을 더욱 꾸준히 강조해왔다.

왜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화 신학(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을 그들의 신학의 전부로 표현하며 더욱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이유와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 교회와 공식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교회와 신학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명분만 표현하면(누가 믿든 그렇지 않든)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든 개혁개방으로 외부 교회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동기를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이러한 신학이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와 그 의의

위에 소개한 현대 사회주의 중국 내의 삼자교회의 신학사상은 중국 삼자교회의 공식적 표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러한 신학사상이 중국 전국 삼자교회의 구석구석에 실제로 영향을 깊이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나중에 이 면에 대해서는 더 분명히 살펴보며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이겠지만, 필자가 그 동안 직·간접으로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공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난징(南京) 신학교와 전국양회(全國兩會) 주변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양회 간부들과 각 지역의 교회와 신학교 일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자신학교나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위에 언급한 삼자신학 사상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뺄없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일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적지 않은 귀한 일꾼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정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는 공개적인 목회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얼마나 타협하지 않고 뺄없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큰 도전일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삼자교회의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사항이나 목사가 된 후에도 계속되는 그들의 기타 요구가 무엇이고 그들이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의 내용의 복잡성이 정해질 것이다.

그런 신학배경의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공식적, 정치적, 신학적 입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위에서 묘사한 그들이 표현하는 신학적 입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정말 가능한 것인지, 또한 그러한 위기를 잘 모면하여 목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해도 얼마나 그 가운데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일을 감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삼자교회를 갱신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결론

이미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자교회'의 신학은 공산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 환경 속에서 나온 정치적·성격의 신학사상이다. 겉으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에 언급한 삼자의 주요 취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중국 성도들의 일치단결을 위한 영도자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이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이 아니다. 아무리 과거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 환경과 성향 속에서 일한 부분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은 공산당의 정책과 관점에 의해서 판단되고 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 교회는 중국인들 스스로 관리하고 재정을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수준 정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지 못한 선교역사에 대해서는 과거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반성할 일이다.

이제는 중국 교회의 바른 토착화를 이루는 목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몫을 바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상황화 신학이 아니라 신학을 하나의 정치체제를 지지하는 도구로 만들거나 신학을 이데올로기화 시킨 것을 회개하고 바른 신학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광저우(廣州)



중국전역에서 돈을 벌기위해 대도시로 몰려온 젊은이들은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복권으로라도 일확천금을 벌려고 복권추첨 현장에 몰려들고 있다.



광저우 성 정부청사

중국대륙의 남단인 광둥(廣東)성에 위치해 있는 광저우(廣州)는 오래 전부터 외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며 경제적으로 발달하게 된 도시이다. 또주(珠)강 삼각주와 태평양에 인접해 있어 농작물과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무역항이라는 이점으로 화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광저우는 아편전쟁 이후 가장 먼저 개방되기도 했다. 그 이후 150년 간 혁명과 의거의 진원지가 된 광저우는 개혁개방 이후 제일 먼저 경제 특구로 설치되어 지금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맡고 있다. 아편전쟁의 시발지요,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쑨원

(孫文)의 활동지이며, 또한 태평천국을 이끈 홍시우첸(洪秀全)의 고향이기도 한 광저우는 복음의 관문도시로서 주목할 만한 곳이다.

지리개관

광저우는 광둥성의 수도이며, 중국 남방의 관문으로서 화남지구 제1의 대도시이다. 전체 면적은 16,000km이며, 인구는 612만으로 중국의 도시 중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경제도시이다.

광저우는 주강 삼각주 북부에 위치하는 도시로서 주강의 동(東)강, 서(西)강, 북(北)강의 3대강이 합류하는 지역이며, 교통 또한 광저우와 베

이징(北京)을 잇는 경광(京廣)철도와 광저우와 하이커우(海口)를 이어주는 광구(廣口)철도, 그리고 광저우와 마오밍(茂名)을 잇는 광무(廣茂)철도가 이곳에 집결된다.

역사 및 경제

중국에서도 가장 오랜 도시이자 광둥성의 중심도시인 광저우는 천 년 이상 중국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곳 광저우 지역에 처음 도시가 세워진 것은 북방에서 남방으로 정벌이 시작된 진나라 때부터다. 바다와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찍부터 외부지향적 도시로 발전했다. 광저우에 외국인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세기경으로, 인도인과 로마인들이 이곳에 왔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후 500년 뒤인 당나라 때에는 아랍상인들이 이곳과 중동, 동남아시아 일대에 대규모 무역활동을 벌였다.

영국은 1625년 무역통상에 실패한 이후, 1685년 중국황실의 허가로 인도만을 근거지로 하던 영국 소속의 동인도 회사 배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아편전쟁이 발발하여 중국의 역사중 가장 충격적이고 큰 사건을 맞게 된다.

광저우는 중앙정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일찍이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여 반봉건적 자유 사상이 강한 곳이다. 수세기 전부터 남쪽 사람들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며, 중앙과 멀리 떨어져 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해왔다. 역사에서의 저항정신은 이제 경제에 대한 독립의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통제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독립적인 의지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곳 광저우에는 중국 전역의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들은 '돈'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 1992년 광저우의 공업생산액은 791억 원이었는데, 경공업의 비중이 높아 식품, 방직, 제지 부문에서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베이징(北京)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외무역이 발달한 무역중심지로서 매

년 中國出口商品交易會(중국수출품교류회)가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시의 동쪽 15km지점엔 국제 상업항구인 황포항이 있어 대형 원양화물선 및 컨테이너선의 출입이 빈번하다.

기독교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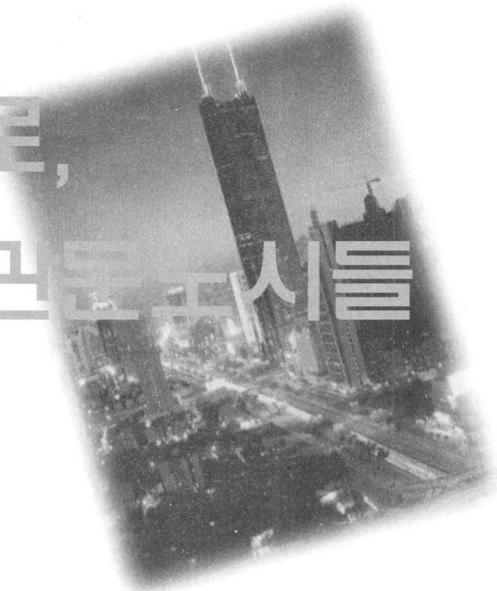
1557년 근처 마카오에 근거지를 둔 포르투갈인들과 함께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1582년 광둥성 서북쪽에 잠시 체류하다가, 베이징의 황실로 진출한 후 장기간 머물렀다. 1807년 중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런던 선교회의 로버트 모리슨이 이곳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했으며, 그 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을 했다. 지금은 1951년 문을 연 따마잔(大馬站)교회가 바로 이곳 광저우에 있다. 그동안 이곳을 통해 많은 신앙서적이 유입되고 중국 대륙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최근엔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가정교회는 계속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광저우시 공단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나 공부하러 온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발달된 경제로 인하여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열어져 가고 있다. 이 곳 광저우는 그 어느지역보다도 도시선교, 직장선교, 캠퍼스 선교의 필요가 절실한 곳이다.

이곳 광저우시의 젊은이들이 변화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혁명이 중국 땅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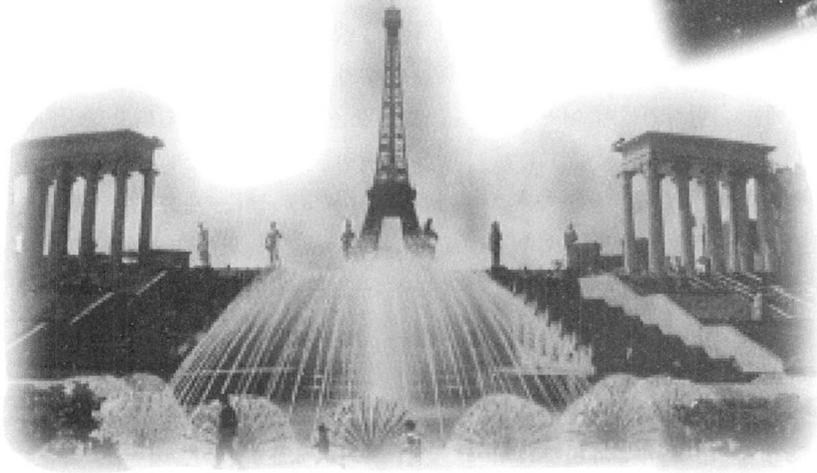
기도제목

1. 어떠한 목적으로든 중국전역에서 몰려든 이곳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2. 광저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그들에게 바른 물질관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여주시도록.
3. 광저우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부흥을 위해, 또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맑은 바사명을 충성되어 감당 할 수 있도록.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선전(深圳)



광저우와 홍콩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선전은 원래 토착원주민이 3만 명에 불과했다. 그중 대다수 사람들은 오래 전 외지에서 온 커자런(客家人)이었다.

1979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선전은 경제특구의 우대조치에 호응하여 외국자본계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진출하고, 많은 공장과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치솟는 신흥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지리개관

신흥 상공업도시인 선전의 총면적은 2,020km로 이중 327.5km가 경제 특구지역이다. 시의 인구는 300

만으로 2/3 이상이 외지인이다. 행정구역으로는 뤼후(羅湖)구, 푸톈(福田)구, 난산(南山)구, 룡강(龍崗)구 등 5개 지구와 23개 거리, 그리고 19개 진(鎮)의 3단계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22.4℃의 아열대 기후로, 최고 36.6℃에서 최저 1.4℃정도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1948.4mm이며 해양의 다습한 공기가 산에 가로막혀 큰 폭우는 오지 않는 편으로 자연환경은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형성한다.

역사

선전의 역사는 독특하다. 900여 년 전 송나라 때만 해도 선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였다. 송나라가 망한 후 송 왕을 따라 내려온 남은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선전(深圳)만 일대를 떠돌며 타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커자룬(客家人; 나그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선전은 이민자들의 도시가 되었다. 80년대 이후 사방에서 모여든 외지인들은 선전을 떠돌며 온갖 어려움에도 열정적으로 사업을 일궈내 새로운 선전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선전은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도시라고 한다. 따황샤, 따메이사라는 곳에서 발견된 도자기와 석기로 보건대 이미 56,000년 전인 신석기시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것이다. 현재 선전에는 문화 유적이 103곳, 고대 묘지가 234곳, 옛 건축물과 역사 기념 건축물이 68개 근현대사 유적과 97개의 혁명기념관이 있다. 선전시 정부는 이들 유적들 중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유적지 36곳을 문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기독교 상황

특구 내에는 '선전기독교회' 라는 교회 하나만 있고, 시외지역에는 5~6개의 교회가 있다. 이중 특구 내에 5,600명의 삼자교회 신도가 있다.

이 젊음의 도시 선전에는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각 곳에서 몰려온다. 그래서 공단의 곳곳에는 이미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들이 만연되어 있다. 고층빌딩이 숲을 이루고 홍콩과 같이 패션이 유행하는 거리의 모습과 깨끗하고 발달된 거리인 이곳을 아무도 중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미 매춘이 도시 전체에 성행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다. 선전



에는 향락, 퇴폐 산업이 심각한 수준이다. 매춘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이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온 이들은 복음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마음이 가난하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쉽고,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이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키면 전국각지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환경은 최소 12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근무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중된 업무로 늘 피곤해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각 공장 대표의 승인이 없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기도제목

1. 선전에 있는 많은 공장의 공장주들의 마음이 녹아져 직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용납할 수 있도록.
2. 선전에 와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어지도록.
3.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자매들이 주의 진리로 잘 양육되어 각 고향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쓰촨(四川)성의 소수민족

독특한 돌 문화를 보유한

창(羌)족

주영찬



창족들이 사는 돌집

유구한 인류의 역사 중 인류가 제일 처음으로 문명을 창조할 시기에 돌은 그들의 최초의 생존을 위한 도구와 무기였다. 그때부터 돌은 인류에 의해서 여러 형태로 다듬어 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다듬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을 여러 종류의 형태로 탈바꿈했다.

일찍이 중국의 쓰촨 서북 고원지대에도 이러한 돌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돌 문화는 수십 세기를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쓰촨의 민장(岷江), 푸장(涪江) 상류지구의 창족(羌族)인들에게는 정교하고 정감있는 독특한 석(石) 공예와 석문화가 이들의 일상생활에 계승되어 내려온다.

‘르마이’, ‘르마’ 의 이름을 가진 창인들

‘창(羌)’이라는 이름은 고대 민족을 나타내는 민족의 명칭이었다. 고대의 창인은 하나의 단일민족이 아니었다. 기원 전 4세기 말부터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서북부의 간쑤(甘肅), 칭하이(青海)지구에 있었던 여러 토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대 한(漢)나라 사람들은 이 서부고원지대의 유목민을 가리켜 ‘창인’이라고 불렀다.

‘창’이라는 이름은 한대(漢代)부터 지금까지의 외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계속 불리어왔는데, 원래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따로 있었다.

마오현(茂縣)의 창인들은 스스로 '르마이(日麥)'라고 불렀고, 마오현(茂縣)일대와 츠부쑤(赤不蘇)지구의 창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르마(日瑪)'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리현(理縣)의 창인은 스스로 '마(瑪)'라고 일컬었다. '르(日)'는 단어의 어두에 붙은 보음(輔音)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간단히 말한다면 창어의 호칭은 '마이(麥)', '마(瑪)', '먼(門)'이다. 이 말의 뜻은 '인민의 의'라는 의미이다(마장수(馬長壽)의 저여강(氏與羌)).

서북부의 고원에서 사천북부의 산악지대로

창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중의 하나이다. 서중서(徐中舒)의 창족사(羌族史)에서 기록되기는 "창족은 고대의 중국의 서부고원지대, 지금의 간수성과 칭하이성 일대에 살았던 목축인"이었다. 본래 '장(姜)과 '창(羌)은 같은 자(字)이다. '창(羌)은 '인(人)에서 유래해서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장(姜)은 '여(女)에서 유래해서 창인의 여자 성(姓)을 만들었다.

'창(羌)이라는 글자는 '양(羊)과 '인(人)의 합성어이다. 곧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3천 년 전의 갑골문자에 이미 창족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은(殷), 상(商)시기에 치양인들의 활동기록이 나오는데, 노예제도 시기였던 당시에 은왕조는 종종 창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용하였다. 이때의 창인의 거점지는 황하(黃河) 상류일대와 황수(滄水), 칭하이성에 발원하여 간쑤성을 거쳐 황하로 흘러가는 강(江)일대가 중심이었다.

기원 전 5세기 춘추전국 시기에 서부 고원지대에 살았던 창인들은 외적의 징병과 좋은 토지를 찾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부류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동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한족과 융합이 되었고, 서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쟁족(藏族)과 융합이 되었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즉 민장 상류 지역에 넘어온 사람들이 오늘날의 창족이다. 그리고 일부는 민장과 따두허(大渡河)를 따라 윈난(雲南)성과 꾸이저우(貴州)성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지금의 이족(彝族), 나씨족(納西族), 리쑤족(傈僳族)

이 되었다. 특히 기원전 4세기경 진(秦)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남지구 민장(岷江)상류와 따두허(大渡河)지구 그리고 칭짱(靑藏)고원지구에 넘어왔다. 그리고 기원 전 206년 한무제(漢武帝) 시기에는 주거를 정착하여 사는 이들이 많았고 농업을 위주로 한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착하기 시작하자 이제 한족(漢族)과 동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민장상류의 창인들은 '사천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 황하상류에 살았던 창인들이 토착인들과 융합하여 오늘날의 '창족'이 되었다. 이들은 점차 민장상류의 주체적인 민족을 형성하였다. 지금 민장 상류의 일대에는 이런 역사를 대변하듯 많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된다. 특히 마오(茂), 먼(汶)일대에 출토된 석관묘는 치양인의 선조가 진한시기에 이미 이곳에 살기 시작했고, 유목민의 생활에서 일정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992년 아빠주(阿壩州)인구조사에 의하면 원촨현(汶川縣) 3만, 리현(理縣) 1만 5천, 마오현(茂縣) 8만 3천, 샤오진현(小金縣) 500, 헤이수이현(黑水縣) 500, 마얼강현(馬爾康縣) 1천 500, 량탕현(壤塘縣) 500, 송관현(松潘縣) 6천, 난핑현(南坪縣) 500, 진촨현(金川縣) 800, 아빠현(阿壩縣) 350, 홍원현(紅原縣) 500, 닐얼가이현(諾爾蓋縣) 350이다. 창족은 주로 마오현, 먼촨(汶川), 리현과 송관(松潘) 그리고 베이촨(北川) 지구에 주로 거주한다. 대략 20만에 가까운 인구이며 아빠주 전체의 약 20%의 인구비율을 점하고 있다.

계곡마다 마을마다 다른 언어

역사상 자주 옮겨 다니며 여러 부락에 흩어져 사는 이들의 어휘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어파(語派)를 가지고 있다. 윈(汶), 마오(茂), 리(理), 베이촨(北川)지구의 고산지대와 강의 골짜기 지대마다 각 각 다른 방언이 있다. 장면어계(藏緬語系)에 속한 이들의 언어는 심하게는 각 촌마다 어휘가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이들의 언어 연구는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다. 크게 북방언어와 남방언어로 구별한다. 북방언어의 특징은 중음으로 성조(アクセント)가 없다. 하지만 남방언어는 성조가

특징으로 적게는 두 개에서 여섯 개의 성조가 있다.

창어는 40개의 자음과 30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조는 고음(55), 중음(33, 21로도 읽음), 내려오는 음(51), 올라가는 음(13, 21로도 읽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음(241) 등이 있다. 현재 이들의 언어는 문자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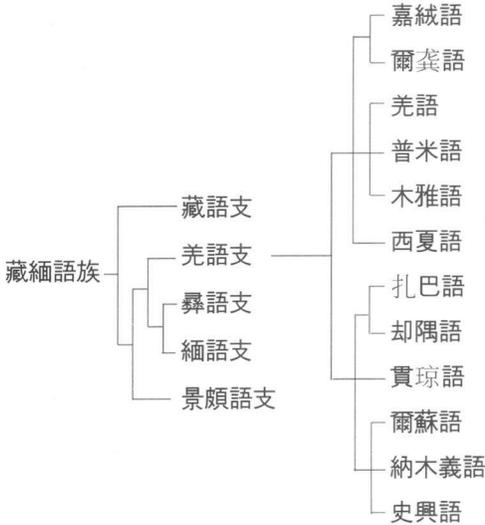


표1 羌語系通

창어는 남부방언과 북부방언으로 크게 나눈다. 남부방언은 주로 마오현과 원촨현, 그리고 리현남부지구에서 약 7만이 사용한다. 북부방언은 마오현의 츠브쑤(赤不蘇)지구에서 약 8만이 사용한다. 남, 북방언은 각각 5개의 토어(土語)가 있다.

북부방언: 곡곡토어(曲谷土語), 유고토어(維古土語), 마와토어(麻窩土語), 아도토어(雅都土語), 자목림토어(茨木林土語), 노화토어(蘆花土語)

남부방언: 삼용토어(三龍土語), 도평토어(桃坪土語), 대기산토어(大岐山土語), 흑호토어(黑虎土語), 용계토어(龍溪土語), 면쓰토어(綿虜土語),

남, 북방언은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공통점은 이들의 언어는 문법상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일부 어휘는 발음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각각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변화를 한다. 차이점은 각 토어(土語) 사이에는 발음과 어휘상에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음과 어휘의 형성 구조가 여러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방언간에 그리고 토어간에 단음절, 다음절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산(山)'이라는 단어가 남부의 도평화(桃坪話)는 cue55, 문천면쓰화(汶川綿虜話)는 xxu42, 용계화(龍溪話)는 vvo55로 발음한다. 하지만 북부방언의 무현(茂縣) 곡곡화(曲谷話)는 rrvvubu, 아도화(雅都話)는 vvurbu, 흑수현(黑水縣) 마와화(麻窩話)는 kvseb 또는 vseb 등 한 낱말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된다.

창언어가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언어는 의사 전달과 문자와 기호로 기록하여 교류하는 것으로 사용되나 고대 창어는 고유의 문자(상형문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문자로 기록하는 것으로 발달되기보다는 주로 말로 의사전달을 하는 수단으로 발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의 문자는 소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큰 부락을 기준으로 방언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교통의 장애로 인한 왕래가 적은 원인이다. 이들은 높은 고산과 깊은 계곡과 강을 끼고 촌락이 발달하다 보니 자연히 왕래하는 일이 빈번하지 못하였다. 창인의 대부분은 높은 산악지방에서 거주한다. 이들의 생활은 “일출이작 일락이식(日出而作 日落而息)” 즉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잠 잔다. 따라서 이웃 마을에 결혼이나 장례, 그리고 물건을 서로 바꾸기 위해 왕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왕래가 드물다. 그러므로 자연히 언어도 다른 마을과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집과 다편우(碉樓)

창인은 중국 서북부의 고원지대에서 외부의 침입과 국가의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쓰촨 서



청인들은 중국 서북부의 고원지대에서 외부의 침입과 국가의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쓰촨 서북부의 깊은 계곡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사진은 창족마을).

북부의 깊은 계곡 속으로 숨어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 앞에는 각박한 생존환경이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냥과 농업을 하면서 이들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적과 야생동물들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주거환경을 요새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외부로부터 튼튼히 방어하기 위해 주위에 많은 돌을 이용하여 높게 담을 쌓아 집과 망대를 지었다. 이 '다오러우(망대)'는 지금까지 창족 마을의 상징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오늘날에는 창족지구의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나무와 흙으로 만든 기와집에서 살고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로 지은 '석실(石室)'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돌집은 2층과 3층의 두 종류가 있다. 이들은 집을 지을 때, 수직축을 이용하지 않고 도면도 그리지 않을 뿐더러, 버팀목이나 지지대를 이용하지

않고도 눈짐작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 고도로 발달된 석장(石匠)의 기술이다. 석벽(石壁)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얇아진다. 하지만 내부에서 바라본 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을 이루고 있다. 2층이나 3층을 지을 때는 단단한 나무를 갈아서 층수를 구별한다. 이 나무는 바깥으로 뺀어 나오게 하여 처마를 만들고 아래 면의 벽을 보호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붕은 나무나 돌판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만들고 다시 이 위에 두껍게 흙을 덮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다시 네 모서리에는 돌을 세워서 울타리를 만든다. 다 만들어진 이런 돌집은 벽이 단정하고, 안이 넓을 뿐더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더욱이 아주 단단하여 수명이 수백 년이나 된다. 심지어는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이니 그 단단한 위력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의 맨 아래층에는 가축을 키우는 장소이다. 그리고 2층에는 휘탕(火塘, 화로)을 만들어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이 휘탕을 중심으로 생활의 공간이 형성된다. 이 휘탕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지만 겨울에는 난로도 이용된다. 그리고 3층에는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되며, 손님이 왔을 때 기거하는 장소로 제공되기도 한다. 더욱이 옥상은 각종 곡식을 거둬들인 후 건조하거나 타작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이들이 섬기는 흰 돌을 놓는 장소이다. 이 흰 돌은 이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위층을 올라가는 도구는 통나무로 깎아서 만든 층계가 이용되는데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곡이나 높은 산등성, 대략 2,000m-3,000m 사이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보온을 유지하고 바람을 막기 위해 동쪽이나 남쪽에 아주 작은 창문을 낸다.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고 기온이 높은 비교적 높은 계곡지대에 집들을 많이 짓고 있다.

다오러우(망대)는 마을의 중심부나 입구,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 건설한다. 전쟁시에는 이 높은 다오러우에서 적의 동태를 관찰하고 각 집들과 긴밀하게 연

락을 하는 장소로, 그리고 적을 대항하여 최후까지 싸우는 장소이다. 형태는 4각형, 6각형, 8각형 등이 있으며, 높이는 일반적으로 30m 정도이다. 이는 창족 건축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예술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외세의 침략이 많아 전쟁이 빈번하였다. 그래서 창족의 용병들은 스스로 자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다오러우를 많이 건설해야 했다. 통계에 의하면 해방 전에 부와짜이(布瓦寨)와 룡산짜이(龍山寨)에만도 48개의 다오러우가 있었다고 한다. 가히 다오러우의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족들은 서로 연합하여 적을 무찌르기 위해 다오러우를 건설할 때 다오러우와 다오러우 사이, 다오러우와 집 사이, 집과 집 사이를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골목과 골목을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하여 침범한 적들이 쉽게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창족 스스로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방법이었으며, 자신들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다만 오늘날 창족의 여러 다오러우와 방벽들이 파괴되었고, 이미 이러한 것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건축물들은 창족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용감하고 완강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창족만의 독특한 석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다.

절벽과 절벽, 계곡과 계곡사이를 연결하는 잔따오(棧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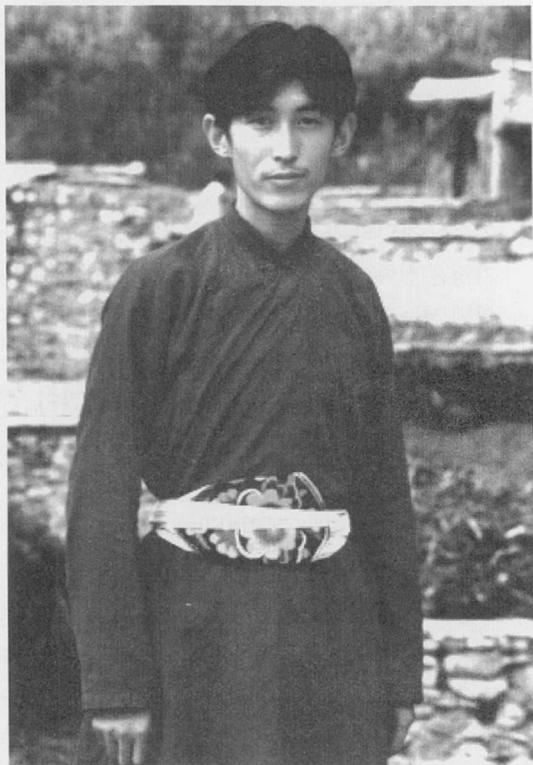
어느 민족이든지 생존과 발전은 사회의 가장 필연적이고 당면한 문제이다. 만약 '돌집'과 '다오러우'가 창족인의 생존을 위한 완강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잔따오'는 자기 민족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상징이다. 창족의 주거지역은 칭짱(靑藏)고원에서 발원하는 쓰촨지역의 고산 협곡 지역이다. 외부와의 연락과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과 계곡, 산의 암석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창족인들은 부단히 '수오차오'(索橋, 외줄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너고, 돌로 잔따오를 만들어 절

벽과 계곡을 통과했다. 현존하는 유명한 잔따오도 그 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다리의 건설은 암벽과 암벽 사이를 뚫어야 하며, 돌을 쌓아 올려야 하므로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창인의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불굴의 용기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창인들의 정신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서남지역 민족간의 왕래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서남지역의 교통역사에는 "잔도천리, 무소부통(棧道千里, 無所不通)"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창인의 문화

1. 복장

창족의 복장은 비교적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편이다. 남자들은 청색과 백색의 두건을 두르고, 긴소매의 마(麻)로 된 두루마기를 걸치고 양의 가죽으로 된 조끼를 입는다. 이 조끼는 추위를 막고, 비가 올 때 몸이 젖지 않으며, 수풀 사이를 지날 때 가시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그리고 노동 후 휴식을 할 때는 방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리에는 소나 양털, 또는 마(麻)로 만든 다리싸개를 감는데 이것은 험난한 수풀 사이를 다닐 때 다리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이들은 큰 주머니가 달린 허리띠를 찬다. 이 주머니에는 농사일이나 사냥을 하러 출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각종 간단한 도구들 즉, 담배, 칼, 불을 켜는 성냥 등을 넣는다. 남자들이 결혼하거나 생일 때 연인이나 친척들이 아름답게 수를 놓은 이 허리띠를 선물하기도 한다. 가죽이나 질긴 베로 이들은 신발을 만들어 신는데 신발의 양볼에는 아름답게 수를 놓아 신는다. 특히 명절이나 기쁜 날에는 '운운혜(云云鞋)'를 신는다. 이 운운혜는 아주 특색이 있다. 신발의 모양은 조그만 배와 비슷하고, 양쪽의 볼에는 날개처럼 깃이 있다. 그리고 구름모양이나 파도모양의 도안으로 여러 색갈의 베를 오려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 따라서 신



창족의 복장은 비교적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편이다(사진은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창족 청년).

밭의 이름이 운운혜라고 이름이 붙었다. 이들의 운운혜에는 재미있는 고사가 전해져 내려온다. 어떤 창인 한 사람이 북방으로부터 남방으로 내려오는 도중 웅맹스럽고 사나운 '과기인(戈基人-쓰촨북부 고원지대에 살았던 옛날 토착민)'을 만나 싸움이 벌어졌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운운혜를 신고 구름처럼 시뭇스뭇 날아 신이 계시해준 백석과 막대기로 과기인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운운혜는 창인에게 흉(凶)함을 물리치고 길(吉)함을 보호하는 상징물이다. 이것은 또한 남녀 간에 애정을 표시하는 큰 선물이기도 하다.

창여인들 사이에는 이런 노래가 유행한다. “사랑하는 그이가 먼길을 떠난다는데, 나의 마음은 헤어지기가 아쉽네. 운운혜를 만들어 그이에게 선물하여, 구름 타고 안개를 몰아 빨리 돌아오게 해야지.” “내가 그이에게 선물한 운운혜를 그이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 신발은 내 손으로 수를 놓은 것이지, 그

러므로 흔들면 돈이 나오는 나무(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와도 바꾸지 않으려네, 내가 선물한 운운혜를 그이가 집에 놓지 말고, 큰 길 작은 길 어떤 길이든지 신고 다녀 나를 절대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길 바라네.”

색깔이 화려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를 놓은 창여인의 복장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며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4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산룡(三龍)일대 : 동계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안하여 수를 놓은 네 가지의 두건을 쓴다. 설날에는 꽃 모양의 수를 놓은 두건을 쓴다. 그리고 각종 수를 놓은 옷을 입고, 검정 양털로 만든 허리띠를 두른다.
- 2) 헤이후(黑虎)일대 : 머리에는 백색 두건을 두르고, 청색이나 하늘색의 옷을 즐겨 입는다.
- 3) 웨이먼(渭門)일대 : 검정색의 두건을 두르고 꽃 모양으로 수를 놓은 긴소매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수놓은 허리띠, 그리고 다리싸개를 즐겨 한다.
- 4) 츠부쑤(赤不蘇)일대 : 머리에는 청색 실을 이용하여 여가짜 머리를 만들어 기와모양의 수를 놓은 두건과 함께 머리에 쓰는 것이 특색이다.

일반적인 창족 여자의 복장은 크게 상의와 치마, 양털 조끼, 그리고 앞치마, 허리띠, 두건, 신발 등으로 나뉜다. 상의의 목 주위에는 매화꽃 모양의 도안으로 된 둘레가 있고, 그 주위에는 아름답게 수를 놓으며, 앞치마와 허리띠도 동일하게 수를 이용하여 장식한다.

2. 음식

창인의 주요 식물은 옥수수, 밀, 보리, 호두, 콩, 완두, 감자 등이고, 채소는 무, 배추, 고추, 화야오(맵고 입이 마비될 정도로 얼얼한 식물) 등이다. 하루 세끼 식사가 보통이나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두끼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침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고, 들에서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 끝난다. 옥수수와 감자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

식이다. 옥수수는 가루를 만들어 빵을 만들거나 옥수수밥을 지어먹기도 한다. 특히 구어서 만든 옥수수 빵은 들에 나가거나 며칠씩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갈 때 유용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구운 옥수수 빵은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아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산에서 자란 들파나 산나리 등과 함께 먹는다. 감자는 쪄거나 잘게 잘라서 삶아 먹거나 탕을 끓여 먹는다. 특히 밀이나 보리 등은 국수를 내어 기름과 함께 볶아서 여행할 때 휴대식품으로 자주 이용한다.

이들은 신선한 고기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기른 돼지나 소, 양 등을 겨울에 잡아 기름을 발라서 집안의 휘탕(火爐, 방안에 있는 화로) 위에 걸어두어 수분을 증발시킨 후에 몇 년씩 두고 먹는다. 이것을 '라로우'(臘肉)라고 하는데 창인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들은 보리나 밀을 숙성하여 만든 '자지우'(咂酒)를 좋아한다. 이것은 항

아리에다 밀과 보리를 발효시켜 긴 빨대를 뽑아 마시는데, 특히 손님을 접대하거나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이다.

3. 가정과 혼인

기본상 창인의 가정은 일부일처 가부장제이다. 매 가정은 친족과 함께 사는데 어떤 가정은 3, 4대가 함께 사는 곳도 있다. 장남 외에 다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다른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독립해 나간다. 남아 선호사상이 있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에도 3, 4명은 보통이고, 어떤 집은 9명이나 되는 집도 있다. 이들의 관념은 많은 인구는 곧 노동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은 쉽게 고쳐질 수 없을 것 같다.

중국이 해방 이전에는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했 수가 없었다. 혼인도 매매혼이나 부모가 지정해 준 사람과 혼인을 해야만 했다. 정혼의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카이커우지우(開口酒)'이다. 남자가 아직 미성년일 때, 남자

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집에 청혼을 하여 허락을 하면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남자가 여자 집의 잔치에 참석한다. 이것을 '카이커우지우'라 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자 측은 일정한 청혼금액을 요청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청혼의 처음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남자 측에서 '자지우'를 준비하고, 친척들을 초대하여 여자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푼다. 이때는 어느 정도의 예물을 준비하여 집안에 모셔놓은 사당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샤오딩지우(小訂酒)'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양가에서 구체적으로 결혼 날짜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다딩지우(大訂酒)'이다. 남자는



창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리나 밀을 숙성하여 만든 '자지우'를 좋아한다. 특히 손님을 접대하거나 집안의 애경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중 하나이다(사진은 빨대를 사용해 자지우를 마시고 있는 모습).

크게 잔치를 베풀고 여자 측의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한다. 이때 남자 측에서는 또 일정한 예물을 마련하여 여자 측에 건넨다. 은으로 만든 패물을 준비하여 장모에게 선물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자는 절대 얼굴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 보어서는 안 된다.

혼인은 '여화야(女花夜)', '정연(正宴)', '사객(謝客)'의 세 가지로 진행된다. '여화야'는 결혼 전날 진행되는데 여자 측에서 연회를 마련하여 신랑 측과 선물을 가지고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이 때는 춤과 노래로 결혼을 축하한다.

'정연'은 결혼을 하는 당일의 예식이다. 신랑 측에서는 말을 준비하여 친히 신부를 데려온다.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신부 측에 전달하는 풍습이 있다. 이는 신부집에는 사람 한 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로 식구를 더 해준다는 의미이다. 신부는 집을 떠나면서 대성통곡하여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의 뜻과 헤어지기가 아쉬움을 표현한다. 신부가 신랑집에 갈 때는 신부의 친구들이 7, 8명 둘러리로 따라간다. 신랑집에 도달하면 신랑집에서는 쌀을 바닥에 뿌리고 수탉을 잡아 피를 대문에다 뿌린 후에 신부는 말에서 내려 신랑집에 들어간다. 이는 사악한 것을 제거하는 관습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사배(四拜)를 하는데 일배(一拜)는 하늘과 땅의 신에게, 이배(二拜)는 일월(日月)신에게, 삼배(三拜)는 국왕과 물, 흙신에게 절을 한다. 사배는 금은 보화가 굴러 들어오는 복을 누리도록 절을 한다. 그리고 다시 사배를 하는데 일배는 조상에게, 이배는 부모의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삼배는 부부가 마주 보고 서로에게 절을 하고, 사배는 자식을 잘 낳기를 위해 절을 한다. 이런 예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의 친척과 친구들은 '자지우'를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연회를 즐기는데, 이때 주로 부르는 노래는 신부의 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와 신랑의 근면과 용감한 성격을 주로 찬양한다.

정연이 끝난 다음날 주인은 손님을 위해 '사객'을 준비한다. 이때는 손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

해 음식을 준비하고 폭죽을 터트리면서 모든 혼인 예식이 끝났음을 알린다. 그러면 손님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

만약 남자의 청혼에 여자 측에서 거절했을 경우에는 여자가 집에서 출타할 때 납치를 해서 자기 집에도 하룻밤을 재운 뒤, 다음날 남자는 살진 돼지고기 비개와 자지우를 가지고 여자 집에 가서 다시 청혼을 한다. 그러면 여자 집에서는 밤이 다 되기 전의 짧은 시간에 가부를 결정하여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여자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여자는 남자 집에서 도망쳐 나온다. 그리고 남자는 더이상 청혼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기

창인들은 한족이 지내는 여러 절기 등을 포함해서 자기 민족의 종교신앙과 관계되는 몇 개의 절기들을 지킨다.

제산회(祭山會): 이는 산신령께 지내는 제사로 수확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이는 창인에게 큰 절기 중의 하나이지만 날짜는 각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통 4, 5, 8월 간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제사는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신대(神台)에서 지낸다. 이 절기에는 각 동네의 부녀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이 참가한다. 이 제사는 '단공'(端公: 허(許), 무사(巫師)라고도 하며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단공이 주관하며, 소나 양을 잡아 피를 이들이 섬기는 백석(白石) 주위에 뿌리고 빨은 백석 옆에다 놓는다. 단공은 양가죽 복을 치며 주문을 외우고, 마을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계명을 낭독한다. 이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자지우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은 후 집으로 돌아온다. 제산회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도 포함하기도 하는데, 만약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 때는 산에서 빨감 나무를 해서는 안 되며, 사냥이나 약초를 캐서도 안 된다. 만약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비가 오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 때는 결혼한 여자들이

참석하여 백석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우가(祈雨歌)를 부른다.

강력년(羌歷年): 일미절(日美節)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는 창인의 일년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이다. 매년 음력 시월 초일일(十月初一日)부터 거행하여 3~5일 진행된다. 이 절기에는 전설이 있다. 아주 오랜 옛날 상제(上帝)의 딸인 목저주(木姐珠)가 창족 청년과 결혼하기를 고집하자 상제(上帝)는 허락하고 혼수품으로 나무와 양식과 가축을 종류대로 주었다. 그녀가 지상에 오자마자 곧바로 모든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곡식이 잘되고, 가축도 번성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절기가 시월 초일일(十月初一日)이었다고 한다. 이 때는 수확을 끝낸 후 모든 사람들이 곡식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멀리 나갔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집집마다 가축을 잡아서 '라로우(臘肉)와 '자지우(咂酒)와 '와다(瓦達: 밀가루 만든 큰 빵, 안에다 고기나 두부 등을 넣는다)'을 만들고, 새 옷을 지어서 입는다. 사람들은 풍년을 주신 신(神)과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단공(端公)은 양(羊)을 잡아 피를 백석(白石)앞에다 뿌리고 나서 양을 들고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양고기를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다.

부녀절(婦女節):영가절(頌歌節), 와이와각(瓦爾窩脚; 창어)이라고도 부른다. 한족의 단오절인 음력 오월 초닷새(五月初五日)에 창인의 부녀자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춤과 노래로 3~4일 동안 즐긴다. 이 때 남자들은 집안일 즉, 밥짓는 일과 기타 아이 돌보는 일 등을 하여 부녀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절기가 시작되는 아침 주부들은 결혼식 때 입었던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이슬을 밟으며 산으로 올라간다. 병이 있는 자들은 '신천(神泉)에서 목욕을 하고 참가한다. 남자들은 마른 음식과 자지우, 라로우(臘肉) 등을 가지고 함께 간다. 산 위의 탑에 이르면 여신(女神)인 '입

미주(入米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연장자 여인의 인도하에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석양이 이를 때쯤 산을 내려와 집에서 다시 배부르게 먹고 자지우를 마시며 가무를 즐긴다. 하지만 만약 자기 마을에 그 해 봄이나 여름에 13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가 죽으면 이 절기를 지내지 않는다.

5. 금기

창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금기가 전해 내려온다. 가령 춘분과 경칩에는 절대로 들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물을 죽일 위험이 있고, 농작물의 성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한 부녀는 한 달이 지나지 않으면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부뚜막신과 집신(家神)에게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된다. 귀신이 그 사람과 함께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한 여인은 신혼부부의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저녁에 병든 사람의 방에서 휘파람을 불어서도 안 된다. 이는 귀신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병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된다. 병든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낯선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에 오르는 나무 사다리를 한쪽으로 치워놓는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밥을 먹은 후에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나란히 놓아서는 안 되며, 술잔을 엮어놓아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귀신을 경배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안에서 발을 세 번 굴려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신과 화신(火神)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병이 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지방이나 방에 오르는 나무계단에 앉아서도 안 된다. 정월 초하루날에는 큰 소리로 사람을 꾸짖거나 부짓가락 소리나 칼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것은 불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도리깨를, 여자 아이를 낳

으면 등에 지는 대광주리를 7일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건다. 그리고 집에 병자가 있으면 빨간 종이를 문 앞에 건다. 임신부는 분만시 침실에서 분만해서는 안 되고 양이나 소 우리에서 분만해야 한다. 임신부는 다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강 주위나 우물 주위에 가셔도 안 된다. 또한 닭이나 사당 등에 가셔도 안 된다. 더욱이 말고기나 어미 돼지고기, 발을 기는 쇠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집안에 있는 휘탕(火塘)을 넘어서는 안 된다. 휘탕에는 침을 뱉어서도 안되고, 양말이나 신발, 의류 등을 말려서도 안 된다. 이것은 부뚜막 신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출타할 때는 다른 사람 말의 꼬리를 잡아서 안 된다. 그리고 길일(吉日)을 선택해야 한다. 집안에 아이를 낳거나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단공(端公)을 초청해서 순산을 돕는데, 이 때는 절대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오거나 큰 소리로 울어서는 안 된다. 농사를 지을 때는 밀짚모자를 써서는 안되며 호미나 켤이를 방으로 들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방안에서는 구멍을 파거나 곡식을 타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길한 것이며,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집안에 상사(喪事)가 났을 때 출입을 삼가야 하며 다른 집에 가셔도 안 된다. 그리고 생산활동이나 노동을 해서는 안되며 부녀자들도 바느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죽은 이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백석숭배(白石崇拜)와 종교신앙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창족의 종교신앙은 다신교를 숭배하였다. 하지만 다른 다신교를 믿는 지역과는 달리 이들의 다신숭배 사상은 백석(白石)중심이였다. 창족의 백석숭배는 독특한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신앙은 모든 자연만물이 모두 신이다. 하지만 백석은 모든 신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런 백석은 창인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돌 중의 영웅 돌'이다. 이들은 스스로 이를 가리켜 '아워얼(阿渥爾)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집을 지을 때 집 위의 가장 높은 위치인 옥상이나 처마 사면에 이 돌을 배치한다. 그리고 생업의 터전인 밭 주변이나, 산등성이, 나무 위 등에서도 종종 볼 수 있

다. 하늘의 천신(天神), 땅의 지신(地神), 목신(木神), 양신(羊神), 가신(家神), 석장신(石匠神) 등, 이 모든 다른 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백석은 다른 신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길(吉)한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마오현(茂縣) 지구에는 정월 초하룻날 백석을 들고 집안으로 들고 들어가면 재물을 모은다는 관습적 믿음이 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룻날 이웃과 친척을 방문하여 백석을 선물하면서 "재물이 왔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주인은 이 백석을 받아서 신상이나 위패를 모셔두는 자리에 올려놓아 친척, 친구들의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표시를 한다. 어떤 지방은 혼인을 서약할 때 백석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한 쪽씩 나눠가졌다가 혼인식 때 서로 합쳐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펴보아 길흉을 살펴보는 풍습도 있다.

지금도 창인 사이에는 이러한 전설이 내려온다. 이들이 이 일대에 이르자 '과기인(戈基人)'과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기인'은 민장 상류에 살았던 토착민족이었다. 이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어서 창인은 이들과 몇 차례 싸움에서 연전 연패하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떠나려고 채비를 하던 차에 꿈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 것은 견고한 '백석(흰돌)'을 구해서 나무 막대기와 함께 무기를 삼아서 싸울 것이며, 목에는 양털을 매어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싸움을 하여 마침내 이겼다. 그 후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왔다. 천신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이긴 창인들은 이 전쟁을 기념하고 천신을 섬기는 의미에서 백석을 지금까지 숭배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많이 흘러갔지만 고대의 무기와 공구였던 돌이 지금은 점점 변하여 창인 종교세계의 모든 범신(凡神)의 대표가 되었다. 또한 창인의 정신세계에 소멸되지 않는 성스러운 돌이 되었다.

무사(巫師)인 '단공(端公)'과 죽은 사람의 툽로인 '양(羊)'

고대부터 창족들은 인간이 짧은 역량으로 자연과 거스르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 해, 달, 별 등 무릇 생명이 없는 것이나 생명이 있는 나무,

조상 등이 모두 이들의 길, 흥, 화, 복을 도와주는 신(神)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만물 숭배 사상'은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이지만, 이들이 섬기는 약 30여 가지의 신 중에는 계급이 있어 하늘 신인 '주신(主神)'과 '종신(從神)'의 엄격한 구별이 있다. 집집마다 처마나 지붕 위에 놓여 있는 하얀 돌은 이러한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신은 인간보다 높고 동물은 인간보다 낮기 때문"에 돌로 만든 이들의 집에는 1층에는 돼지, 소, 양 등의 가축을 기르고, 2층에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3층은 사당을 모시거나 손님의 잠자리로 사용하며 이들이 섬기는 하얀 돌은 항상 지붕 위의 꼭대기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과 귀신(鬼神)과의 구별은 더욱 뚜렷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 조상, 민족 영웅 등은 죽은 후에 바로 신의 영역에 속하여 살아 있는 사람

들에게 복을 주고, 화와 재난을 피하게 한다. 하지만 젊어서 요절하거나,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병들어 죽거나, 살인을 당해 죽은 사람 등은 귀신의 반열에 속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믿어 왔다. 이들은 '윤회 사상' 또한 갖고 있다. 아마 이웃해서 살고 있는 '짱(藏, 티벳)족'의 라마 불교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다른 생물로 변한다고 믿고 있다. 사람이 죽어 장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사(巫師)인 '단공(端公)'을 불러다가 죽은 사람의 죄를 씻는 주문을 외우게 하고, 양을 잡아 양의 몸이 이상하게 변하는지를 확인한다. 이것은 양이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통로이며, 사람과 양이 하나가 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글을 맺으면서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기독교가 전해진 기록을 찾을 수가 있다. 1888년 영국 성공회(聖公會)가 쓰촨에 들어오고 나서 한참 후인 1898년 프랑스의 카톨릭에서 마오현(茂縣)에 천주교회당을 세웠다. 1906년에는 영국의 선교사인 페이거성(費格生)이 마오현(茂縣)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였다. 그리고 1906년과 1909년에 역시 영국의 카톨릭이 창족 지구에 천주교회당과 병원, 학교 등을 세웠다. 1918년에는 영국인 마오선웨이(毛森爲) 목사가 들어와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당을 세웠다. 1900년 초에 미국 성경 협회(American Bible Society)에서 파송한 토마스 토란스(Thomas Torrance)가 이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며 전도를 하여 처음 교회가 생겨났으나 얼마 후에 바로 문을 닫고 말았다. 외부와 폐쇄적인 이들의 생활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현재 이전에 전도했던 씨앗이 아직도 끊기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기쁜 사실은 일부 마을에서 몇 명의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에게도 이단사상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며 복음이 필요한



창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례지낼 때 단공(端公)을 불러다가 죽은 사람의 죄를 씻는 주문을 외게 한다(사진은 단공이 제사드리고 있는 모습).

창족 지구



표 2

민족이다. 누군가 이들에게 가지 않으면 계속 미전도 된 자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지만 질병, 제사, 재난의 퇴치와 유아의 작명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신세계의 대변자인 단공(端公)과 영혼의 통로인 '양(羊)', 그리고 스스로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화해의 아이' (복음의 접촉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도제목

1. 창족 중 기독교인은 아주 적는데, 창족들에게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2. 현재 창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아주 극소수인데, 창족을 위한 헌신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3. 현재 미국의 몇 교회가 창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창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도록.
4. 창족 기독교인들을 지도할 말씀 사역자와 창족 교회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참고 문헌

- 阿 藏族羌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編, 阿 藏州志(上, 中, 下), 成都:四川民族出版社, 1994.10.
- 周錫銀, 劉志榮, 羌族(民族知識叢書), 北京:民族出版社, 1993. 12.
- 茂文羌族自治縣概況編寫組, 茂文羌族自治縣概況, 四川民族出版社, 1985. 11.
- 西南民族學院民族研究所, 羌族調查材料, 西南民族學院內部資料, 1984. 10.
- 孫宏開, 羌語簡志(中國少數民族語言簡志叢書), 北京:民族出版社, 1981. 7.
- 燕松柏, 雀丹, 阿 藏地區宗教史要, 成都:成都地圖出版社, 1993. 3.
- 冷濤, 鄧成善, 阿 州旅游大全, 成都:四川人民出版社, 1996. 5.
- 李明, 林忠亮, 王康, 羌族文學史, 成都:四川民族出版社, 1994. 8.
- 四川省 阿 藏州 羌族學會, 西羌文化(創刊號), 四川省 馬爾康:西羌文化編輯部, 1996. 7.
- 汶川縣 文化館, 羌族文學(11號, 17號), 四川省 汶川縣:羌族文學編輯部, 1995.2, 1998. 1.
- 阿 藏州 羌族學會, 西羌文化(總第二期), 四川省 都江壩:西羌文化編輯部, 1997.3
- 四川省 編輯組, 羌族社會歷史調查,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6. 1.
- 王明珂, 漢族邊緣的羌族記憶與羌族本質, 臺北:中央民族學院民族學研究所, 1997. 3.
- Graham, David Crockett, The customs and religion of the CHIANG, Washington:The smithsonian institution, December, 1958.
- Torrance, Thomas, The History, Customs and Religion of the Ch'iang(An Aboriginal People of West China), London:Thynne&Co.LTD, 1937.

주영찬/중국 선교사

崇拜祷告

chóng bài dǎo gào

예배시의 기도(II)

慈悲的父神啊，我们感谢你。主啊！你的权能无限，你的大爱无量。

你的圣子耶稣基督来到人间。为我们的过犯所害，为我们的罪受伤，使我们因你

的所受的苦得平安，因你所受的鞭伤得医治。

主啊！求你记念那些受苦担重担的人，身心病痛的人。

主啊！这个时候儿我们也想到我们的家庭，我们的教会，我们的社会。

使我们的家庭和睦，使我们的教会复兴。

主啊！我们把一切摆在你面前，求你悦纳我们的感谢和赞美。

这样的恳求都是靠在十字架上为我们牺牲的主名所求。啊们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권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셔서
그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위해 해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인해 평안을 얻었고, 주가 받으신 채찍질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심신이 병들어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사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는 모두 십자가 위에서 우릴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宝贵的人 (존귀한 사람)

bǎo guì de rén

A: 你知道，人在神面前多么宝贵？
nǐ zhī dào rén zài shénmiànqián duō me bǎo guì

A: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B: 神是全能的，圣洁的，可是人却软弱，还充满罪恶，神还能珍惜人类吗？
shén shì quánnéng de shèng jié de kě shì rén què ruǎn ruò hái chōngmǎn zuì è shén hái néng zhēn xī rén lèi ma

B: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람은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A: 是的。神造人的时候，有他特别的目的和旨意。人是照着神的形象造的。
shì de shén zào rén de shí hou yǒu tā tè bié de mù dì hé zhǐ yì rén shì zhào zhè shén de xíng xiàng zào de

A: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B: 就是说，人和动物根本是不同的。
jiù shì shuō rén hé dòng wù gēn běn shì bù tóng de

B: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군요.

A: 是的。人拥有灵魂，还拥有圣洁，慈爱的品性，因此能够与神交往。
shì de rén yōng yǒu lín hún hái yōng yǒu shèng jié cí ài de pǐn xìng yīn cǐ néng gòu yǔ shén jiāo wǎng

A: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B: 既然这样，我们应该怎么活呢？
jì rán zhè yàng wǒ men yīng gāi zěn me huó ne

B: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A: 我们应该敬拜神。不能得过且过地耗费人生，要珍惜生命，要显出神的荣耀来。
wǒ men yīng gāi jìng bài shén bù néng dé guò qiě guò de hào fèi rén shēng yào zhēn xī shēng mìng yào xiǎn chū shén de róng yào lái

A: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되는대로 살며 함부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정정보도: 지난 호에서 2번째 줄의 进话를 进化로, 14번째 줄의 这를 着로 정정합니다.

应当单单仰望主 (주만 바라볼찌라)



一个真心渴慕神慈爱的人一个真心仰望神平安的人
 yī ge zhēn xīn kě mù shén cí ài de rén yī ge zhēn xīn yǎng wàng shén píng ān de rén
 一个真心敬拜赞美神的人一个真心愿意学像神的人
 yī ge zhēn xīn jìng bài zàn měi shén de rén yī ge zhēn xīn yuàn yì xué xiàng shén de rén



一位创造万物和我的主他是多么地爱你和我一个
 yī wèi chuàng zào wàn wù hé wǒ de zhǔ tā shì duō me de ài nǐ hé wǒ yī ge



接受你的救主神用他慈爱的双眼
 jiē shòu nǐ de jiù zhǔ shén yòng tā cí ài de shuāng yǎn



无论何时无论何地看顾你神用他仁慈的双眼
 wú lùn hé shí wú lùn hé dì kàn gù nǐ shén yòng tā rén cí de shuāng yǎn



无论何时无论何地倾听你当我们处在黑暗中他照亮我们
 wú lùn hé shí wú lùn hé dì qīng tīng nǐ dāng wǒ men chù zài hēi àn zhōng tā zhào liàng wǒ men



我们的微声祷告他也必垂听不管你在何处何方应当单单仰望主
 wǒ men de wēi shēng dǎo gào tā yě bì chuí tīng bù guǎn nǐ zài hé chù hé fāng yīng dāng dān dān yǎng wàng zhǔ



应当单单仰望主神用主应当单单仰望主
 yīng dāng dān dān yǎng wàng zhǔ shén yòng zhǔ yīng dāng dān dān yǎng wàng zhǔ

새 일꾼을 찾습니다



‘베이징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교사 모집

본 아카데미는 중국 중앙정부와 베이징(北京)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받은 국제학교입니다. 각 과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설치됩니다.

금년 9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본 국제학교에서 신앙심 깊고 중국에 와서 봉사하기 원하시는 교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미국에 위치한 국제 기독교교회협회 정식회원학교이며 미국 교육청으로부터 학업인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및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국제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영어로 진행되며 전 세계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봉사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및 사역자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인 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혜: ① 정식교사 비자발급 ② 주택 및 기본가구 제공 ③ 기본 월급 제공(500불 이상)

자격: 교사 자격증이 있고 경험 있으신 분

연락처: International Academy of Beijing P.O.Box 004, Qinghe, Beijing, P.R.China100085

☎ 86-10-6297-0544 (FAX) 86-139-116-1011(H.P)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와 훈련원 간사, 행정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지금 즉시 출판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 533-5497 . 석은혜 선교사

선교사 훈련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훈련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 535-4255 . 이성은 선교사

행정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행정실로 연락해 주세요.

☎ 592-0132 . 이닛시 간사

중국 화북지역에서 사역자를 찾습니다.

분야: 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 중국에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와 유아 및 보육을 전공한 경력자

피아노나 미술특기가 있으면 더욱 좋음

인원: 4명(남여 구분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C.C.M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영등포구 대림동 두암종합상가

나동 4층 <예담교회>

☎ 831-1402, Fax: 836-0571

담당 : 김유신, 이병숙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재정 저 · 359쪽 · 10,000원 · 지영사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소홀히 해왔던 부분,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 속에서 시대상을 발견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즉 5천년이나 되는 시간과 우리 나라 면적의 45배 가까이 되는 광대한 공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각 시대별 특징과 지역별 특징으로 잘 서술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일상생활이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문화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이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녹여서 융합시킨다는 사실을 이 책을 접하면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한비아저 · 360쪽 · 8,000원 · 도서출판 금土

책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것도 몽골인과 중국의 소수 민족 그리고 티베트인들까지. 거리상으로는 가깝게 있지만 관심에서는 멀리 있었던 이들에게 '바람의 딸'이라고 불리는 저자는 선입견 없이 다가 가 이들을 만나고 왔다. 덕분에 단돈 8천 원 만 들면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저자만큼이나 이들과의 진솔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행운이 쥐어졌다. 재미있는 지도와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현장감을 살리며, 이 지역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들도 흥미를 끌게 하고 톡톡 튀는 문체는 페이지를 술술 넘기게 한다. 여행자의 에티켓이나 여행 코스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더 소중한 책이다.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로이드 E. 이스트만 저 · 이승휘 역 · 368쪽 · 12,000원 · 도서출판 들베개

이 책의 장점은 기존의 책들이 중국 사회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에만 다룬 것과 달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저자 자신의 뚜렷한 관점에 의거해 각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인구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좁게는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관계를 분석하고, 농업 · 상업 · 수공업 · 근대 공업 등 경제사 뿐 아니라 사회계층의 변화, 나아가 사회의 어두운 면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다른 주제가 사회경제사 분야이지만, 저자는 그 속에서 정치권력의 역할을 예리하게 규명함으로써 400년간의 중국 역사를 파헤치며 현재를 역조명하고 있다. - 윤희이의 말 중에서



비전정보기술 「니하오, 쑹구어」
중국말과 함께 한자공부 · 35,000원(교재포함)

재미있는 중국말과 함께 한자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든 CD롬으로 제품명은 '안녕, 중국'이란 뜻. 한자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생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대화형 학습환경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CD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짜여졌다. 「900차 학습」(친숙한 한자를 통한 단문 이해, 쓰기, 말하기, 듣기 등), 「한시」(시를 원어로 암송) 「대학 한마디」(재미있는 억양과 간단한 회화를 통한 일상대화법)와 노래, 게임 등 다양한 문화정보도 담고 있다.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어 공부는 필수적인 준비과제라는 인식 아래 흥미있고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VISION 02424-4300

가시밭의 백합화



중국 기독교는 감옥 안에서 시작되어 감옥 안에서 꽃피우며, 감옥 안에서 열매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중국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는 책은 「감옥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이다.

이 책은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라는 중국 교회의 분열된 현실, 거기에서 오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모두 8장까지 되어 있다. 7장까지는 각각 한 사람의 복음사역과 그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등을 내용에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중국 기독교 역사와 각 지방의 기독교 전과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선지식 없이 이 책을 접한다면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중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편협한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 중국내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는 영원히 맞닿을 것 같지 않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서로 반목하고 있지만, 중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볼 때 이 책의 시각은 아쉬움을 조금 남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언

을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반추하며 자각하는 것이겠다. 한때 우리 나라도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믿음의 조상이 있었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모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철야에 반주로 섬기는 내 친구는 사뭇 심난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금요철야에 교회 사모들이 하도 참석하지 않아 교인들 사이에 말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아예 일률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모들은 금요철야에 나오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모이기를 꾀하는 이들이여!

중국은 이제 감옥 안에서 목숨을 걸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아직 '중국' 하면 '죽(竹)의 장막'이 생각나는 나라이고 더욱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더욱 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21세기를 위한 '약속의 땅' 이기에 복음의 행진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교회는 연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 쾰트머리 즈음에도 첫 마음을 간직한 복음의 꽃이 만개한 나라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 가능성을 이 책 「가시밭의 백합화」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을 다 읽은 후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무릎꿇는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최남선 · 「전하세 예수」 전 기자

세계선교의 새로운 과제들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광호 지음 · 269면 · 8,000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든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 책에서는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가에 대한 기초적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제1부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 제2부는 성숙한 교회와 선교 교육, 제3부는 세계의 선교 과제, 제4부는 이슬람 세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은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이며, 성장 속도가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빠른 종교이기도 하다. 그들을 좀 더 알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도움을 줄 것이다.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예수전도단 · 조이 도우슨 지음 · 268면 · 7,000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백만불짜리 질문 -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 을 하도록 도전하는 중보기도의 교과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한 신 역사의 한 가운데 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책은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전세계 200여 나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하는 영역들을 소개하고 각 영역들에 대해 기도할 때 적용할 성경말씀을 적어 놓음으로써 능력 있는 기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목적이 있는 휴가

예수전도단 · 김 허스트, 크리스 이튼 · 정소영 역 · 248면 · 8,000원



이 책은 판에 박힌 평범하고 단조로운 휴가를 넘어서 단기 선교라는 흥분된 세계로 발을 내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목적이 있는 휴가' (WVAP-Vacation With A Purpose)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기회를 제공하는 단기 선교여행을 말한다.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점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넓히기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이 지침서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여행-목적이 있는 휴가를 계획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기독교문서선교회 · 김성욱 · 174면 · 5,000원



필자는 본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를 충동원하여 세계 복음화의 사역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평신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본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평신도의 위치와 그들의 바른 역할들을 논하고, 아울러 여기에 관련된 신학적 연구들을 통하여 21세기에 필요한 평신도상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확립하여 교회의 최대 과제인 선교와 복음전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선교 게시판

해외 선교 단체 정보

<“99오엠 러브여름캠페인”>

러브 중앙유럽캠페인(Love Central Europe)

기간: 7. 9~8. 7(3, 4주 선택)

사역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알바니아

러브 서유럽캠페인(Love Western Europe)

기간: 7. 16~8. 15(3, 4주 선택)

사역지: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러브 지중해캠페인(Love Mediterranean)

기간: 7. 9~8. 8

사역지: 스페인,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 레바논,
몰타

러브 실크로드(Love Silkroad)

기간: 터어키 7. 3~8. 3/알마타 7. 10~8. 9

사역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국신장, 아제르바이잔,
북코카서스, 터어키

러브 이스라엘(Love Israel)

기간: 6. 28~7. 30

사역지: 이스라엘/유대인 및 아랍인 사역(선착순 마감)

러브 홍콩(Love Hongkong)

기간: 7. 17~7. 30

사역지: 홍콩

문의: 오엠선교회(02-3482-1463)

각 지부 캠페인부 간사에게

<제14기 오엠선교사 모집>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기간: 8월 한달/전형료 4만원

모집인원: 00명

지원자격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자 및 종사자(간호사, 미용사, 엔지니어 등)

세례교인 3년 이상인 자

선교에 헌신된 자

35세 이하의 미혼과 가족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준비된 자

선발방법

서류심사

필기시험/영어, 성경, 선교, 인성검사, 면접

구비서류

지원서(소정양식), 이력서(신양경력포함),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선교사지원 간증문(A4 2장내외),

건강진단서(국, 공립병원), 부모동의서(소정양식),

졸업·성적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훈련일정

국내훈련: 1999년 11월~2000년 1월

국외훈련: 2000년 3월~7월

타문화 적응훈련, 러브유럽

사역: Global Action(New Recruit Conference)에

서 최종사역지 결정 후 1년 이상 사역

연락처: 한국오엠국제선교회(전화:02-3482-1436,

팩스:3482-1869)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행사

안내>

1.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99년 상반기 세미나 일정 안내

일 시: 5월 13일(목) 오후 7시

주 제: 변혁과 갈등속에 있는 최근 중국 가정교회

강 사: 장링링 선교사

일 시: 6월 3일(목) 오후 7시

주 제: 6·4천안문사건 10주년 기념 세미나

① 개혁개방 이후 중국 민주화 운동과 민주발전

강 사: 마민호 교수

② 1989년 6·4 천안문 사건과 중국 지식인의 개종

강 사: 왕쓰웨 목사

※ 「중국선교세미나」 3회 이상 참가자에게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 중국복음선교회 일반연구모임

주 제: 현대 중국의 정치 전개

기 간: 3월 13일~5월 15일(10주),

매주(토) 오전10:30~12:00

교 재: 서진영 저, 《현대중국정치론》, 나남출판사

※ 중국에 관심을 갖고 중국을 배워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3. “중국을 알자!”

본 연구소에서는 최근의 중국소식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이해를 높이고자 매월 격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중국뉴스 파노라마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내 용: 주요뉴스 한달 동안의 주요뉴스 소개와 평론

일 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12:30~1:20

내 용: 뉴스초점 그 달의 특정 사건을 바탕으로

일 시: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2:30~1:20

※ 장소는 중화기독교한성교회 소강당.

■ 모든 문의는 ☎318-6867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JEM목요정기모임(MJC)>

일 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

장 소: 서대문 일본선교센터

대 상: 일본선교 관심자는 누구나

진 행: 일어찬양 (찬송, 복음성가)

일어선교메시지 (일본인 목사)

타문화권 예배훈련 (일본어)

주 최: JEM 일본복음선교회

문 의: 일본복음선교회 (02-393-1772~3)

<'99 오픈도어 성경전달 사역>

중국

기 간: 1999. 6. 28(월)~7. 7(수)

경 비: 65만원

신청마감: 1999. 5. 29

사역내용: 이틀간의 성경전달/ 선교사와의 만남/
중국 교회 및 성도들과의 교제/ 관광

중동

기 간: 1999. 6. 28(월)~7. 3(토)

경 비: 150만원

신청마감: 1999. 5. 29

사역내용: 성경전달 및 가정교회의 방문/
선교사와의 만남/ 관광

인도차이나

기 간: 1999. 12. 13(월)~12. 18(토)

경 비: 65만원

신청마감: 1999. 11. 15

사역내용: 성경전달 및 배포/ 순교자/ 가정방문/
성지순례/ 선교사와의 만남/ 현지인 교회
방문

* 문의처: 한국 오픈도어선교회(02-486-3171,2)

<'99 UDTS Seoul, 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

기 간: 1999. 6. 24~2000. 2. 12

장 소: 서울, 부천 등 4개 지역

문 의: 예수전도단(02-884-8758, 032-344-9519)

랴오닝(遼寧) 성 종교사무관리조례

공고(제12호) <랴오닝(遼寧) 성 종교사무관리조례>는 랴오닝 성 제9차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함. <랴오닝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8년 11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의한 종교사무관리를 위해 관련법과 법규에 의해 본성(省)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사무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와 국가, 사회, 국민 간에 존재하는 공적 사무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모든 기관이나 개인은 모두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나 본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종교사무부서(이하 종교사무부서라 칭함)는 본 인민정부 종교사무 주관부서로 본 행정구역 내의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기타 관계기관에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종교사무 업무에 협조한다.

제5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역자와 해당 종교신자들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제6조 종교단체는 자주독립, 자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종교단

체와 종교활동은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해 국가행정, 사범,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종교단체

제8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단체란 법에 의해 설립된 현(縣)급 시(市), 구(區) 이상의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 애국협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 등의 종교

단체를 가리킨다.

제9조 종교단체 설립은 국가의 사회단체 관리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해 시(市)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의 심사와 동의를 거친 후, 본 인민정부 사회단체 등록기관의 심의를 거쳐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10조 종교단체는 각자의 규정에 의거해 활동을 전개한다.

제11조 종교단체는 종교문화 학술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 종교학교를 개설할 때는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종교인 훈련반, 자원 봉사자 훈련반을 개설할 때에는 시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종교활동장소

제13조 종교활동을 위한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나 기타 고정된 예배장소를 설립할 때에는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와 <종교활동장소 등록법>에 의해 등록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14조 각 종교활동장소는 해당종교 신자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

제15조 새로 짓는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는 시 인민정부의 심의와 성 인민정부의 허가를 거쳐 관련기관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종교활동장소에서는 신자

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연보나 헌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에서는 관련 국가규정에 의거해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용품이나 종교출판물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

제17조 비종교활동장소에서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인을 배치하거나, 신상 또는 불상 건립, 헌금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시주나 헌금, 기타 종교적 성격을 띤 중여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전도 목적의 종교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제18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상업이나 서비스업을 개설하거나 진열, 전람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과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기관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영화나 T.V 프로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과 시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관련기관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

제19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자립목적으로 기업이나 사회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도 지지해야 한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에서 상주(常住)하는 사람과 잠시 머무르는 외부인은 반드시 국가 호적관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종교활동장소에서는 국가 이익에 위반되거나 국민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활동 또는 종교를 이용한 기타 불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종교교역자

제22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교역자란 불교의 비구승, 비구, 살아 있는 부처, 라마, 도교의 도사, 여도사, 이슬람교 승려, 천주교의 주교, 신부, 수사, 수녀, 기독교의 목사, 전도사, 장로를 가리킨다.

제23조 종교교역자 신분은 성 종교단체에서 승인과 비승인을 받으며 성(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등록해 관련서류를 남겨야 한다.

제24조 종교교역자는 본 종교규정의 직책에 의거해 정해진 지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종교교역자가 다른 현(縣)이나 다른 시에서 종교활동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활동행위를 하는 현 또는 해당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해 관련자료를 남겨야 한다.

제25조 다른 성(省)의 종교교역자를 본 성(省)에 초청해 종교활동을 하거나 직책을 임명하려 할 때, 또는 본 성의 종교인이 다른 성의 초청을 받아 다른 성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직책임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 성종교단체에 신청하

고, 성 관련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친 후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해 관련자료를 남겨야 한다.

제26조 종교교역자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종교교역자신분을 박탈당한 사람은 종교교역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장 종교활동

제27조 종교활동은 종교활동 장소나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해야 한다.

제28조 종교를 가진 공민은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해당종교의 교리와 규정, 종교관습에 따라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종교전통에 따라 자기 집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제29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단체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종교교역자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해당종교의 규정이나 교리에서 인정된 사람이 주관하도록 한다.

제30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무신론 사상을 선전하거나 다른 신앙, 다른 종교, 다른 교파간에 이간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전도나 종교 명의로 금품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종교활동을 거행할 때에는 사회질서나 생산 활동, 업무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공민의 심

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종교재산

제32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기관이 법에 의해 취득했거나 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건축물, 각종시설, 용품, 공예품, 문물 등의 재산과 수입 그리고 종교기관 산하 기업의 재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소유나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문화재 보호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빼어난 풍경지구 내에 위치한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은 관련법률이나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나 환경을 보호 관리해야 하며 관련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36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합법적으로 자기소유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경영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제7장 대외적인 교류

제37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이나 종교계 인사가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인들과 우호 교류나 종교문화학술 교류활동을 가질 때에는 자주독립, 우호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38조 외국인이 본 성(省) 행정구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중국의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외국의 종교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종교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종교수당이나 전도경비를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의 종교조직이나 개인의 불법활동에 편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외국 종교조직의 위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제40조 외국 종교조직이나 개인이 본 성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는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동의와 관련기관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국가의 별도규정이 있는 것은 국가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41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대외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여행, 보건, 체육 등의 교류와 협력을 할 때 종교적인 부대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8장 법률적 책임

제42조 본 조례에 위반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다음 규정대로 처벌한다.

(1) 성(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교사원, 도교 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를 세울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은 건축 정지명령을 내린다. 이미 건축된 건물은 철거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2)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장소, 신상, 불상, 시주함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사건의 엄중에 따라 1,000위안(元)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활동정지를 명한다.

(3)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재산을 침해한 경우 침해재산의 환수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침해재산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본 조례를 위반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경고조치를 내리며 사건의 엄중에 따라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비종교단체나 비종교활동장소가 시주나, 헌금, 기타 종교적 성질을 띤 증여를 받거나 변태적인 기부를 받은 경우.

(2) 종교활동장소 범위 내에서 허가 없이 경영활동을 하거나 진열,

진람, 영화나 TV촬영을 한 경우.

제44조 본 조례를 위반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사건의 엄중에 따라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종교단체, 종교교역자의 정상적인 종교업무를 방해하고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

(2)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해당종교 신자와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 타종교의 신자, 다른 교파에 속한 공민들간에 논쟁을 선동하는 경우.

(3) 종교인을 빙자해 종교활동을 벌이거나 종교행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45조 본 조례를 위반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1)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장소나 인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했을 경우.

(2)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포교나 전도를 하거나 종교명의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

(3) <종교활동장소등록증>을 고치거나 양도하거나 위조한 경우.

(4) 외국의 종교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종교수당이나 전도경비를

받은 경우.

(5) 허가받지 않은 종교조직이 훈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제46조 외국 종교조직의 위임을 받거나 외국의 종교조직이나 개인이 불법 종교활동을 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경고 및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사건이 엄중한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 본 조례를 위반해 치안관리 위반죄가 구성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범집행자가 직무유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상급 주관부서나 소재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칙

제49조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공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區)와 마카오, 대만 지구의 주민이 본 성(省)의 행정지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50조 본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본 훈련은 중국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총체적으로
훈련하는 곳으로 위한 제7기 정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1. 선교현신자
2. 선교사 후보
3. 선교사로서 재충전이 필요한 자
4. 각 선교단체의 간사

훈련기간: 1999. 9. 20~10. 15

훈련장소: 홍콩 선교훈련원

훈련비용: US\$ 600

등록마감: 1999. 9. 15

등록 및 문의: (한국) 파이디온 선교회 김태한 총무
전화: 02-522-0872-3 팩스: 02-522-0875

(홍콩) 전화: 2693-2633 팩스: 2692-7753

중국어 찬양 Tape이 나왔습니다.



ORTV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진 기획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①회심적사 - 찬송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사랑하심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등). 총 17곡
- ②찬미단가 - 경배와 찬양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목마른 사슴, 주는 토기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등). 총 18곡
- ③부위명천적우려 - 중국어 성경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오직 성령의 열매는 등). 총 13곡
- ④금야진정적자유 - 중국인이 작사작곡한 중국복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등). 총 13곡
- ⑤수용향 -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국어 낭송과 함께 노래로 불러집니다(천지창조이야기, 다윗이야기 등). 총 18곡

-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중국어문선교회나 유명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작: 금성레코드사. 가격: 개당 4,500원
- ▶ 다량을 원하시는 분은 <진 기획>으로 연락주시시오. Tel. 997-9291, 011-688-9992

1999연합 중국선교세미나

21세기 중국선교와 우리의 과제

(그 회고와 전망: 연합적 과제를 위하여)

목 적: 21세기를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중국선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중국교회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국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략을 세우며, 총체적인 선교에 있어서 연합과 협력의 방향을 살피도록 한다.

주 최: 총회세계선교회(예장 합동)
EAM(동아시아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대 상: 각 교단 중국선교 관계자 및 선교사,
선교사 후보생, 파송 교회 지도자, 중국
관련 선교단체, 각 신대원 중국선교 현
신자

장 소: 남서울 교회

일 시: 1999년 5월 31일 오후 1시~오후6시

참가비: 5,000원 (당일접수)

발 제: 김활영 선교사
(총회세계선교회 사무총장)
이요한 총무(중국어문선교회 총무)
한명도 박사(선교전략가)
안대옥 선교사(EAM 대표/중국선교사)

패널토의: 김성태 교수, 한수아 선교사,
방동섭 박사 외...

후 원: 샘물교회, 삼일교회, 서울성일교회,
승례교회, 남서울교회, 총회선교회 외.

문 의: 02) 878-3750(동아시아선교회),
592-0132(중국어문선교회)

중국 단기선교여행

목 적: 중국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자로 준비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선교현장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21세기 중국선교를 바르게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한다.

대 상: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신대원생과 대학생, 일반인

※ 본회의 중국선교학교를 수료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기 간: 99년 여름 한 주간(6월 마지막주/
7월 중순/8월 말 중 택일)

장 소: 중국 w시

비 용: 80만원

일 정:

- 1) w시 방문-현지 사역자의 강의-시내 돌아보기.
- 2) 대학 캠퍼스 방문-관리장성-삼자교회 목회자와 함께(삼자교회의 전망).
- 3) 가정교회 방문-현지인 지도자와의 대담(중국인 가정교회의 문제)-가정교회 예배 참석.
- 4) 중국 좀 더 알기-중국 신학교 교수와 저녁시간.
- 5) 소수민족 현황과 각지의 상황 나누기
- 6) 정리 및 귀국.

특 전: 예비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현지 사역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고, 후에 동역할 수 있는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주 관: 동아시아선교회

Tel. 878-3750/3751(FAX)

협 찬: 오성 여행사

복음증주협회(CCL) 소책자 소개

每日與主同行: 매일 주님과 함께

- 일년 365일을 성경통독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000원

戴德生: 허드슨테일러의 생애 3,000원

你為何要信: 당신은 왜 믿어야 하는가? - 기독교의 과학성을 입증한 책. 3,000원

真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스토트(J.R.W. Stott) 저/ 시에즈웨이(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간체자(簡體字)판

존스토트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 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하여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문서선교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문서선교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물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면,

중국어문선교회 문서선교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 소책자와 양육 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강하림 간사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 535-4255

● 초대인 글

이 시대에 한국이 중국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르익어 많은 헌신자들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사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복음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 사역전문가에 의한 실제적인 중국선교사훈련을 통해 중국 선교사로서의 영성과 인격의 형성, 중국어 구사와 설교, 중국 실제사역의 이해, 중국현장 적응능력 등을 적절하게 갖춘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중국선교사훈련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중국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평생 헌신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중국 선교사 훈련의 장에 초대합니다.

● 대상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전문대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선교사로서의 인격형성 및 영성, 경건의 훈련
공동체 훈련/ 공동체 삶속에서의 개인성장 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개인의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현장 적응능력 향상과 실제사역의 실시
중국어/ 기초부터 자유로운 언어 구사수준까지 설교능력배양
중국선교 사역학/ 전문적인 중국선교 지식과 사역이해 도모
중국학/ 개괄적인 중국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
일반선교 사역학/ 폭넓은 세계선교와 선교문제에 대한 식견함양

● 일정

1. 훈련 및 교육기간 : 2000. 3. 2~2002. 2. 28
(2년 4학기-국내교육, 해외실습)
2. 일 시 : 매주 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평일주간)
3. 교육장소 : 본원 강의실
4. 전형방법 : 서류/필기/면접시험
5. 제출서류 : 본원지원서/신앙고백서/최종학교졸업 · 성적증명서
/사진 2매(3*4) /추천평가서 2통(담임목사, 교우)
6. 원서교부 및 접수 : 연중교부/1999. 11. 30 마감
7. 시험일자 : 논술(1999. 12. 6), 면접(1999. 12. 7-8)
8. 합격자발표 : 1999. 12. 21
9. 개강일자 : 2000. 3. 2
10. 문의: Tel 318-3956 (중국 선교사 훈련원)

2000년도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 선교사 훈련원 학생모집



중국선교 전문지

중국을 주께로

1999년 5.6월호 (통권57호)

발행처/ 시남(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하.김피득.마민호

왕쓰웨.지인성.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최귀례.곽숙.박정희.전하영

편집디자인/ 박정영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9년 4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 02) 264-5354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30,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교,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답동 44-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 762-0748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시십시오

☆ 인터넷 홈페이지

www.Dadream.co.kr/~sinim

☆ E-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sinim

편집후기

책을 발간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시간에 쫓겨 허둥거리면서 다음 호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 시간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여전히 마감에 쫓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호마다 변함없이 제 날자에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오늘도 변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책의 목차를 약간 바꾸어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특집을 책의 앞부분에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선교 길라잡이’, ‘특집’, ‘현신의 삶’, ‘중국은 지금’ 순으로 실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연재되고 있던 쪽지들을 ‘연재기획’ 섹션으로 묶어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번 호의 특집은 ‘중국 교회의 필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현재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어 실제적으로 선교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목련이 만발한 완연한 봄입니다. 봄바람에 모든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듯,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참된 예배와 성령충만이 회복 되고, 중국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국의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7,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23,400원, 합계 53,4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 1999년 5·6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30,000원(6권) 2년 60,000원(12권)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우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5497, 02) 592-0132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 훈련원 15기 모집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 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일정

6개월(매년 3월, 9월 개강 / 주 5일 훈련)
원서 교부 및 접수 : 99년 6월 15일~ 7월 31일 까지
면접, 합격자 발표 : 99년 8월 10일~20일 중
개강일자 : 99년 8월 30일 (월)
교육 및 훈련 : 매주 월 오후 2시부터, 화~금 오전 9시~ 오후 3:30분(주 5일 훈련)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분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 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대표: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습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지기를 원합니다.

희어진 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중국 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시오.

TEL: 02) 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

(회지 구독요금이라 적어 주십시오.)

